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한 여정

출판도시문화재단
20년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한 여정

출판도시문화재단
20년

차례

| | | |
|---|--|-----|
| 1 | 인사말 | 7 |
| 2 |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 8 |
| 3 | 출판도시문화재단 창립 20주년 대담 — 날로 새롭게,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하여! | 10 |
| 4 |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요 연혁 | 20 |
| 5 |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요 행사 운영 경과 | 32 |
| 6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주요 공간 운영 | 84 |
| 7 |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람, 사람들! | 100 |
| 8 | 방문객 후기 | 124 |

인사말

지난 2023년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2003년 12월,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파주출판도시를 문화 생산 도시이자 문화 향유 도시로 견인하고 격상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첫걸음을 댄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출판인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발한 파주출판도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합당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백서를 내놓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인문학 교육,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파주출판도시의 문화 브랜드를 추진하면서 ‘공동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을 확장해야 하는 등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또한 출판과 미술, 음악, 영상, 공연을 연결하고 아우르며 출판문화예술정책을 효율적으로 매개하고 추진하는 일이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20년의 시간은 성과와 시행착오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한 여정: 출판도시문화재단 20년》은 그동안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온 직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전 직원의 모습을 꼼꼼하게 담고, 직원들이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새로운 20년을 맞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대담을 통해 더 겸손하고 더 자신감 있는 자세로 내일을 향해 곧게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현’ ‘출판도시의 문화적 가치 확장’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미션을 향해 언제나 그랬듯이 힘차게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책과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비전

책과 문화예술의 중심지

미션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현
출판도시의 문화적 가치 확장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

목표

도시 내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개발
책을 원천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발굴
K-BOOKIP를 수출하는 글로벌 콘텐츠 마켓 조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활성화

사업 내용

1. 도시활성화

- 파주출판도시 고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행사 개최
- 문화사업 확대를 위한 유관 단체·기관과의 제휴, 협력
- 출판 IP에서 확산하는 글로벌 복합문화예술사업 전개

2. 문화공간 운영과 홍보

- 지혜의숲 도서 정비와 독서 장려 문화 프로그램 진행
- 파주출판도시 역사자료관 운영과 관리를 통한 역사자료 보존
- 파주출판도시 아트상품 개발과 브랜딩
- SNS 서포터즈와 블로그 체험단 운영

3. 성장기반 구축

-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연수 프로그램과 객실·유희 공간 운영 강화
- 파주출판도시 촬영장소 DB 구축 등 미디어사업 확장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숲 기부 유치
- 지자체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 출판도시문화재단 직원 관리와 운영 효율화

출판도시문화재단 창립 20주년 대담

— 날로 새롭게,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하여!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절제節制, 균형均衡, 조화調和 그리고 인간애人間愛를 기본 정신으로 세워진 파주출판도시에서 지난 20년 동안 도시의 문화적 자장을 넓히는 일에 매진해왔다. “사람을 존중하는 건축 공간, 꿈과 예절이 흐르는 문화산업단지를 지향”하는 파주출판도시의 초기 정신을 이어가며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재단의 역할과 역량, 인지도 역시 한층 성장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풍요로운 문화의 담지자擔持者 역할을 감당하며 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다.

| | |
|-----|---|
|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
| 장소 |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2층 회의실 |
| 참석자 |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송승환 PMC 프로덕션 예술감독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 소장 김용신 CBS 아나운서 |
| 진행 |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지난해 말로 설립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파주출판도시와 재단이 걸어온 길과 돌아보고, 새롭게 노정해야 할 길을 찾아보고자 이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애정을 품고 파주출판도시를 지켜봐주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파주출판도시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인연의 시작

고영은 여러 출판사가 파주출판도시 입주를 계획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출판도시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8년경 2단계 설립이 본격화하면서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기획한 건축 투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든버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 아름다움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부터 한국에 에든버러와 같은 축제 문화가 생겨난다면 그 가능성은 파주출판도시에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파주출판도시를 에든버러와 같은 축제의 공간이자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 제 위치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송승환 | PMC 프로덕션 예술감독

송승환 저는 2005년 헤르만하우스에 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주출판도시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누볐죠. 지금은 헤르만하우스에 살지 않지만, 출판도시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2022년 4월 북시티 리더스 클럽 강연자로 온 후 고영은 이사장님과 “파주출판도시를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보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올해 9월에 열릴 <파주페어_북앤컬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든버러도 처음에는 10개도 안 되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7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규모를 조금씩 키워온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파주출판도시의 ‘가능성’을 지닌 도시예요. 우선 2~3년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용신 제 직업은 아나운서이지만, 저는 오늘 헤르만하우스 주민으로 자리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파주출판도시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예요. 파주에 집을 보러 간다는 선배를 따라 방문했다가, 외려 제가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웃음) 첫 방문이 그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낮은 건물들, 여린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풍경에 감동까지 받았죠. 몇 주 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7월의 어느 날 다시 방문했어요. 그런데 쏟아지는 비 사이로 헤르만하우스의 한 집에서 부모와 어린아이가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딱 그 장면 같은 삶을 꿈꾸며 파주출판도시에 오게 되었답니다.



백원근 | 책과사회연구소대표

백원근 1998년 11월, 파주출판도시(당시엔 파주출판단지였죠) 기공식이 열릴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되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국제출판포럼 기획위원과 파주에디터스쿨 기획위원을 맡으면서 문화사업을 함께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실행이사로 재단 운영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판 연구자’라는 자의식이 있는데요. 연구자로서 세계 유일의 출판 클러스터이자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상징성이 큰 파주출판도시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유경숙 저는 공연과 행사 분야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파주출판도시를 출판사 미팅을 위해 방문했었는데요. 이후 파주시와 행정적인 업무를 하며 파주출판도시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지금은 준비 중인 <파주페어_북앤컬처>의 자문위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생각한다면, 파주출판도시가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요. 오늘 대담을 통해 도시 활성화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동석 말씀해주신 여러 내용을 들어보니 다양한 시기에 맺은 인연이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저도 2006년부터 파주출판도시를 드나들면서 재단의 여러 사업에 참여해왔는데요. 파주출판도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짧지 않은 시간 운영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1만 5,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도시 안에서 일하며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그간 파주출판도시를 지켜봐왔을 때,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점이 아쉬우셨는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 20년, 파주출판도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성과와 한계

송승환 헤르만하우스에 살 때, 출판도시 곳곳을 산책하면서 이 길에도 유럽처럼 카페가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을 때 발전합니다. 아무래도 출판도시의 산업단지이다 보니, 정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멋진 건물들 안에 사람들이 단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건축물들과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행사가 좀 더 다양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도시가 조금 더 활기차고 살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김용신 맞아요. 파주출판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지요. 파주출판도시가 처음부터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니까, 아침에는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들어오고, 일을 마친 후에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떠나는 곳이었죠. 사실 파주출판단지라 아니라 파주출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도시 안에서 무언가 발생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밤낮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파주출판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을 품고 도시 안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애써왔어요. 그럼에도 출판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은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지요. 여느 산업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건축물을 조화롭게 세우고자 한 약속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야 알았죠. 도시 주민으로서 파주출판도시가 지닌 역사와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파주출판도시를 만들어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석 48만 평 대지 위에 세워진 파주출판도시 자체가 거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기록 사이사이를 촘촘히 채워갈 다양한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를 재단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도시에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임직원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은 출판도시 설립 초기에는 산업단지인 탓에 카페를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나 도서 판매만 가능했죠. 차츰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재단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도시에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출판도시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경숙 분야를 막론하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내실 있는 도시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생산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지금이 여러 측면에서 힘든 시기인 것은 맞지만, 20년 동안 이 도시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탄탄하게 남아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파주출판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든 시작되면 사람들이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것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축하셔도 될 것 같아요.(웃음)

백원근 파주출판도시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책의 도시’라는 특성이 명확하죠. 그것과 어울려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할 때마다 도시 곳곳에서 ‘선비 정신’을 느끼는데요. 도시 계획 초기부터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환경을 되도록 변형하지 않는

(위) 김용신 | CBS 아나운서
(아래) 장동석 |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범위에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는 텔레비전 대신 책을 두었고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에 일종의 ‘책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한 많은 출판인들의 노력이 있었죠.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시 내에 있는 출판사 등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처음 출판도시가 만들어진 이유이자 목적 중 하나가 출판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을 비롯한 출판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설이 모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출판공동체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에서, 도시에 모인 출판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협력망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을 잘 조직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출판산업이 다소 침체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을 넘어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동석 도시 외부에서 멋진 카페 등 새로운 공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도시 안에 있는 자생적 공간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이 공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가 지자체는 아니지만,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파주출판도시가 지닌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죠.

파주출판도시가 지닌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



유경숙 | 세계축제연구소 소장

유경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출판도시에는 훌륭한 공간, 내실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판·인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특히 그간의 성과와 통계 등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2~3년간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중심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재단 행사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 홍보되고 있어요.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 안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성과를 이뤄냈는지, 산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가을, <파주페어_북앤컬처>가 시작되잖아요. 축제는 분명 출판도시를 알리기에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연중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를 여는 것과 동시에 상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젊은 외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계절성 콘텐츠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출판도시에 있을 법한 콘텐츠를 조금씩 가져오며 관계를 맺고, 여러 콘텐츠 또는 브랜드와 협업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파주출판도시와 축제가 함께 빛날 수 있을 겁니다.

송승환 파주출판도시는 20년간 ‘책의 도시를 만들자’라는 큰 뜻을 잘 펼쳐왔습니다. 책이 중심이 되는 브랜드를 단단히 지켜온 것이죠.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가을에 시작하는 <파주페어_북앤컬처>를 통해 파주출판도시가 지금껏 가꾸어온 ‘책과 출판’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첫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유경숙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 번에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축제를 통해 하나의 화두를 던져 보자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2~3년간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파장이 차츰 넓게 퍼져나가리라 기대합니다.

파주출판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백원근 파주출판도시가 대한민국, 아시아, 또는 세계 책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출판사들을 우선 결집할 협동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판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었다면 이제는 독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거점으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책 관련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연관 산업이 모이고 다시금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파주출판도시가 출판계 종사자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가야만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출판 생태계 종사자들이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파주출판도시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도시에서 일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문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내에서 자신을 계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대학원대학 같은 교육기관이나 각종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 안에서 충분히 일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용신 파주출판도시 안에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입주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입주기업들이 자기들만의 공간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가 파주출판도시 방문과 활성화로 이어질 테고요. 도시 전체로 본다면 무엇보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도시와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승환 김용신 아나운서 말씀에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출판사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니만큼 이전부터 여러 시도를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반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하

기 어려운 거죠. 도시 내부적으로 자극을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히 알던 공간에서 이전에 없던 이벤트나 활동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인식이 차츰 퍼져나갈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파주페어_북앤컬처>가 파주출판도시에 그 촉매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석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파주출판도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비전과 목표



고영은 |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고영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재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은, 파주출판도시가 책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책의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판사들의 콘텐츠를 건물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책의 도시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죠.

송승환 감독님과 ‘에든버러 프로젝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지금은 <파주페어_북앤컬처>로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의 조성이 그랬듯, 꿈만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송승환 <파주페어_북앤컬처>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축제의 본질인 ‘일탈’의 만족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다양한 문화예술을 서울 너머로, 파주출판도시로 확장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그 만족감을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 목표는 ‘책의 도

시’에서 ‘책’이라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음악, 미술, 연극 등 어떤 콘텐츠든 상관없습니다. 책에 기반한 콘텐츠라는 점이 중요하죠. 세 번째 목표는 파주출판도시에 ‘글로벌 마켓’을 만드는 겁니다. 책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K-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이는 동시에, 외국 콘텐츠 제작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페어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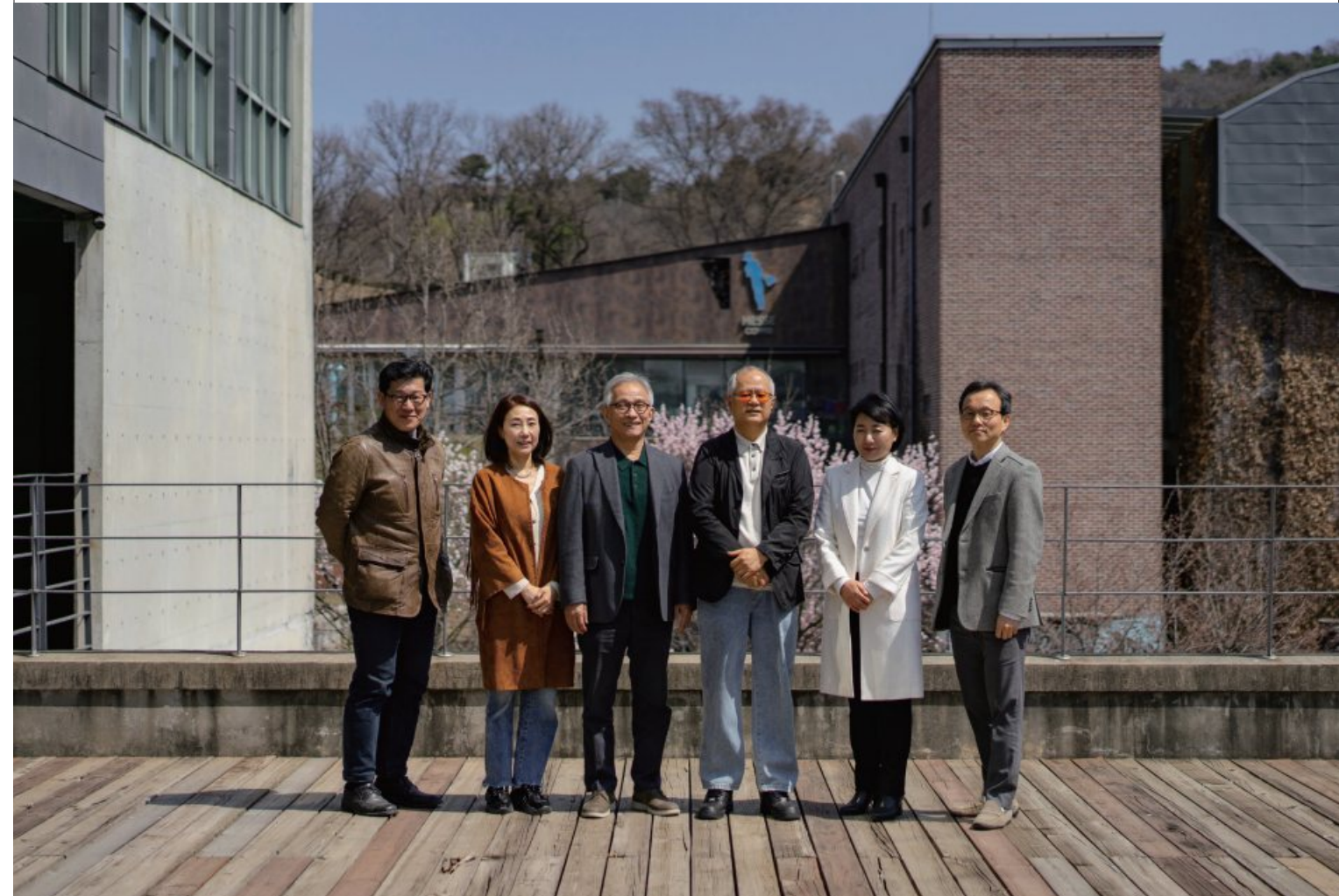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이 축제가 파주출판도시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입주기업들이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일본에는 동네마다 아주 오래된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축제인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모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파주출판도시도 도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번 축제를 즐기면서, ‘책의 도시’에서 ‘문화예술 복합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숙 지역 축제의 경우, 그 지역의 독특한 소재나 이야기를 충분히 활용했을 때 오래가고 또 효과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파주출판도시는 책이 중심이 된 '스토리 부자'라는 강점이 있죠. 도시 경관뿐 아니라 책 한 권 한 권에 담긴 이야기, 이를테면 그림책의 원화나 한 토막 이야기 도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구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찬찬히 살피고 기능적인 측면을 잘 전달한다면 함께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신 파주출판도시 주민으로서 저는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함께하는 주민이고 싶습니다. 초기 입주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산업단지이고 대부분이 일 하러 오는 공간이다 보니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바뀌 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 입주기업이 방문객과 주민에게 조금 더 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도시와 훨씬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원근 외부자의 시선과 글로벌한 감각으로 도시를 차근차근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연중 특정한 주제나 분야로 묶어 '파주 국제 테마 북 페어'를 수시로 개최하는 겁니다. 스포츠는 세계인들의 관심사이니 '파주 스포츠 북페어'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를 국제적인 저작권 장터로 만드는 일을 제안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나 런던 도서전에는 없는 '깊고 다양한' 북페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계로 나아가는 동시에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파주페어_북앤컬처>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장동석 오랜 시간 활발한 논의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취합하고 숙지해 파주출판 도시를 새롭게 세워가는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4월 1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대담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백원근, 김용신, 고영은, 송승환, 유경숙, 장동석(직함 생략).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요 연혁



2003

- 01.28.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재단법인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결의
- 05.0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단계 교육연구동 준공
- 12.2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을 담당할 재단법인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2004

- 01.05. 파주시에서 재단 출판부등록증, 고양세무서에서 재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 06.07.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과 독일 출판계 인사,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 등 40여 명이 출판도시 방문, 주요 시설 탐방
- 06.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단계 전시정보동 준공
- 08.30. 재단의 각종 사업이 공공성과 이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뜻있는 독지가나 기업, 단체에서 기부금을 지원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10.24. 원로출판인을 출판도시에 초청, 오찬을 진행하면서 출판도시의 비전을 설명하는 행사 개최
- 10.29.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이 파주출판도시 방문, 주요 시설 탐방
- 11.12. 세계 각국의 사상가·이론가·실천가들이 참여하여 21세기 생명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세계생명문화포럼-경기 2004>가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
- 12.28. 출판도시의 건축적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출판도시 건축심포지엄 개최. 같은 날, 출판도시 입주사 임직원 가족 송년음악회 <뜻깊은 2004, 희망찬 2005> 진행



2005

- 04.29. 배우 장두이의 일인극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공연
- 05.28. 출판도시 방문객을 위한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오페라 음악감상교실> 공연이 5월과 6월에 걸쳐 2회 진행
- 06.25. <DMZ 2005 국제현대미술전> 개막,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재해석하기 위한 국제 작가들의 초대전 형식 진행
- 09.02. <세계생명문화포럼-경기 2005> 행사 개최
- 09.23. 독일 정부가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출판도시를 초청, 도시의 건설 과정과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파주북스티건축전시> 진행
- 10.05. 파주출판도시 소식지 <아름다운 책의 도시> 창간
- 10.07. 일본의 스기우라 고헤이, 중국의 뤼징런, 대만의 황용송, 한국의 정병규 등 동아시아의 출판 관련 인사 초청, 출판문화의 교류 현황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및 <스기우라 고헤이 한국전> 개최



2007

- 05.03. 파주출판도시 1단계 완성 기념 세미나 <이 시대, 파주출판도시가 남긴 것> 개최. 교육연수 지원시설 '게스트하우스 지지향(紙之郷)'과 '갤러리 지지향'이 개관함으로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7년 만에 완공
- 05.04. 파주출판도시 20년 건설의 역사를 담은 도서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 출판도시 사진집 <출판도시 2007 겨울: 모더니즘의 섬에 바람이 불다> 발간
- 09.07. 갤러리 지지향에서 사진작가 주명덕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문화유산 기록, 인물과 풍경 사진 44점을 선별, 재구성하여 <주명덕展> 진행
- 11.01. <문학에서 피어난 영화展> 개최, 1950~80년대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포스터 35점(양해남 소장본)과 원작이 된 소설 초판본 35종(오영식 소장본)을 2008년 1월 31일까지 전시
- 11.02-11.04. 책잔치를 개최하여 파주·교하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출판사 문화산책 프로그램, 책거리, 무박이일 독서캠프, 백혈병·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는 '책나라 여행', 출판도시 건축기행, 작가와의 만남, 직지특별전, 고인쇄 등 출판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체험의 시간 마련
- 11.15. 우리나라 근대 출판의 여명기를 연 활판인쇄 자료를 모아 전시하고, 그 당시 활판인쇄기기와 맥을 같이하는 기계들을 수집, 복원해 활판인쇄 공정을 보여주는 출판도시활판공방 개관



2006

- 01.12.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에서 '파주북스티건축전시'를 초청, 쿤스트하우스 전시장에서 보름간 기획전 진행. 또한 출판도시 벤치마킹 차원에서 필리핀·대만·튀르키예·중국·일본 등 외국 출판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의 방문 증가. 아울러 도시 활성화를 위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파주북스티책잔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05.0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2006>은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초청국가를 프랑스로 선정, 프랑스 어린이책의 다채로운 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운영
- 08.23.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 09.30. 권석만 조각전 <고요한 氣의 울림> 진행
- 10.19. <파주북스티 페스티벌 2006> 특별전 '종이에서 책으로' 전시. 또한 '혁신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주제로 총 9개국 500여 명이 참여한 <파주북스티 국제출판포럼 2006> 개최
- 12.12. 벨기에의 저명한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스를 초청해 연주회와 만찬이 어우러진 <출판도시 가족 송년음악회> 개최



2008

- 05.14. 국제출판협회(IPA) 제28차 서울총회 파주출판도시 방문의 날 행사가 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려 전 세계 출판인 200여 명이 출판도시 방문
- 05.31.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등 8개 나라 주한 외교사절단 20여 명이 출판도시 방문
- 07.12. 외교통상부 박준우 기획조정실장, 배재현 문화외교국장이 출판도시 주요 시설을 방문해 주한 해외문화원을 주축으로 하는 각국 미디어홍보관을 출판도시에 설치 추진하기로 협의
- 07.16. 경기도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해 기획한 <2008 경기도 도서관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기증 업무협약 체결
- 07.1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도시 2단계 사업부지를 둘러본 다음, 이곳에 설립 계획 중인 두 개의 도서관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출판도시 발전 방안 논의
- 08.08-08.17. <SA 2008 국제 여름 워크숍>이 영국 AA 스쿨과 공동주최로 출판도시에서 개최, 국내외 건축가·교수·학생 등 백여 명 참가
- 09.14-11.23. 파주출판도시가 <2008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크리티컬 토폭: 컬처스케이프, 여기 파주출판도시'라는 주제로 전시



2009

- 04.21. 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플라워 디자이너들의 모임인 AFDU(Asian Floral Designers Union) 소속 디자이너와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다목적홀에서 전시 개최, 4월 2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파주출판도시 입주사 15곳에서 진행
- 09.2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주최한 <가을독서문화축제>에서 출판도시 홍보 부스 운영
- 10.19.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기증한 해외 번역 도서 279권을 갤러리 지지향 아트숍에 배가하여 출판도시와 갤러리 지지향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우리 출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구성
- 10.20-11.14. 갤러리 지지향에서 입주기업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이 장소 협찬한 <예술, 출판도시와 마주치다展> 개최
- 10.22-10.26. 경기도·파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과 (사)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DMZ 다큐멘터리영화제>가 DMZ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진행

2012

- 03.16.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파주출판도시 이름으로 아랍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셰이크 자이예드 도서상(Sheikh Zayed Book Award)'의 '문화기술 최고상(Best Technology in the Field of Culture)' 수상. 이 상금으로 2013년 4월 출판도시 방문객과 입주사 임직원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셰이크 자이예드 숲 조성



2010

- 03.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응칠교를 아시나요> 답교 행사 개최
- 07.27.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일행이 벤치마킹차 파주출판도시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2013

- 02.22. 제4대 이사장으로 김언호 한길사대표 취임
- 04.12. 파주시 '행복나무 심기 운동'에 1,000만 원 기부, 기념 식수 행사 진행
- 04.30. 셰이크 자이예드 숲 조성 완공
- 09.04. 파주경찰서와 출판도시 치안 강화 및 문화교류 확장 업무협약 체결
- 09.30. 박근혜 대통령 내방, 간담회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관람

2014

- 06.19.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에 종이책을 보존·보호·독서하는 책의 전당 '지혜의숲' 개관
- 11.05. 지혜의숲 '2014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12.23. '어린이책예술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 수상



2015

- 09.10. '지혜의숲 친구들 문화관리비' 모금함 설치
- 10.01.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출판도시 문화공간 순환버스를 '지혜의숲-책방거리-미메시스-서축공업기념관 /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명필름' 코스로 운행
- 10.03. 지혜의숲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독자의 밤-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행사 진행
- 11.13. 지혜의숲 관련 모아건설이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공모에 당선



2011

- 10.06. 김윤옥 영부인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도시 주요 시설 방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사장 및 관련 단체장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 진행
- 12.28. 출판도시 활성화와 입주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산병원과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 12.29. 출판도시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관련 단체장, 출판도시 입주사 대표, 세 개 단체 임직원에게 단체 임직원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출판도시문화재단상' 시상식 진행. 김양평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출판도시 공로패'를, 배효선 법문사 대표에게 '올해의 출판도시인상'을, 출판도시문화재단 어수형 주임에게 '자랑스러운 출판도시가족상'을 수여



2016

- 02.23. 제5대 이사장으로 김언호 한길사 대표 연임
- 03.08. 한국문학번역원 초청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관계자 파주출판도시 방문
- 06.03. 스톡홀름 국제도서관장 파주출판도시 방문
- 07.07. 출판도시 활성화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한국작가회의와 업무협약 체결
- 09.01. <2016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참여, 파주출판도시 홍보 부스 운영
- 12.28. 출판도시문화재단과 지혜의숲 홈페이지 개설
- 12.29. 세종모아와 '세종지혜의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계약 체결



2017

- 02.22. 영국출판인협회 회장단 파주출판도시·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03.07. 한-EU FTA 협정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EU 대표단 문화협력위원회 방문. 파주출판도시 시설과 주요 사업 소개, 주요 시설 투어와 해설 안내 진행
- 07.08. '파주출판도시 문학테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웅칠교) 준공
- 07.29. '김소월 시의 다리' 준공 기념 음악회 개최



2018

- 02.23. 국군 장병 독서 활성화와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육군 9사단과 업무협약 체결
- 03.31.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출판도시 인문학당 신금호 북콘서트> 개최
- 04.30.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지혜의숲 서점 직영 종료, 북소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5월 1일부터 서점 운영 시작
- 06.12. UNESCO팀 파주출판도시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2019

- 03.15. 제6대 이사장으로 고영은 뜨인돌 대표 취임
- 04.29. 제1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서포터즈 모집, 발대식 진행
- 07.15. 출판도시문화재단 15년사 백서 출간 기념회 개최
- 12.19. '세종지혜의숲' 개관



2020

- 05.30.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라운지 '문발살롱' 오픈
- 08.03. 독서문화 기반 조성고 독서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공동 기획·개발을 목적으로 광성드림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08.14. 파주시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명칭을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으로 변경
- 08.31.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혜의숲 운영시간 단축 변경

2021

- 02.04. 출판도시 갈대셋강 시민생태모니터링 중간보고회
- 06.09. 경기도 거주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08.04. 인문학 진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공동 기획·개발, 학술 연구 성과물 공유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플러스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 09.02. 경기도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유니크베뉴 발굴 및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2021 경기유니크베뉴'로 선정
- 09.10. 책과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사업 개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과 업무협약 체결
- 12.21. 국내외 국제교류활동 지원과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블루리본캠페인과 업무협약 체결



2022

- 02.10. 독서·출판 문화진흥과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협약 체결
- 02.24. 제7대 이사장으로 고영은 뜨인돌 대표 연임
- 04.01-12.07.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력하여 <북시티 리더스 클럽> 총 7회 진행
 - 제1회(04.01.) 송승환 | PMC프로덕션 예술감독
 - 제2회(06.20.) 정태춘 | 가수, 문화운동가
 - 제3회(08.31.) 장강명 | 소설가, 전 언론인
 - 제4회(09.16.) 김상욱 | 물리학 교수
 - 제5회(11.18.) 엄홍길 | 산악인
 - 제6회(12.02.) 여자경 | 지휘자
 - 제7회(12.16.) 최재천 | 생태학자



- 05.05-05.08. 제1회 출판도시 생태사진전 <출판도시 갈대갯강의 생명들> 진행
- 06.03.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콘텐츠 개발을 위해 파주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 06.22. 출판도시 갈대갯강 시민생태모니터링 제2기 최종보고회
- 08.02. 파주출판도시를 콘텐츠 융복합도시, 복합문화예술도시, 저작권 마켓으로 만들기 위해 영국 에든버러 현장 답사
- 09.05.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진행하는 '2022 해외 주요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출판인협회 회장이 파주출판도시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10.27.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윤후덕 국회의원 <출판계 및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진행
- 10.31. 재단이 '세종지혜의숲' 운영을 종료하고 세종모아에 이관
- 11.07-12.02. 제2회 출판도시 생태사진전 <곤충의 도시> 진행
- 11.24.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경기 유니크베뉴 마이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연수 프로그램'이 최우수상 수상
- 12.27.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이 <파주 북앤아트 페스티벌>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 진행

2023

- 01.18. <파주 북앤아트 페스티벌> 사업 구체화를 위한 2차 워크숍으로 국내외 주요 축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련 사례 발표 세미나 진행
- 02.03. 건강한 생태문화가 살아 있는 출판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코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 03.26. 베트남 도서관 관리자 역량 강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노이 시립도서관 관리자 일행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05.26.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시행하는 '언론 분야 유력 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8개국의 언론 분야 유력 인사들이 파주출판도시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05.31. 어린이 문화예술의 미래 역량 강화, 어린이 공연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공연 연계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을 위해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와 교류협약 체결
- 06.17. <2023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 샤르자의 출판자유구역(SPCFZ, Sharjah Publishing City Free Zone) 관계자 일행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07.06.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MICE 국제회의 명소를 지정하는 '코리아 유니크메뉴'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선정, '코리아 유니크메뉴 50선 협약식'에 참석
- 07.11.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운영재단과 타이베이 주요 출판사 대표들이 파주출판도시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문
- 07.19-12.14.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력하여 <북시티 리더스 클럽> 총 4회 진행
제1회(07.19.) 김대식 | 뇌과학자
제2회(09.13.) 임홍택 | 작가
제3회(10.17.) 이희문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컴퍼니 대표·예술감독
제4회(12.14.) 김주원 | 발레리나
- 08.25. 파주출판도시와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제)파주 국제 북앤아트 페스티벌(PIBAF)' 사업 계획을 소개하는 간담회 개최
- 09.01-09.03.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에 참여, 파주출판도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인문학당' 연계 프로그램 진행
- 10.10-10.31. 제3회 출판도시 생태사진전 <멸종위기종, 책마을에 깃들다> 진행
- 10.20.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의 매력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 사업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선정



- 03.27. 한글문화·출판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 04.05. 북소리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국립암센터 내 지혜의숲 개관
- 04.23.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KCC)>의 성공적인 개최와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한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05.28. <파주페어_북앤컬처> 사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개최
- 06.03. 지혜의숲 이용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돕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암센터·북소리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 06.15. 지혜의숲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파주 지혜의숲 10살이 되었어요> 개최

2024

- 01.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협업하여 '파주출판도시 역사자료관' 완공, 개관식 진행
- 02.05. 출판도시 갈대셋강 시민생태모니터링 제3기 최종보고회
- 02.25. <(가제)파주 국제 북앤아트 페스티벌> 사업의 명칭을 <파주페어_북앤컬처(Paju Fair_Book & Culture)>로 결정, 운영위원회 발족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요 행사 운영 경과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출판인들이 직접 준비하는 살아 있는 ‘책 놀이터’다. 지난 2003년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파주출판도시는 ‘어린이를 닮은 도시’를 표방하며 어린이의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어린이 책을 조명해보는 테마 전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도록 발간과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우리 어린이책의 세계화에도 일조했다. 또한 어린이책잔치를 통해 파주출판도시는 작가와의 만남, 책 만들기 체험, 동화 낭독극, 미니 콘서트 등 책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파하고 있다.



* 일러두기: 강연·프로그램 출연진과 연사의 소속처·직함은 당시를 기준으로 기재했습니다.



2003 파주어린이책한마당

| | |
|-------|--|
| 주제 | 자연과 놀아요 |
| 기간 | 2003년 10월 10일(금) ~ 10월 19일(일) |
| 예산 | 총 1,342,000,000원 (지방비 400,000,000원 / 마사회 협찬 50,000,000원 / 자부담 862,000,000원) |
| 협찬·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KBS, 한겨레신문사, 한국마사회 |
| 참가인원 | 약 6만 명 |



2004 파주어린이책한마당

| | |
|------|---|
| 주제 |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 |
| 기간 | 2004년 10월 15일(금) ~ 10월 24일(일) |
| 예산 | 총 800,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지방비 40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6만 명 |



2005 파주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 |
| 기간 | 2005년 9월 30일(금) ~ 10월 9일(일) |
| 예산 | 총 400,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 참가인원 | 약 5만 7천 명 |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 |
| 기간 | 2006년 5월 5일(금) ~ 5월 14일(일) |
| 예산 | 총 600,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지방비 20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후원 | 문화관광부,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IBBY 한국위원회 |
| 협찬 | 주한프랑스대사관, IBBY France, 프랑스 국립 어린이책 자료 센터, 두성종이, 닥터 프린트 |
| 참가인원 | 약 6만 명 |



200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온 몸으로 만나는 어린이 책 세상 |
| 기간 | 2007년 5월 4일(금) ~ 5월 13일(일) |
| 예산 | 총 537,000,000원 (국고 180,000,000원 / 지방비 123,000,000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외 34,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후원 | 문화관광부,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 협찬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재)경기문화재단, 두성종이, 대만 쉐웨인스티튜트, 일본 윈스트록, 영월책박물관, 춘천교육대학교 도서관, 프랑스 곰세마리협회 |
| 참가인원 | 약 10만 명 |



2008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문자와 이미지로 배우는 어린이 책세상 |
| 기간 | 2008년 5월 3일(토) ~ 5월 7일(수) |
| 예산 | 총 460,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10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4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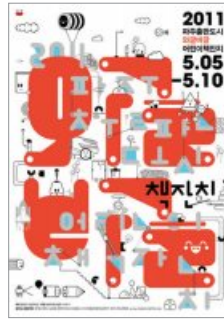
2009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우리가족, 우리집, 우리도시 |
| 기간 | 2009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 예산 | 총 380,000,000원 (국고 180,000,000원 / 지방비 100,000,000원 / 자부담 10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10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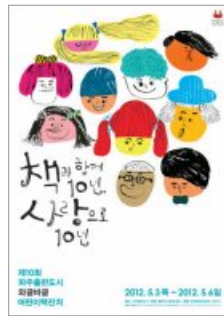
제8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캐릭터, 책밖 세상으로 |
| 기간 | 2010년 5월 5일(수) ~ 5월 9일(일) |
| 예산 | 총 380,000,000원 (국고 180,000,000원 / 지방비 100,000,000원 / 자부담 10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7만 명 |



2011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와글바글 어린이책잔치 |
| 기간 | 2011년 5월 5일(목) ~ 5월 10일(화) |
| 예산 | 총 340,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100,000,000원 / 자부담 8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8만 명 |



제10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책과 함께 10년, 사랑으로 10년 |
| 기간 | 2012년 5월 3일(목) ~ 5월 6일(일) |
| 예산 | 총 32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85,000,000원 / 자부담 8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
| 참가인원 | 약 10만 명 |



제11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걸어요, 놀아요, 읽어요 |
| 기간 | 2013년 5월 1일(수) ~ 5월 5일(일) |
| 예산 | 총 320,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80,000,000원 / 자부담 8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15만 명 |



2014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어린이와 함께 평화를 |
| 기간 | 2014년 6월 19일(수) ~ 6월 22일(일) |
| 예산 | 총 320,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80,000,000원 / 자부담 8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13만 명 |



201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책 속으로 풍덩, 고전 속으로 풍덩! |
| 기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5일(화) |
| 예산 | 총 31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75,000,000원 / 자부담 8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15만 명 |



201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책 밖으로 나온 이야기 |
| 기간 | 2016년 5월 5일(목) ~ 5월 8일(일) |
| 예산 | 총 29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75,000,000원 / 자부담 6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11만 명 |



201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다 같이 놀자! |
| 기간 | 2017년 5월 5일(금) ~ 5월 7일(일) |
| 예산 | 총 29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75,000,000원 / 자부담 6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9만 명 |



2018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놀이 놀이 책놀이 |
| 기간 | 2018년 5월 4일(금) ~ 5월 6일(일) |
| 예산 | 총 29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75,000,000원 / 자부담 6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참가인원 | 약 5만 명 |

2019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책 속으로 풍덩 |
| 기간 | 2019년 5월 3일(금) ~ 5월 5일(일) |
| 예산 | 총 295,000,000원 (국고 160,000,000원 / 지방비 75,000,000원 / 자부담 60,000,000원) |
| 주최 |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주요 내용 | 공식행사(개막식, 퍼레이드), 테마 전시,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작은영화제, 오픈하우스, 북마켓, 베품시장 등 약 100여개 프로그램 |
| 참가 | 출판도시 입주사, 외부 출판사, 관련 단체 포함 200여 개 |

참가인원

| 일자 | 5월 3일(금) | 5월 4일(토) | 5월 5일(일) | 총계 |
|----------|----------|----------|----------|--------|
| 날씨 | 맑음 | 맑음 | 맑음 | - |
| 관람객 수(명) | 8,000 | 22,000 | 30,000 | 60,000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개막식 | - 일시 및 장소 : 5월 3일(금) 오후 2시, 시조사 잔디공원 - 구성 : 어린이기획위원 개회사, 축하공연, 책케이크 커팅식, 취타대 퍼레이드 |
| 테마 전시 | - 한중 양국의 우수 일러스트 작가들의 교류를 주제로 정보도서관과 북도갤러리에 'Beauty of life 파주·선진 국제 일러스트' 전시 |
| 입주사 오픈하우스 | - 출판도시 입주사가 오픈하우스(15개사 참여)와 어린이인문학당(11개사 참여)을 기획하여 공연, 전시,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대상 인문학강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QR코드 스탬프헌팅으로 참여를 유도 |
| 콘텐츠 연계 | -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With Children' 프로젝트, 튀르키예 전통 예술 'Ebru Art' 시연, 이야기꾼의 책 공연, 작가와의 만남(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그림책 1인 극장, 그림책이 흐르는 봄, 뮤직 버스킹 등 |
|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 - 엄마&아빠 골든벨, 민속놀이 체험, 태극기 만들기, 드론 체험, 선비 코스프레 체험, 코인 미션(무귀도열차 탑승 및 경품 증정), 동화나라 코스튬, 나도 패션왕 콘테스트 등 |
| 도서 전시 및 판매 | - 체험존과 이어진 야외 공간에서 북마켓 진행(36개사 참여, 53개 부스 운영), 파주맘 네이버카페와 플리마켓 진행 등 |
| 기타 | - 어린이 영화제, 가족타자기대회, 푸드트럭, 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 등 |

제18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책이랑 놀자! |
| 기간 | 2020년 10월 ~ 11월 |
| 예산 | 총 200,000,000원 (국고 150,000,000원 / 자부담 5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주요 내용 | 어린이 기획위원(북히어로즈), 북히어로즈 스튜디오, 어린이 인문학당(작가와의 만남), 특별초청강연, 그림책 1인 극장, 에브리 동화, 손인형극 공연, 특별전시, 온라인 북퀴즈 골든벨, 그림책 삽화 컬러링 등 온라인 이벤트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콘텐츠 촬영 및 제작) |
| 채널 | 어린이책잔치 누리집(www.pqjubfc.org),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
| 참가대상 | 어린이 및 시민, 출판사, 작가, 도서관 및 교육단체 등 |
| 비고 | 비대면 진행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북히어로즈 (어린이 기획위원) | - 전국에서 선발된 19명의 어린이 기획위원으로 구성 - 제18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와 파주출판도시를 알리는 홍보 활동 진행 - 미션과 연계된 특별초청강연 진행, 미션 수행을 통해 제작한 북튜버 영상 16개를 재단 유튜브에 업로드 |
| 북히어로즈 스튜디오 | - 유튜브와 SNS 영상 촬영이 가능한 '부스 스튜디오'와 공연 및 라이브 중계를 진행하는 '무대 스튜디오'로 구성하고, 무대를 '재활용 아티스트 박찬호 작가'의 '라이트애니멀즈' 작품과 나무 조형물, 나무 파랑새 등으로 구성 |
| 그림책 1인 극장 | -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그림책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 광민수 작가 《아주아주 센 모기약이 발명된다면?》, 김준영 작가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닳았어요》, 미우 작가 《공포의 새우눈》, 난주 작가 《냥이의 이상한 하루》 참여. |
| 어린이 인문학당 작가와의 만남 | - 그림책, 동화 등 어린이책 작가로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와의 만남 - 작가를 '북히어로즈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미니강연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황선미 작가 《마당을 나온 암탉》, 한태희 작가 《봄을 찾은 할아버지》, 고정욱 작가 《가방 들어주는 아이》, 권오준 작가 《날아라 뽀빠야!》 참여 |
| 신인작가 18인전 | - 신인 그림책 작가 18인을 초대하여 작가의 작품세계,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그림책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인터뷰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축제 홈페이지 업로드. 우주선, 여름꽃, 보람, 변예술, 홍지니 등 신인작가 18인 참여 |
| 에브리 동화 | - 에브리 아티스트 카디르 보족의 그림 동화 《내 이름은 블루》를 최초 공개. 애니메이션처럼 제작된 에브리 동화를 보고 작가와 라이브로 만나보는 시간 |
| 특별초청강연 | - 북히어로즈 어린이 미션과 연계하여 Zoom 온라인 회의를 통한 비대면 강연 진행. 유튜브 공백(북튜버 도전하기), 최향량 작가(캐릭터 구상과 그리기) 진행 |
| 손인형극 | - 북히어로즈 스튜디오에 특설 무대를 만들어 연기자들이 손에 인형을 끼고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형극 |
| 이벤트 | - 북퀴즈 골든벨, 북히어로즈 캐릭터 리메이크, 그림책 삽화 컬러링, SNS 초성퀴즈 등 |



제19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우주를 삼킨 호기심 놀이터 |
| 기간 | 2021년 5월 5일(수) ~ 9일(일) |
| 예산 | 총 294,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지방비 64,000,000원 / 자부담 3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주요 내용 | 어린이 기획위원(북히어로즈), 어린이 인문학당(작가와와의 만남, 마술공연, 복합문화공연), 책잔치 스테이지(그림책 1인극, 과학마임음악극, 과학실험 공연, 마술 공연), 온택트 키트 체험, 북캠핑(텐콕도서관, 만들기 체험), 별빛도서관, 전시·체험 프로그램(블랙라이트 체험, 공용 인터랙티브 체험), 스탬프 랠리(포토존 6곳)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 채널 |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
| 참가대상 | 어린이 및 시민, 출판사, 작가 등 |

참가인원(오프라인 기준)

| 일자 | 5월 5일(수) | 5월 6일(목) | 5월 7일(금) | 5월 8일(토) | 5월 9일(일) | 합계 |
|----------|----------|----------|-----------|----------|----------|--------|
| 날씨 | 맑음 | 맑음, 강풍 | 비, 강풍, 황사 | 강풍, 황사 | 맑음 | - |
| 관람객 수(명) | 7,572 | 1,276 | 1,172 | 1,980 | 3,044 | 15,044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북히어로즈 (어린이기획위원) | - 일시 및 장소: 4월 3일(토) ~ 5월 8일(토) 매주 토요일 / ZOOM 회의 - 대상: 전국의 초등학생 21명 - 내용: 매주 토요일 온라인 기획회의를 통해 어린이가 직접 축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과학책 큐레이션, 호기심 골든벨 등 축제 주요 프로그램 기획 및 개막식 개최 선언, 개회사 진행. 《블루마블》이나영 작가와 인터뷰 영상촬영 진행) |
| 개막식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14:00 ~ 15:00 / 다목적홀, 유튜브 중계 - 내용: 오프닝 공연(라이트 드로잉), 개회 선언(어린이기획위원회), 개회사(어린이기획위원회), 환영사(재단 이사장), 축사(파주시장), 주제영상, 축하공연(아카펠라) 등 |
| 책잔치 스테이지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5월 8일(토) / 다목적홀, 유튜브 중계 - 내용: 그림책 1인극, 과학마임음악극, 과학실험 공연, 마술 공연 등 '과학' 주제에 맞춘 다양한 공연 콘텐츠 진행 |
| 북캠핑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 5월 9일(일) / 이벤트광장 - 내용: 텐콕도서관(내가 만드는 놀이터-우주모빌 만들기, 로켓 연 만들기, 공룡화석 발굴하기, 울동과 함께하는 재즈동요, 동화뮤지컬, 호기심 골든벨, 레크리에이션), 별빛도서관(밤시간 별자리 레이저쇼와 천문학 강연) |
| 온택트 키트 체험 | - 일시 및 장소: 5월 8일(토) 13:00 ~ 14:00 / 다목적홀, 유튜브 중계 - 내용: 커피백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공룡 발굴 키트를 활용하여 공룡박사 박진영 작가의 공룡 이야기와 함께 즐기는 온택트 프로그램 운영 |

| | |
|-------------------|--|
| 어린이 인문학당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5월 8일(토) / 문발살롱 및 출판사, 유튜브 중계 - 내용: 출판사에서 직접 준비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김영사-처음 과학동화 '레오나르도 다 빈치', 책에서 배우는 창의력 마술, 생생 남극 통신, 신기한 과학나라 신나는 동요나라 / 도서출판키다리-왜 몰랐을까? 알아두면 득이 되는 과학자의 일 / 창비-나무가 자라는 빌딩) |
| 호기심 포토존 스탬프 랠리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 5월 9일(일) 12:00 ~ 18:0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곳곳 - 내용: 스탬프 랠리 본부에서 종이 수령 후 6개 포토존을 방문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스탬프를 획득해 기념품을 받는 이벤트 운영 |
| 내가 그리는 놀이터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수) ~ 5월 9일(일) 12:00 ~ 18:00 / 대회의실 - 내용: 블랙라이트 체험 전시와 공용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운영(매시간 40분 운영, 20분 방역[입장 시 번호표 배부]) |
| 내가 만든 캐릭터 뽑내기 | - 일시 및 장소: 4월 19일(월) ~ 5월 31일(일) / 이벤트페이지 및 오프라인 - 내용: 웹사이트 및 스티커북을 활용하여 만드는 캐릭터(5월 20일 기준 2,571회 참여[인스타그램 이벤트 116회 참여]) |

제20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슬기로운 지구생활 -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 테마 | 기후위기와 환경 |
| 기간 | 2022년 5월 5일(목) ~ 5월 8일(일)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
| 예산 | 총 294,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지방비 64,000,000원 / 자부담 3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 주요 내용 | 북마켓 및 테마 전시, 개막식, 무대 프로그램(책잔치 스테이지, 어린이 인문학당 등), 지구생활 캠페인존, 아름다운헌책마당, 스탬프 랠리, 경기동네책방, 파주 BOOK 아티스트 페어, 동시화전, 오픈하우스 등 |
| 대상 | 어린이 및 시민, 출판사 관계자, 작가 등 |
| 협력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어린이날100주년기념사업단 |

참가인원

| 일자 | 5월 5일(목) | 5월 6일(금) | 5월 7일(토) | 5월 8일(일) | 합계 |
|----------|----------|----------|----------|----------|--------|
| 관람객 수(명) | 15,000 | 8,000 | 6,000 | 5,000 | 34,000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개막식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14:00 ~ 15:00 / 지혜의숲2 - 내용: 개회 선언, 내빈 소개, 환영사(고영은 이사장), 축사(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 세리머니, 축하공연(친환경예코밴드 요술당나귀) 등 |

| | |
|----------------|---|
| 책잔치 스테이지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 지혜의숲2, 문발살롱, 서호정사 - 내용: 책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 1인극, 인형극 등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진행 - 비고: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춘천인형극제 등 협력 공연 진행 |
| 어린이 인문학당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 지혜의숲2, 문발살롱 - 내용: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등 어린이 대상 강연 프로그램 진행 - 참가 출판사: 노란상상, 북스토리, 아스터로이드북, 책빛, 북극곰 등 |
| 어린이 시네마살롱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일 3회(11시, 14시, 17시) / 문발살롱 - 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양질의 작품 상영, 문발살롱에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시간 맞춰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 - 협업: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상영작: 절약의 발명(스위스), 플랫폼(몰도바), 보금자리(프랑스), 녹색의 방주(대만), 축제 가마의 여행(대만) |
| 북마켓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다목적홀 - 내용: 출판 관련 단체와 개인이 도서를 홍보하고 독자와 교류하는 북마켓 운영 - 형식: 오프라인 부스 프로그램(도서 및 굿즈 판매, 홍보, 전시, 체험, 상담 등) - 모집: 출판도시 내외의 개인 및 단체(출판사, 서점, 예술가, 작가, 기타 단체 등) 대상 2022년 3월 10일(목) ~ 3월 25일(금) 2주간 모집, 35개 단체 신청 - 참가 단체: 32개 출판사 및 단체 |
| 경기동네 책방마켓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스마트스크린 앞 - 내용: 경기도 동네책방, 작가의 도서를 홍보하고 독자와 교류하는 북마켓 운영 - 협업: 경기콘텐츠진흥원 - 참가 단체: 경기도 내 19개 동네책방 |
| 파주 BOOK 아티스트페어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정보도서관 - 내용: 그림책 작가 및 북디자이너, 캘리그라피 작가 등이 참여하는 일러스트마켓 - 참가: 일러스트 및 그림책 작가 등 10인 |
| 아름다운 헌책마당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아시아광장 - 내용: 환경을 지키는 도서 리사이클링, 중고책 플리마켓과 쉼터 공간 운영 - 협업: 아름다운가게 보물섬 |
| 지구생활 캠페인존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이벤트광장 - 내용: 관내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험존 부스 진행, 주제 메시지 전달 - 참가 단체: 두레생협,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경찰서 |
| 테마전시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다목적홀 - 내용: 환경부 선정 어린이 우수환경도서 30선 및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전 진행 |
| 한국동시문학회 동시화전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문자의 거리 - 내용: 한국동시문학회에서 활동하는 시인 150여 명의 동시화 전시 |
| 오픈하우스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 파주출판도시 곳곳 - 내용: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과 파주시 동네서점 공간을 활용한 강연 및 작가 워크숍, 공연, 체험 등 진행 - 참가 단체: 김영사, 빛들방, 소동출판사, 새움아트, 짬오책방, 씨케이프 |
| 스탬프 랠리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역 - 내용: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포토존 4곳을 설치하고 4곳을 모두 방문하여 스탬프로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기념품: 신문지(또는 재생용지)로 만든 연필세트 |

| | |
|-----------|--|
| 어린이 타자기대회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13:00 / 활판인쇄박물관 앞 선큰가든 - 내용: 기후위기·환경과 관련된 책의 원고를 활용하여 타자기를 직접 쳐볼 기회를 마련하고 상품을 제공해 흥미 유발 - 참석 인원: 사전 신청자 50명 - 주관: 활판인쇄박물관 |
| 책잔치 쉼터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목) ~ 5월 8일(일), 10:00 ~ 18:00 / 이벤트광장 - 내용: 내방객들이 음악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제공 |

제21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 | |
|-------|---|
| 주제 | 달라서 참 좋아 |
| 테마 | 다양성과 다문화 |
| 기간 | 2023년 5월 5일(금) ~ 5월 7일(일)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
| 예산 | 총 294,000,000원 (국고 200,000,000원 / 지방비 64,000,000원 / 자부담 30,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주요 내용 | 개막식, 무대 프로그램(책잔치 스테이지, 어린이 인문학당 등), 마켓 프로그램(북마켓, 다가치마켓, 파주맘나눔장터 등), 전시&체험 프로그램(테마 전시, 세계문화체험전, 마법천자문 테마존, 더불어체험존, 다양숲도서관 등), 오픈하우스, 기타 프로그램(스탬프 랠리, 어린이타자기대회, 푸드트럭 등) |
| 대상 | 어린이 및 시민, 출판사 관계자, 작가 등 |

참가인원

| 일자 | 5월 5일(목) | 5월 6일(금) | 5월 7일(토) | 합계 |
|----------|----------|----------|----------|--------|
| 관람객 수(명) | 18,000 | 12,000 | 10,000 | 40,000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개막식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14:00 ~ 15:00 / 지혜의숲2 - 내용: 개회 선언, 내빈 소개, 환영사(고영은 이사장), 축사(김경일 파주시장,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세리머니, 축하공연(국악뮤지컬) 등 |
| 책잔치 스테이지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 지혜의숲2, 문발살롱 - 내용: 책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 1인극, 인형극 등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진행 - 비고: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춘천인형극제 등 협력 공연 진행 |
| 어린이 인문학당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 지혜의숲2, 문발살롱 - 내용: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등 어린이 대상 강연 프로그램 진행 - 참가 출판사: 아울북, 노란돼지, 봄별, 계수나무, 노란상상, 사계절, 북극곰 등 |
| 야외무대 |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 다목적홀, 이벤트광장 - 내용: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요들밴드, 재즈밴드, 오카리나밴드 등의 공연 무대 |

| | |
|-----------|---|
| 북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다목적홀 - 내용: 출판 관련 단체와 개인이 도서를 홍보하고 독자와 교류하는 북마켓 운영 - 형식: 오프라인 부스 프로그램(도서 및 굿즈 판매, 홍보, 전시, 체험, 상담 등) - 모집: 출판도시 내외의 개인 및 단체(출판사, 서점, 예술가, 작가, 기타 단체 등) 대상 2023년 3월 6일(월) ~ 3월 23일(목) 약 3주간 모집, 60여개 단체 신청 - 참가단체: 48개 어린이책 출판사 및 단체 |
| 다가치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아시아광장 ※우천 시 야외계단, 지혜의숲에서 진행 - 내용: 소상공인이 직접 만들거나 기획한 아이템들로 구성된 플라마켓 진행 - 참가단체: 41개 지역 소상공인 |
| 파주맘 나눔장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일), 10:00 ~ 18:00 / 야외계단 ※우천으로 5월 7일 하루만 개최 - 내용: 파주맘카페와 협업을 통한 어린이가족 나눔장터 운영 |
| 더불어체험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이벤트광장 ※우천 시 지지향 회의실에서 진행 - 내용: 관내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험존 부스 진행, 주제 메시지 전달 - 참가단체: 가람도서관, 교하도서관,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파주중앙도서관,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경찰서,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등 |
| 세계문화 체험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1일(월) ~ 5월 8일(월), 10:00 ~ 18:00 / 대회의실 - 내용: 책을 통해 떠나는 세계여행을 모티브로 기획된 체험전 - 참가단체: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칠레대사관, 주한파라과이대사관, 주한체코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주한리투아니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프리카인사이트 |
| 마법천자문 테마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정보도서관 - 내용: 북이십일(아울북)과 협업하여 《마법천자문》 20주년 기념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테마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다목적홀 - 내용: 문화다양성 도서 39선 전시 및 방정환 창간 잡지 《어린이》 100주년 전시 |
| 다양숲 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야외데크 ※우천 시 지지향 회의실에서 진행 - 내용: 다양성을 주제로 한 어린이 도서가 비치된 야외 도서관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을 제공하고, 일러스트 도안에 창의적 솜씨를 더하는 예술체험 진행(계원예대 산학실습 연계) |
| 오픈하우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 파주출판도시 곳곳 - 내용: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과 파주시 동네서점 공간을 활용한 강연 및 작가 워크숍, 공연, 체험 등 진행 - 참여단체: 김영사, 더빛박스, 보리, 사계절, 소동출판사, 열화당책박물관 등 |
| 스탬프 랠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역 - 내용: 센터 곳곳을 다니며 프로그램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스탬프 랠리 운영 - 기념품: 알록달록 색연필 |
| 어린이 타자기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12:00 / 활판인쇄박물관 앞 선크가든 - 내용: 타자기를 직접 사용해볼 기회를 마련하고 상품을 제공해 흥미 유발 - 참석 인원: 사진 신청자 45명 - 주관: 활판인쇄박물관 |
| 푸드트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스마트스크린 앞 - 내용: 심터와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맛있는 공간 제공 - 메뉴: 닭꼬치, 다코야키, 피자, 초밥, 감자튀김, 닭강정 등 |
| 테마포토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5월 5일(금) ~ 5월 7일(일), 10:00 ~ 18:00 / 지혜의숲2 입구 - 내용: 축제 캐릭터와 책을 비추는 조명 요소를 활용,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스포트라이트 포토존' 운영 |

파주북소리

대한민국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파주출판도시는 사람과 책,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출판문화 클러스터이자 수천 명의 출판인이 매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파주북소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북 페스티벌로 당대 한국문학을 선도하는 대표 문인과 저자, 아티스트를 초청해 독자들과 문학의 향연을 펼쳐왔다. 격조 있는 지식축제로서 파주출판도시를 아시아 출판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책과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매개로 평화를 널리 홍보하는 데도 일조했다. 또한 출판도시의 고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와 저자, 출판인과 작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를 통해 파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1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아시아 책의 수도 |
| 기간 | 2011년 10월 1일(토)~10월 9일(일) |
| 주최·주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
| 참가인원 | 약 50만 명 |



2012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
| 기간 | 2012년 9월 15일(토)~9월 23일(일) |
| 주최·주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프랑스문화원 |
| 참가인원 | 약 50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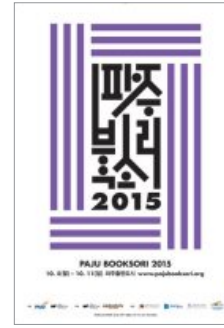
2013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
| 기간 | 2013년 9월 28일(토)~10월 6일(일) |
| 예산 | 총 1,500,000,000원 (지방비 500,000,000원 / 경기도 500,000,000원 / 자부담 500,000,000원) |
| 주최·주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국문화원,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 참가인원 | 약 50만 명 |



2014 파주북소리

| | |
|-------|--|
| 기간 | 2014년 10월 3일(금)~10월 12일(일) |
| 예산 | 총 1,533,000,000원(지방비 335,000,000원 / 경기도 500,000,000원 / 국고 178,000,000원 / 자부담 520,000,000원) |
| 주최·주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네이버 |
| 참가인원 | 약 50만 명 |



2015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책 읽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 |
| 기간 | 2015년 10월 5일(월)~10월 11일(일) |
| 예산 | 총 580,000,000원(지방비 38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출판도시문화재단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보문고, KB국민카드 등 |
| 참가인원 | 약 36만 명 |



2016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열독열정(熱讀熱情) |
| 기간 | 2016년 10월 1일(토)~10월 3일(일) ※테마 전시는 10월 23일까지 진행 |
| 예산 | 총 480,000,000원(지방비 380,000,000원 / 자부담 100,000,000원) |
|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 주요 내용 | 콘텐츠엑스포, 북어워드, 낭독 북콘서트, 독서와 창작 캠프, 시민참여 거리 퍼레이드 등 |
| 참가인원 | 약 10만 명 |



2017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열독열정(熱讀熱情) |
| 기간 | 2017년 9월 15일(금)~9월 17일(일) |
| 예산 | 총 530,000,000원(지방비 38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0원) |
| 주요 내용 | 독(讀)무대 낭독공연, 심야책방, 독서치료, 지식난장, 루프탑콘서트, 북마켓, 플라마켓, 오픈하우스 등 |
| 참가인원 | 약 15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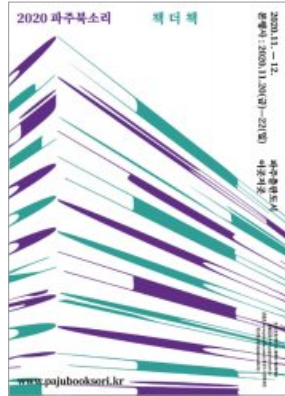
2018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평화의 울림 |
| 기간 | 2018년 9월 14일(금)~9월 16일(일) |
| 예산 | 총 530,000,000원(지방비 38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0원) |
| 주요 내용 | 독(讀)무대 낭독공연, 독서동아리대상, 북마켓,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지역 농산물 마켓 등 |
| 참가인원 | 약 5만 7천 명 |

2019 파주북소리

※ 경기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11차 확진(2019.10.2)으로 행사 전면 취소

2020 파주북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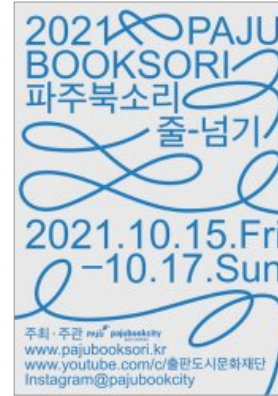


| | |
|-------|--|
| 주제 | 책 더 책 |
| 기간 | 2020년 11월 ~ 12월 |
| 본행사 | 2020년 11월 20일(금) ~ 11월 22일(일) |
| 주요 내용 | 인문스테이지, 북인플루언서스테이지, 소셜스테이지, 커넥션스테이지, 큐레이션, 이벤트스테이지 등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지역 동네책방, 출판단체 등(콘텐츠 촬영 및 제작) |
| 채널 |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이곳저곳 |
| 참가대상 | 어린이와 시민, 출판사, 작가, 도서관, 교육단체 등 |
| 예산 | 총 380,000,000원(지방비 290,000,000원 / 자부담 90,000,000원) |
| 주최·주관 | 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 |
| 비고 | 비대면 진행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인문 스테이지 책 더 나인 | - 18명의 저자가 온·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해안과 지해를 전달하는 인문강연 콘텐츠 - 촉발·도발·갯발을 주제로 한 강연 프로그램. 명사 9명이 인문학과 예술, 사회에서 촉발되는 인문학의 문제, 도발적인 문학, 어려움 속에서도 인류가 갯발을 세울 해안과 지해를 전달 |
| 북인플루언서 스테이지 책+인북소리 | - 출판도시가 추천하는 신간을 소개하고,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출판계 이슈 등을 소개하는 웹 콘텐츠 - '책+인북소리 부스'를 제작하여 영상 녹화·편집본을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프로그램은 1,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패널 2인이 책과 관련된 대담을 나누고 2부에서는 해당 책 작가를 초대해 북토크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 파주출판도시 입주 출판사가 추천하는 신간 중 6명의 저자를 선정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웹 콘텐츠를 통해 출판도시 신간과 콘텐츠 홍보에 도움 |
| 소셜 스테이지 책 더 스페이스 | - 파주 내 다섯 곳의 동네책방, 출판사가 주최하는 현장 프로그램. 각 서점과 출판사에서 섭외한 저자가 강연을 진행 - 강연 현장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송출 이후 녹화 편집본을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에 업로드. 파주지역 책문화공간 홍보와 콘텐츠 활성화에 도움 |
| 커넥션 스테이지 책 더 스토리 | - 파주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 글 작가가 발굴한 파주의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림책 작가 세 명과 함께 그림책으로 제작. 완성된 그림책을 지혜의숲 등 독서문화공간에 전시. 지혜의숲 북도갤러리에 총 9개의 현수막을 걸어 작품을 소개하고, '환경을 지키는 나의 작은 실천'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현장 이벤트 진행. '생태'와 '장단콩' 등 파주시 관광 키워드의 콘텐츠 생성과 배포 |
| 이벤트 스테이지 책 더 유 | - 책을 사랑하는 시민이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책을 추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참여형 이벤트 - 참가자의 큐레이션 서가를 지혜의숲에 조성·전시하는 이벤트와, 함께 읽고 싶은 책, 밑줄 친 문장을 SNS로 공유하는 이벤트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실현 |

2021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줄-넘기 |
| 기간 | 2021년 10월 15일(금) ~ 10월 17일(일) *온라인: 공연·강연 등 무대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금) ~ 11월 21일(일) *오프라인: 부스·전시 등 체험 프로그램 |
| 주요 내용 | 문발스테이지(음악과 문학의 밤), 북소리스테이지, 인문스테이지, 북페어, 테마 전시, 오픈하우스, SNS 이벤트 등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파주출판도시 일원, 온라인 채널 |
| 채널 |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
| 참가대상 | 일반 시민, 출판사, 작가 등 |
| 예산 | 총 371,000,000원(지방비 281,000,000원 / 자부담 90,000,000원) |
| 주최·주관 | 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 |

참가인원

| 일자 | 11월 19일(금) | 11월 20일(토) | 11월 21일(일) | 총합 |
|----------|------------|------------|------------|-------|
| 관람객 수(명) | 520 | 1,480 | 2,010 | 4,010 |

프로그램

| | 프로그램 | 내용 |
|-----------------------|------------------------|--|
| 온라인 (10/15~10/17) | 문발/북소리 스테이지 | 뮤지션과 작가가 함께 나누는 음악과 책 이야기로 구성한 콘텐츠 - 일시: 10월 15일(금) ~ 10월 17일(일)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문학테크(촬영), 재단 유튜브(송출) - 내용: 음악과 문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일반 대중이 문학에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출연진: [1회차] 작가 박상영, 가수 거미 / [2회차] 작가 구현우, 가수 적재 |
| | 인문 스테이지 | 작가와와의 만남, 북토크 등 출판사와 작가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 일시: 10월 16일(토) ~ 10월 17일(일)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촬영), 재단 유튜브(송출) - 내용: 효형출판, 소동출판 등 출판도시 내외의 출판사들과 함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출판도시 콘텐츠 강화 |
| | 오디오북 전시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0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선정작(오디오북 분야) - 선정작: 《돌아와, 귀신고래야》(채지희·권창욱 낭독) 외 8권 - 일시: 10월 15일(금) ~ 10월 17일(일)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문발살롱 |
| 오프라인 (11/19~11/21) | 참가사 도서 전시 /홍보 부스 | 출판인과 독자가 직접 만나 책과 굿즈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 운영 - 일시: 11월 19일(금) ~ 11월 21일(일)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 내용: 도서·굿즈 전시, 동네서점 홍보 등(출판도시 내외의 24개 출판사와 경기도 내 23개 동네책방, 작가 13명의 부스 40여 개 운영.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공) |

| | |
|-------|---|
| 테마 전시 | 2021 만화 콘텐츠 다각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만화와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VR 체험 전시 - 일시: 11월 17일(수)~11월 26일(금) -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 내용: 《열세 살의 여름》, 《반달》, 《나쁜 친구》, 《똥두》 등 만화 콘텐츠를 활용한 VR 체험과 작품 열람, 작가의 방 등 색다른 볼거리 제공 |
| 오픈하우스 |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과 파주시 동네서점 공간을 활용한 강연과 작가 워크숍, 공연, 체험 등 진행 - 일시: 11월 19일(금)~11월 21일(일) - 내용: 파주아트병커협동조합, 활판인쇄박물관, 플럼라인, 시옷살롱책방, mwa press 등 출판도시 내 공간을 활용한 전시·강연 프로그램 진행으로 출판도시 곳곳을 돌아보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2022 파주북소리



| | |
|-------|--|
| 주제 | 탐 - #탐닉 #탐구 #탐욕 |
| 테마 | 책에서 찾은 나의 세계 |
| 기간 | 2022년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개막식: 10월 21일(금) 오후 6시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파주출판도시 일원, 온라인 채널 |
| 예산 | 총 371,000,000원(지방비 281,000,000원 / 자부담 90,000,000원) |
| 주요 내용 | 개막식, 인문예술 프로그램, 전시&부스 프로그램, 마켓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
| 참가대상 | 일반 시민, 출판사, 작가 등 |
| 주최·주관 | 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 |

참가인원(오프라인)

| 일자 | 10월 21일(금) | 10월 22일(토) | 10월 23일(일) | 총합 |
|----------|------------|------------|------------|--------|
| 관람객 수(명) | 2,200 | 5,100 | 7,700 | 15,000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개막식 (문학과 음악의 밤)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7:30~19:30 / 지혜의숲2 - 내용: 오프닝 공연(밴드 안녕바다), 축제 소개, 내빈 소개, 개회사(김경일 파주시장), 환영사(고영은 이사장), 축사(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감독), 세리머니, 주제공연(문학과 음악의 밤: 시인 오은&가수 옥상달빛) |
| 인문예술 프로그램 | -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토)~10월 23일(일) / 지혜의숲2, 문발살롱, 서호정사 - 개요: 가벼운 소재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이끌어내는 '생활인문' 주제의 북토크, 워크숍, 공연 등 무대 프로그램 - 내용: 북토크(임형남, 요조, 이슬아, 한이리 등) 7회, 북토크&워크숍(은유, 김혜지) 2회, 공연(프렐류드, 김목인, 수에노, 해화) 4회 |
| 북킹, 나잇 BOOKing, night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20:20~23:00 / 지혜의숲2 - 개요: 서평가와 작가, 일반 독자가 함께하는 밀착 네트워킹 파티 - 참가자: 서평가(허희, 김미향, 정용실, 남정미, 조현행, 김성신, 장동석) 7인, 작가(김혜나, 심혜경, 최예선, 이선영, 김의경, 광경훈, 최여정) 7인, 신인 서평가 4인, 독자 54인 |

| | |
|------------------------------------|--|
| 주제전시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 다목적홀·지혜의숲 - 내용 (1) 작가를 탐하다: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자유롭게 해보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참가자들이 전시관에 수집된 글, '탐'을 주제로 한 오브제 등을 관람한 뒤 주제를 선택하여 글을 쓰고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가 되는 경험 획득 (2) 내게 온 탐: 모바일을 활용한 AR필터와 인스타그램 필터 이벤트. 파주북소리의 '탐'을 주제로 한 필터를 개발하여 축제 공간이 탐욕의 공간으로 변하는 재미 제공 |
| 기획전시 <북아티스트 텐트>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10:00~18:00 / 다목적홀 - 내용: <그림, 작가의 방>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작가의 일상 속 작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전시 프로그램. 작가의 방, 그림책, 일러스트, 그림 전시와 판매 - 참여작가: 아피스토, 의자, 윤상아, 전필화, 천지수, 김현주, 박모일, 이혜진, 백은하, 남승현, 김희선, 달과 강 등 |
| 특별전시 100년의 서가 <마르크스 엥겔스 도서전>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10:00~18:00 / 소회의실 ※토크쇼: 10월 22일(토) 15:00~17:00 / 문발살롱 - 내용: 룰프 해커 교수 소장 희귀본과 MEGA 한글판 출판 론칭 기념 도서전. 인류의 기록유산 《공산당 선언》, 《자본》 제1권의 주요 국제적 판본과 마르크스·엥겔스 도서 출판 100년(1845~1945)의 주요 판본 전시 ※토크쇼: 마르크스·엥겔스 저작 출판의 역사(룰프 해커 교수&강신준 교수) |
| 제1회 파주출판도시 일러스트페어 눈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10:00~18:00 / 대회의실 - 내용: 일러스트,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창작자를 소개하고 작가와 출판도시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협업 생태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 - 주관·후원: mwa press, 아르디움 - 참여작가: 국내 일러스트 작가 39명의 작품 300점 내외(미지, 가원, 이두라, 오르빗, 카요이, 김민경 등) |
| 플리마켓&아트마켓 | -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토)~10월 23일(일) / 다목적홀, 스마트스크린 앞, 계단, 아시아광장 - 내용: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축제. 건강을 '탐'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르쉐 장터와 예술을 '탐'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아트마켓 - 참가: 파주 지역 소상공인 40여 팀 등 |
| 북소리마켓 SELL&BUY | -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토)~10월 23일(일) 10:00~18:00 / 다목적홀 - 내용: 책 관련 아이템(에코백, 배지, 책, 독서대 등) 물물교환 프로그램. '북소리마켓'에서 추억과 물건을 나누는 취지로 누군가 셀러가 되어 물건을 판매 등록하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형식 |
| 파주 독서산책 챌린지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 파주 공공도서관과 동네책방 - 내용: 축제기간 주요 행사장을 파주시 관내 도서관과 동네책방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파주시 곳곳에서 책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역문화 거점 연계 프로젝트 진행 - 참가 단체: 파주 공공도서관 3곳(파주중앙, 교하, 해솔)과 동네책방 3곳(점오책방, 그림이야기책방, 시옷책방) |
| 파주이야기 그림전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 문발살롱 - 개요: 파주에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전설, 설화 등을 그림으로 담은 이야기 그림전 - 내용: 파주문화원 보유 이야기 그림 총 34점 중 축제 주제에 어울리는 20점 전시. 전시 해설자 2인 배치 - 협력: 파주문화원 |
| 오픈하우스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 파주출판도시 곳곳 - 내용: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과 파주시 동네서점 공간을 활용한 강연 및 작가 워크숍, 공연, 체험 등 진행 - 참여 단체: 소동출판사, 봄마중, 김영사, 효형출판사, 명필름, 난다, 어떤우주 |
| 북소리 타자기대회 |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일) 13:00 / 활판인쇄박물관 앞 선큰가든 -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 소설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을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나눠 각각 신청한 타자기(한타·영타)로 문장을 완성. 오타와 띄어쓰기 등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 - 참가 인원: 사전 신청자 30명(한글 타자 15명, 영문 타자 15명) - 주관: 활판인쇄박물관 |

| | |
|------------------|---|
| 제5회 파주 건축문화제 체험존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10:00~18:00 / 지혜의숲1 - 내용: 파주출판도시 2단계에서 같은 기간 진행되는 '제5회 파주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3D프린팅의 원리를 활용한 3D펜을 이용하여 나만의 입체적 건축물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 주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 파주고용복지+ 센터중점사업홍보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2일(토) / 선큰가든 - 내용: 구직 상담 또는 구직 신청, 메타버스 체험, 고용센터 SNS 구독 후에 뽑기 1회를 진행하여 UV양우산, 장바구니, 손소독 티슈 등 다양한 기념품 제공 - 주관: 파주고용복지+센터 |
| 경기도책방 탐구생활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0:30~18:00 / 문발살롱 - 내용: 2023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서점 운영 노하우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 지역서점 네트워크 데이 진행 - 주관: 경기콘텐츠진흥원 - 참가 인원: 경기도 지역서점 관계자(오래된서점, 숲판스북카페, 그림이야기책방, 찜오책방, 소소한책방 등 파주시 동네서점 포함 50개 서점) |
| 2022 디지털북 전시체험관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10:00~18:00 / 지혜의숲1 - 내용: VR·AR를 활용한 도서관, 오디오북 내레이터 체험, E-BOOK 리더기 도서 전시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단지 문화산업 전문인력마켓 |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10월 22일(토), 10:00~18:00 / 선큰가든 - 내용: 구직자 대상 취업 상담 매칭, MBTI로 알아보는 나의 진로 검사 등 - 주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 보물섬 도서할인잔치 | -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토)~10월 23일(일), 10:00~18:00 / 아름다운가게 보물섬 - 내용: 중고도서 할인행사(10% 할인권 제공) |

2023 파주북소리



| | |
|-------|--|
| 테마 | 신선한 책 VERY FRESH BOOK |
| 슬로건 | 가장 신선한 책을 만나는 곳 |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10월 29일(일) ※부대행사: ~11월 12일(일) |
| 장소 | 출판도시 야외무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 파주출판도시 일원 |
| 주요 내용 | 개막식, <북시티 국제 그림책 어워드> 신인상 시상식, 무대 프로그램(신선한·북앤), 부스 프로그램(신선한·북-라이프), 테마 전시/도시 산책/부대행사(신선한·북-시티) 등 |
| 대상 | 책과 작가를 좋아하는 시민(2030 애독계층), 출판도시 관련 개인·단체 등 |
| 예산 | 총 371,000,000원(지방비 281,000,000원 / 자부담 90,000,000원) |
| 주최 | 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 |

행사 참가 인원 *개막식과 메인 행사 3일 기준

| 일자 | 10월27일(금) | 10월 28일(토) | 10월29일(일) | 합계 |
|----------|-----------|------------|-----------|--------|
| 관람객 수(명) | 1,000 | 6,500 | 4,000 | 11,500 |

※ 파주 일러스트페어 눈(~11/12) 약 8천 명, 국제 그림책 교류전(~11/5) 약 3천 명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개막식 <북시티 국제 그림책신인상 시상식>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16:00 / 대회의실 - 내용: 오프닝, 내빈 소개, 개회사(고영은 이사장), 환영사(김진기 파주부시장), 축전(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축사(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북시티 국제 그림책 어워드> 신인상 시상식(심사총평·시상), 기념촬영, 축하공연(론 브랜트 재즈그룹), 클로징 |
| 신선한, 북앤 (Book&)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10월 29일(일) / 출판도시 야외무대 - 개요: 음악, 공간, 키즈, 커피,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영역의 초대 손님과 나누는 북토크와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되는 야외무대 프로그램 - 내용: Book&Cinema, Book&Kids, Book&Creative, Book&Music: MBC 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특집 공개방송>, Book&Space, Book&Coffee, Book&K-Artsong |
| 문발_이웃 쿵썩쿵썩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10월 29일(일), 10:00~18:00 / 출판도시 야외광장 - 내용: 문발동 동네책방 '찜오책방'과 이웃들이 함께 살기를 고민하고 삶과 일, 놀이가 뒤섞인 마을잔치를 진행. 책을 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이 되어주는 가장 신선한 방법,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마을 살이 홍보 - 참가 단체: 찜오책방, 교하도서관, 마을발전소, 우리동네마을공방, 시웃살롱책방, 살래공동텃밭, 공릉천친구들 등 |
| 경기동네 책방마켓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10월 29일(일), 10:00~18:00 / 출판도시 야외광장 - 내용: 경기도 내 서점들이 함께 참여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책을 판매하는 북마켓 부스 - 참가 단체: 그림이야기, 그림이야기책방, 하브루타 그림책방, 마음북스랩, 이야호우북스 등 경기지역 서점 |
| 로컬푸드마켓 햇빛장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10월 29일(일), 10:00~18:00 / 출판도시 야외광장 - 내용: 파주시에서 무농약·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지역 농산물을 조리하는 요리사,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예가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 - 참여 단체: 파주 지역 소상공인 14팀 |
| 푸드트럭존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10월 29일(일), 10:00~18:00 / 출판도시 야외광장 - 내용: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야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먹거리 - 메뉴: 다코야키, 수제닭꼬치, 닭강정, 불초밥, BBQ, 화덕피자, 음료 등 |
| 제2회 파주출판도시 일러스트페어 눈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11월 12일(일), 10:00~18:00(주말), 12:00~18:00(평일) / 다목적홀 - 내용: 일러스트,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창작자를 소개하고 작가와 출판도시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협업 생태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 - 주제: Cast puzzle-창작자의 세계, 그 속으로 - 주관: mwa press(독립 큐레이터, 아티스트북 전문 출판사) - 세부 내용: 초대작가 특별전(아티스트북, 앤디 워홀, 얼룩, 우야 작가 컬렉션, 이상권, PaTI, PRETTYLINEZ정현, Thatism 총 8팀 500여점 내외), 일반 부스 전시(69명의 300여 점 내외), 포스터 전시(25명의 200여 점 내외) 외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전문가 초청강연, 팝업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
| 북시티 국제 그림책 교류전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11월 5일(일) 10:00~18:00 / 대회의실 - 내용: 북시티 국제 그림책 어워드와 연계하여 국제 그림책 신인상, 북시티 그림책 신인상 수상작 4종과 일부 출판작 전시 |
| 2023 아트경기 (팝업갤러리)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10월 29일(일), 10:00~18:00 / 갤러리 지지향 - 내용: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들과 대중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작가의 탄생'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작가들과 만남의 장 - 주관: 갤러리끼 - 참여: 김희진, 김영원, 무아리, 노한솔, 김수정 등 경기지역 시각예술가 21인 |

| | |
|---------------|---|
| 마음을 찍는 사진관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 11월 12일(일) / 문발살롱 - 내용: 2023 생활인문 프로그램 '마음을 찍는 사진관' 출사와 영화가 있는 22명의 사진작가들과 함께한 사진워크숍 작품 전시 |
| 시크릿 인문북클럽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9:00 ~ 10월 28일(토) 13:00 / 정보도서관, 문발살롱 - 내용: 출판도시 인문학당과 연계해 깊이 있는 독서를 유도하는 1박 2일 네트워킹 독서 프로그램 - 참가: 박서련 작가, 서효인 편집자, 선우은실 평론가, 온라인 사전 신청자 |
| 오픈하우스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 11월 12일(일) / 파주출판도시 곳곳 - 내용: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과 파주시 동네서점 공간을 활용한 강연과 작가 워크숍, 공연, 체험 등 진행 - 참여 단체: 김영사, 더빛박스, 명필름, 살림출판사, 소동출판사, 플럼라인, 활판공방, 찜오책방, 출판사 난다, 목요일출판사, 열화당책박물관, 세계절출판사, 크리에이트뮤직, 웅진씽크빅, 갤러리박영, 출판사업체협센터, 시옷살롱책방 등 17개 업체 |
| 북소리 타자기대회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 13:00 / 활판인쇄박물관 앞 선큰가든 - 내용: 디지털에 익숙한 요즘, 기계식 타자기를 직접 쳐보며 추억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타자기대회 - 참가 인원: 일반 성인 28명 - 주관: 활판인쇄박물관 |
| 출판도시 산책 쿠폰북 |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 11월 12일(일) / 쿠폰을 발행한 출판도시내 카페, 식당 등 - 내용: 파주출판도시를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쿠폰 제공 - 참가 업체: 라본느 베이커리, 아르디움, 마이달링커피, 북소리책방, 스케치북플러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템스커피, 베럴프로틴, 명필름아트센터 등 23개 업체 |
| 경기도 기회소득 주간행사 | - 일시 및 장소: 10.28(토) ~ 10.29(일) 10:00 ~ 17:00 / 서호정사 - 내용: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의 버스킹 공연, 도정 홍보 안내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이벤트 참여 행사 등 -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
| 유관기관 부스 | -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토) ~ 10월 29일(일) 10:00 ~ 17:00 / 스마트스크린 앞 - 내용: 유관 기관 체험, 이벤트 등 홍보 부스 운영 - 참가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책보고,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출판도시 인문학당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전국의 출판사와 동네책방, 문화·학술 단체를 지원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연간 사업이다. 2014년부터 해마다 100회 이상의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을 지원, 진행해 2024년에 10주년을 맞는다. 이 사업은 출판사와 작가·서점·독자와의 연결을 중시하며, 책과 인문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는 강연으로 기획되었다. 문학뿐 아니라 철학·건축·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문학 강연 플랫폼으로서 그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2014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4년 7월 ~ 12월 |
| 강좌 수 | 103회 |
| 참석자 수 | 현장 7,000명 |
| 지원 단체 수 | 16곳(13개 출판사, 3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100여명 |
| 예산 | 총 300,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100,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49회 | 44회 | 10회 | - |
| 진행 기간 | 8~12월 | 7~12월 | 10월 | - |
| 조회수 | - | - | - | - |



2015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251회 |
| 참석자 수 | 현장 12,200명 |
| 지원 단체 수 | 18곳(13개 출판사, 5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95명 |
| 예산 | 총 300,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100,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115회 | 117회 | 19회 | - |
| 진행 기간 | 1~12월 | 5~12월 | 5, 10월 | - |
| 조회수 | - | - | - | - |



2016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6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200회 |
| 참석자 수 | 현장 8,000명 |
| 지원 단체 수 | 28곳(21개 출판사, 2개 작은책방, 5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133명 |
| 예산 | 총 265,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65,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155회 | 20회 | 25회 | - |
| 진행 기간 | 1~12월 | 1~11월 | 5, 10월 | - |
| 조회수 | - | - | - | - |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7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222회 |
| 참석자 수 | 현장 8,400명 |
| 지원 단체 수 | 40곳(28개 출판사, 10개 작은책방, 2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200여명 |
| 예산 | 총 250,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50,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158회 | 42회 | 22회 | - |
| 진행 기간 | 1~12월 | 7~8월 | 5, 9월 | - |
| 조회수 | - | - | - | - |



2018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8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44회 |
| 참석자 수 | 현장 8,000명 |
| 지원 단체 수 | 30곳(13개 출판사, 11개 작은책방, 6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120여 명 |
| 예산 | 총 250,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50,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101회 | 26회 | 17회 | - |
| 진행 기간 | 1~12월 | 3~12월 | 9월 | - |
| 조회수 | - | - | - | - |



2019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25회 |
| 참석자 수 | 현장 7,000명 |
| 지원 단체 수 | 36곳(14개 출판사, 16개 작은책방, 6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120여 명 |
| 예산 | 총 188,000,000원(국고 150,000,000원 / 자부담 38,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74회 | 18회 | 33회 | - |
| 진행 기간 | 1~12월 | 3~12월 | 5월 | - |
| 조회수 | - | - | - | - |

자체 기획 상세

- 주제 : 독토리 비경쟁 독서토론, 2020 대응지침, 작가와의 만남
- 형태 : 독서토론, 오프라인 강연
- 프로그램

| 제목 | 강연자 | 일시 |
|---------------------|--------|-----------------------|
| 3~4월 독토리 비경쟁 독서토론 | | |
|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 김태빈 작가 | 2019년 3월 30일(토) 11:00 |
| 어린이 비경쟁 독서토론 | 박경화 작가 | 2019년 4월 6일(토) 11:00 |

| 8월 서머스쿨 | | |
|---------------------------------|----------------------------|------------------------|
| 세상의 다양한 영화: '어벤저스'와 '어느 가족'의 차이 | 명필름랩 서정일 교수 | 2019년 8월 1일(목) 13:00 |
| 예술영화 보기: 문학만큼 깊이 있는 영화의 세계 |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김세윤 작가 | 2019년 8월 2일(금) 13:00 |
| 영화감독과의 만남: 적은 돈으로 만든 영화도 재밌다. | 이지수 음악감독 | 2019년 8월 18일(토) 13:00 |
|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임철우 작가 | 2019년 8월 16일(금) 18:00 |
| 완벽한 한 문장 | 방현석 작가 | 2019년 8월 16일(금) 20:30 |
| 너에게 묻는다 | 공선옥 작가 | 2019년 8월 17일(토) 09:00 |
| 나만의 장서표로 시 노트 만들기 | 남궁산 판화가 | 2019년 8월 17일(토) 10:30 |
| 11월 2020 대응지침 | | |
| 대다수를 위한 강연 - 우리는 예술가 | 이루리 그림책 작가 | 2019년 11월 16일(토) 10:00 |
| 대다수를 위한 강연 - 실과 바늘의 특별한 상상 | 김근희 그림책 작가 | 2019년 11월 16일(토) 14:00 |
| 응급처치 - 나를 돌아보는 방법 | 정여울 작가 | 2019년 11월 17일(일) 10:00 |
| 응급처치 - 요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 강창래 인문학자 | 2019년 11월 17일(일) 14:00 |
| 지식공유 - 지구를 지키는 행동 | 오은 시인 | 2019년 11월 23일(토) 10:00 |
| 지식공유 - 지구를 지키는 행동 | 고영아 작가 | 2019년 11월 23일(토) 14:00 |
| 침착하게 계획하기 - 삶을 바꾸는 메모의 힘 | 신정철 작가 | 2019년 11월 24일(일) 10:00 |
| 침착하게 계획하기 - 내 삶을 읽는 글쓰기 | 강원국 작가 | 2019년 11월 24일(일) 14:00 |
| 12월 저자와의 만남 | | |
| 시, 모성을 노래하다 | 정호승 시인 | 2019년 12월 19일(목) 14:40 |



2020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20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18회 |
| 참석자 수 | 현장 800명 / 온라인 31,800회 |
| 지원 단체 수 | 25곳(11개 출판사, 10개 작은책방, 4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90여 명 |
| 예산 | 총 188,000,000원(국고 150,000,000원 / 자부담 38,000,000원) |

행사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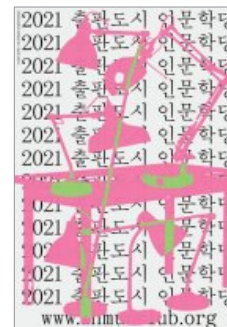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29회 | 36회 | 31회 | 22개 |
| 진행 기간 | 1~12월 | 4~12월 | 10월, 11월 | 1~12월 |
| 조회수 | - | - | - | 39,104회 |

자체 기획 상세

- 주제: 생태 강연, 서평가 출출동소,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문발살롱, 연말 시리즈 강연
- 형태: 온라인 강연
- 프로그램

| 제목 | 강연자 | 일시 |
|--|-------------------------------|------------------------|
| 4~5월 생태강연 | | |
| 파주출판도시와 공존하는 갈대삿갓 이야기 | 한동욱 PGA에코다양성 연구소 소장 | 2020년 4월 6일(월) 14:00 |
| 파주출판도시 환경보호 프로젝트 - 출판도시의 지리적·생태적 위치 이해 | | 2020년 5월 14일(화) 09:00 |
| 7월 서평가 출출동소 | | |
| 서평가 출출동소 - 어, 왜 D출판사 책만 자꾸 소개되지? | 김성신·홍순철·남정미 출판평론가, 한겨레 최윤아 기자 | 2020년 7월 1일(수) 11:00 |
| 5~11월 문발살롱(예술&과학) | | |
| 조토와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예술 기행 | 김현성 작가 | 2020년 5월 30일(토) 14:00 |
| 문구를 찾아 떠난 여행 | 문경연 작가 | 2020년 6월 6일(토) 14:00 |
| 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런던 여행 | 최여정 작가 | 2020년 6월 13일(토) 14:00 |
| 이명현의 별 헤는 밤 | 과학책방 '갈다' 이명현 대표 | 2020년 10월 17일(토) 13:00 |
| 과학이라는 인문학 |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도 관장 | 2020년 10월 17일(토) 15:00 |
| 알고리즘 시대의 공감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익 교수 | 2020년 11월 7일(토) 13:00 |
| 화학, 인류의 이정표 | 광운대 화학과 장홍제 교수 | 2020년 11월 7일(토) 15:00 |
| 9월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 | |
| 마음이랑 함께 마음요리 만들어요 | 차영경 작가 | 2020년 9월 23일(수) |
| 엄마와 함께 보는 그림책 | 이순옥 작가 | |
| 물꽃머리 초와 촉하 그리고 선물 | 이연 작가 | |
| 클레이로 나를 닮은 빗방울 만들기 | 안효림 작가 | |
|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요 | 차은실 작가 | |
| 나만의 밥상 차리기 | 이승원 작가 | 2020년 9월 24일(목) |
| 내가 좋아하는 소리책 만들기 | 장중연 작가 | |
| 나비와 놀기 | 유명금 작가 | |
| 목각인형 가방 꾸미기 | 김혜란 작가 | |
| 일상의 예술 | 이명환 작가 | |
| 친구 이야기 | 채상우 작가 | 2020년 9월 25일(금) |
| 같이 풍덩 수영장 만들기 | 박소정 작가 | |
| 왁들과 원주민 모자 만들기 | 이미성 작가 | |
| 야광시계의 비밀 | 하이진 작가 | |
| 눈사람 만들기 | 김근희 작가 | |

| | | |
|---|--------|------------------------|
| 백석 동화시와 먹그림 놀이 | 오치근 작가 | 2020년 9월 26일(토) |
| 마음이 보이는 표정 막대인형 만들기 | 박진아 작가 | |
| 자르고! 붙이고! 누르고! 목탄콜라주 | 엄정원 작가 | |
|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림책 이야기 | 지경애 작가 | |
| 내 코 걱정인형 만들기 | 주윤희 작가 | |
| 연말 시리즈(11월) 2020 마음 연말정산 | | |
|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 | 권석천 작가 | 2020년 11월 14일(토) 13:00 |
| 감정이 아니어도 괜찮아 | 김신식 작가 | 2020년 11월 14일(토) 15:00 |
| 연말 시리즈(11월) 2021 도약! 프로젝트 | | |
| 《말하기를 말하기》를 말하기 | 김하나 작가 | 2020년 11월 28일(토) 13:00 |
| 읽고 보고 듣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 황효진 작가 | 2020년 11월 28일(토) 15:00 |
| 연말 시리즈(12월) 오! 크리스마스 - 나만의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 | |
| 행운을 부르는 겨울 리스 만들기 | 김지해 작가 | 2020년 12월 5일(토) 13:00 |
| 실과 바늘로 만드는 나만의 감성 소품,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 김소영 작가 | 2020년 12월 5일(토) 15:00 |



2021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21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32회 |
| 참석자 수 | 현장 2,000명 / 온라인 43,000회 |
| 지원 단체 수 | 28곳(16개 출판사, 8개 작은책방, 4개 문화·학술 단체) |
| 강연자 수 | 140여 명 |
| 예산 | 총 222,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22,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49회 | 22회 | 12회 | 49개 |
| 진행 기간 | 1~12월 | 4~12월 | 5월, 10월 | 1~12월 |
| 조회 수 | - | - | - | 42,858회 |

자체 기획 상세

- 주제: 문발포엣살롱, 문발포레스트, 문발브랜딩, 우리 동네 지혜의숲
- 형태: 온·오프라인 강연, 연계 전시
- 프로그램

| 제목 | 강연자 | 일시 |
|------------------------------------|-----------------------------|------------------------|
| 4~5월 문발 포엣 살롱 - 쓰는 사람 소리: 시 | | |
| 문발 포엣 살롱 | 유희경, 이영주, 황인찬 시인 | 2021년 4월 17일(토) 15:00 |
| 6~7월 문발 포레스트 | | |
| 식물의 위로 | 임이랑 작가 | 2021년 6월 19일(토) 13:00 |
| 직접 심어보는 단단한 마음 | 정수진 작가 | 2021년 6월 19일(토) 14:30 |
| 최선의 하루를 위한 식물 루틴 | 김파카 일러스트레이터 | 2021년 8월 7일(토) 13:00 |
| 11~12월 문발 브랜딩 - 후아유(Who Are You) | | |
| 나를 알아가는 여행 | 정혜운 작가 | 2021년 11월 20일(토) 13:00 |
| 요즘 것들의 나다운 브랜드 | 구백킬로미터(900KM) 이혜민·정현우 대표 | 2021년 12월 4일(토) 13:00 |
| 5~12월 우리 동네 지혜의숲 | | |
| 책갈피, 콜렉터를 만나다 | 권오준 작가 | 2021년 5월 21일(금) 13:00 |
| 콜렉터와의 만남, 에피소드 | 권오준 작가, 이화정 연주가 | 2021년 5월 22일(토) 10:30 |
| 모리스센탁의 희귀자료 설명 | | 2021년 5월 22일(토) 13:00 |
| 박물관에 간 이집트 하마가 본 그림 속 세상 | 노란우산 그림책카페 | 2021년 5월 22일(토) 13:00 |
| 박물관에 간 하마와 같이 박물관 여행 | 최재경 대표 | 2021년 8월 7일(토) 13:00 |
| 음악을 즐기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요 | 유아음악연구소 | 2021년 8월 14일(토) 13:00 |
| 예술놀이 그림책으로 음악 여행 | 이근영 소장 | 2021년 8월 14일(토) 14:10 |
| 옛이야기, 세상과 통하다 | 인권교육센터 들 | 2021년 9월 11일(토) 10:00 |
| 빛나지 않는 별, 차별? | 이묘랑 활동가 | 2021년 9월 11일(토) 11:00 |
| 영화 속의 클래식 | 세종음악연구소 | 2021년 10월 16일(토) 13:00 |
| 아이들은 스스로 배운다 | 민병아 대안교육활동가 | 2021년 11월 20일(토) 10:00 |
| 서로배움: 어른과 아이 마주 보다 | | 2021년 11월 20일(토) 11:00 |
| 시를 품은 근사한 우리가족 어때요? | 김윤희 그림책 지도사 | 2021년 12월 12일(일) 10:00 |
| '나 꽃으로 태어났어'와 함께하는 꽃다발 카드 | 최재경 그림책테라피스트 | 2021년 12월 19일(일) 10:00 |
| 노란버스 타고 해루질 가요 | 조혜란 그림책 작가 | 2021년 12월 19일(일) 14:00 |
| 그림책으로 떠나는 클래식 여행 | 이근영 피아니스트 | 2021년 12월 19일(일) 16:00 |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22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26회 |
| 참석자 수 | 현장 2,200명 / 온라인 58,000회 |
| 지원 단체 수 | 36곳(20개 출판사와 문화·학술 단체, 16개 작은서점) |
| 강연자 수 | 90여 명 |
| 예산 | 총 222,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22,000,000원) |

행사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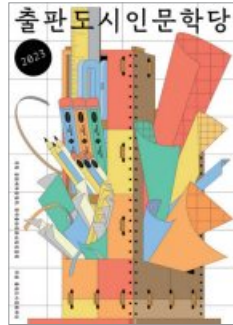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추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47회 | 15회 | 13회 | 51개 |
| 진행 기간 | 1~12월 | 4~12월 | 5월, 10월 | 1~12월 |
| 조회수 | - | - | - | 58,175회 |

자체 기획 상세

- 주제: 사방(四方) 이야기, 기록에게, 우리 동네 지혜의숲
- 형태: 오프라인 강연, 연계 전시
- 프로그램

| 제목 | 강연자 | 일시 |
|--------------------------|-------------------------|------------------------|
| 4~7월 사방(四方) 이야기 | | |
| 방밖에 없는 사람, 방 밖에 없는 사람 | 이현호 시인 | 2022년 4월 15일(토) 13:00 |
| 집의 기쁨과 슬픔 | <Next>콘텐츠 디렉터 김윤선 에디터 | 2022년 6월 18일(토) 13:00 |
| 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이야기 | 비유에스건축 박지현·조성학 소장 | 2022년 7월 9일(토) 13:00 |
| 6~8월 우리 동네 지혜의숲 | | |
| 우리는 청소년 - 시민입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 박지연·이묘랑 활동가 | 2022년 6월 4일(토) 14:00 |
| 《커다란 수박의 비밀》 저자 초청 강연회 | 다린 작가 | 2022년 7월 9일(토) 14:00 |
|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 옥희진 그림책 작가 | 2022년 7월 23일(토) 14:00 |
| 바보 힐링 이야기 - 그림에세이 책 이야기 | 이규환안젤리 그림책 작가 | 2022년 8월 7일(일) 13:00 |
| 바보 힐링 이야기 - 책 안의 그림 이야기 | | 2022년 8월 20일(토) 14:00 |
| 바보 힐링 이야기 - 워크숍 | | 2022년 8월 20일(토) 16:00 |
| 9~12월 기록에게 | | |
| '일기주의자' 시인의 일기 쓰는 시간 | 문보영 시인 | 2022년 9월 17일(토) 13:00 |
| 이것은 우리가 같은 시간에 살았다는 증거 | 박참새 작가 | 2022년 10월 29일(토) 13:00 |
| 사진, 글 그리고 잡지에게 | 《보스토크》박지수 편집장 | 2022년 11월 19일(토) 13:00 |
| 사진이 나에게 말을 건다 | 황예지 작가 | 2022년 12월 10일(토) 13:00 |

| | | |
|--------------------------|--------------|-----------------------|
| 기타 | | |
| 매화가 피어나는 인문학 | 문봉선 화가 | 2022년 3월 28일(월) 11:00 |
|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 에티오피아 커피 여행 | 윤오순 인문지리학 박사 | 2022년 12월 3일(토) 13:00 |



2023 출판도시 인문학당

| | |
|---------|---|
| 기간 | 2023년 1월 ~ 12월 |
| 강좌 수 | 137회 |
| 참석자 수 | 현장 4,500명 / 온라인 70,000회 |
| 지원 단체 수 | 46곳(24개 출판사와 문화·학술 단체, 22개 작은책방) |
| 강연자 수 | 100여 명 |
| 예산 | 총 222,000,000원(국고 200,000,000원 / 자부담 22,000,000원) |

행사별 결과

| 구분 | 지원사업 | 자체 기획 | 축제 연계 | 유튜브 |
|-----------------|-------|-------|---------|---------|
| 지원·진행 강좌 / 영상 수 | 85회 | 21회 | 11회 | 20개 |
| 진행 기간 | 1~12월 | 4~11월 | 5월, 10월 | 1~12월 |
| 조회수 | - | - | - | 70,907회 |

자체 기획 상세

- 주제: 몸 나누기 마음 은(몸÷마음=), 키득키득 어린이 인문 클럽, 두근두근 어덜트 인문 클럽, 시크릿 인문 북클럽
- 형태: 오프라인 강연, 연계 전시
- 프로그램

| 제목 | 강연자 | 일시 |
|-------------------------------|-------------------------------|------------------------|
| 4 ~ 11월 몸 나누기 마음 은 | | |
| 나눠 갖는 마음 | 정재울 시인 | 2023년 4월 15일(토) 13:00 |
| 새벽 세 시의 몸과 마음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김영옥 대표(연구활동가) | 2023년 6월 17일(토) 13:00 |
| 일상의 마음 - 일상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법 | 무과수 작가 | 2023년 7월 8일(토) 13:00 |
| 움직이는 몸과 마음 - 느낄 수 있는 용기 | 황혜원 작가 | 2023년 9월 3일(일) 13:00 |
| 땅 위의 몸 - 걷는 건, 누구에게나 언제든 이득이다 | 이영미 작가 | 2023년 10월 14일(토) 13:00 |
| 발칙하고 솔직한 몸 | 한가람 감독, 최희서 배우, 손희정 평론가 | 2023년 11월 11일(토) 13:00 |

| 9월 키득키득 어린이 인문 클럽 | | | |
|---------------------------------------|---|-----------------|------------------------|
| 책에서 본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속 '마들렌' 만들기 | 미실스위츠 김미실 대표 | 2023년 11월 7일(화) 10:30 |
| | 《인형의 집》속 노라가 사랑한 '마카롱' 만들기 | | 2023년 11월 14일(화) 10:30 |
| | 《헨젤과 그레텔》속 '과자집' 만들기 | | 2023년 11월 21일(화) 10:30 |
| | 《빨간 머리 앤》의 앤이 실패한 '산딸기크림 바닐라 레어케이크' 성공해보기 | | 2023년 11월 28일(화) 10:30 |
| 프리즘 오브 플라워 Prism of Flower | 작은 꽃다발 만들기 | 무구(mugu) 이현주 대표 | 2023년 11월 9일(목) 13:00 |
| | 단풍과 열매를 사용한 화관 만들기 | | 2023년 11월 16일(목) 13:00 |
| | 초겨울 침봉꽃이 만들기 | | 2023년 11월 23일(목) 13:00 |
| 10월 고요한 밤과 낮의 시크릿 인문 북클럽 Vol.1. 박서련 | | | |
| 고요한 밤의 '박서련' 중독자 | 선우은실 평론가, 서효인 대표(편집자) | | 2023년 10월 27일(금) 19:00 |
| 고요한 낮의, '박서련' | 박서련 작가 | | 2023년 10월 28일(토) 11:30 |
| 기타 | | | |
| 봄날의 인문학 산책 | 문봉선 화가, 김태희 명창 | | 2023년 3월 21일(화) 11:00 |

파주 에디터스쿨

파주 에디터스쿨은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대표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하는 출판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며 독자를 탐구하고 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나는 앞으로 출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이 사업은 출판업 종사자, 특히 편집자를 위한 재교육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제1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나는 앞으로 출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
| 기간 | 2014년 10월 8일(수) ~ 10일(금) |
| 예산 | 총 152,120,174원(국고 98,084,913원 / 자부담 54,035,261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주일우(문학과지성사 대표) - 기획위원: 강광실(사계절출판사 대표),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
| 참여국·인사 | 4개국 31명(해외 16명) |
| 참가인원 | 약 350명 |



제2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New Editorship - 편집의 새로운 시도 |
| 기간 | 2015년 10월 7일(수) ~ 9일(금) |
| 예산 | 총 136,489,000원(국고 89,929,000원 / 자부담 46,5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주일우(문학과지성사 대표) - 기획위원: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김학원(휴머니스트 대표), 김형보(어크로스 대표) |
| 참여국·인사 | 6개국 20명(해외 6명) |
| 참가인원 | 약 300명 |



제3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젊은 그들의 새로운 방식 |
| 기간 | 2016년 9월 28일(수) ~ 30일(금) |
| 예산 | 총 92,041,051원(국고 81,642,051원 / 자부담 10,4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주일우(문학과지성사 대표) - 기획위원: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김학원(휴머니스트 대표), 김형보(어크로스 대표) |
| 참여국·인사 | 6개국 22명(해외 8명) |
| 참가인원 | 약 180명 |



제4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에디터의 귀환 |
| 기간 | 2017년 9월 18일(월) ~ 20일(수) |
| 예산 | 총 126,940,000원(국고 93,000,000원 / 자부담 33,94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고영은(뜨인돌 대표) - 기획위원: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김한청(도서출판 다른 대표),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소장), 한성봉(동아시아 대표) |
| 참여국·인사 | 4개국 20명(해외 3명) |
| 참가인원 | 약 180명 |



제5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독자가 궁금하다 |
| 기간 | 2018년 10월 4일(목)~6일(토) |
| 예산 | 총 126,940,000원(국고 93,000,000원 / 자부담 33,94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고영은(뜨인돌 대표) - 기획위원: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유성권(이퍼블릭 대표), 홍순철(BC에이전시 대표) |
| 참여국·인사 | 6개국 19명(해외 5명) |
| 참가인원 | 약 350명 |

※ 경기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11차 확진(2019.10.2)으로 2019년도 행사 전면 취소

제6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에디터 - 경계의 확장 |
| 기간 | 2020년 9월 3일(목)·19일(토) / 10월 15일(목)·31일(토) / 11월 5일(목)·21일(토) |
| 예산 | 총 130,000,000원(국고 100,000,000원 / 자부담 30,0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기획위원: 김진형(아카넷 편집장), 백창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북센터 전문위원), 심우진(주식회사 산돌 연구소장) |
| 인사 | 17명 |
| 참가인원 | 약 810명 |

프로그램

| | | |
|----------------------------------|----|---|
| 9월 3일 목요일 | | |
| 개회식 | | |
| 세션1. 기획하는 편집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판기획 | | |
| 주제강연 1 | 강연 | 출판기획의 뉴노멀 그리고 변치 않는 본질들 김진형(아카넷 편집장) |
| 주제강연 2 | 강연 | 책,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 통념을 부수는 출판기획 김서령(폴앤나 대표) |
| 주제강연 3 | 강연 | 편집자가 읽어야 할 독자의 마음 엄지혜(에스24 <월간 채널에스> 편집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어느 소녀의 협업 — 헤엄출판사를 굴리는 몸과 상상력 탐구 이슬아(헤엄출판사 대표) |
| 9월 19일 토요일 | | |
| 특별강연 | 강연 | 언택트 시대의 베스트와 스테디 그리고 물성 강창래(작가) |

| | | |
|----------------------------------|----|--|
| 포럼 | 패널 | 김진형(아카넷 편집장) 김서령(폴앤나 대표) 엄지혜(에스24 <월간 채널에스> 편집장) 이슬아(헤엄출판사 대표) |
| | 사회 | 장동석(출판평론가) |
| 10월 15일 목요일 | | |
| 세션2. 디자인하는 편집자 — 함께 만들기 | | |
| 주제강연 1 | 강연 | 표지와 브랜딩: 이전 책과 이후 책의 고리 황일선(민음사 미술부 부장) |
| 주제강연 2 | 강연 | 조판의 요소들: 글꼴, 정렬, 간격 신건모(디자인 스튜디오 포물러 공동대표) |
| 주제강연 3 | 강연 | 함께하라고 만든 디지털 도구 심우진(주식회사 산돌 연구소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편집 디자인 트렌드와 안티트렌드 김은지(디자인 스튜디오 개미그래픽스 대표) |
| 10월 31일 토요일 | | |
| 특별강연 | 강연 | 바뀐 것, 바뀌지 않은 것 정병규(북디자인) |
| 포럼 | 패널 | 황일선(민음사 미술부 부장) 신건모(디자인 스튜디오 포물러 공동대표) 심우진(주식회사 산돌 연구소장) 김은지(디자인 스튜디오 개미그래픽스 대표) |
| | 사회 | 정재완(사월의눈 북디자인) |
| 11월 5일 목요일 | | |
| 세션1. 기획하는 편집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판기획 | | |
| 주제강연 1 | 강연 | 마케팅 아는 에디터의 시대 홍영완((썬)북 대표) |
| 주제강연 2 | 강연 | 작은 출판사의 마케팅 하는 법 —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을 수밖에 이현화(혜화1117 대표) |
| 주제강연 3 | 강연 | 언택트 시대 메이저 출판사의 마케팅 — 영업을 하지 않는 마케터는 무얼 하나요? 변유경((썬)북이십일 키즈융합부문 마케팅본부 부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에디터가 알아야 할 마케팅 톨과 키워드 백창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북센터 전문위원) |
| 11월 21일 토요일 | | |
| 포럼 | 패널 | 홍영완((썬)북 대표) 이현화(혜화1117 대표) 변유경((썬)북이십일 키즈융합부문 마케팅본부 부장) 백창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북센터 전문위원) |
| | 사회 |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제7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 1학기: 에디터 브랜딩 - 2학기: 에디터 플랫폼 |
| 기간 | - 1학기: 2021년 6월 23일(수) ~ 25일(금) - 2학기: 2021년 9월 29일(수) ~ 10월 1일(금) |
| 예산 | 총 115,000,000원 (국고 10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기획위원: 김준섭(한겨레출판 문학팀 팀장), 김진형(아카넷 편집장), 선완규(천년의상상 대표) |
| 인사 | 19명(해외 1명) |
| 참가인원 | 약 403명 |

프로그램

| | | |
|-------------|----|---|
| 1학기 에디터 브랜딩 | | |
| 6월 23일 수요일 | | |
| 개회식 | | |
| 주제강연 1 | 강연 | 편집자의 길 — 할아버지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선완규(천년의상상 대표) |
| 주제강연 2 | 강연 | 편집자의 색 — 브랜드 없이 일하는 법 김준섭(한겨레출판 문학팀 팀장) |
| 6월 24일 목요일 | | |
| 주제강연 3 | 강연 | 편집자의 빛 — 나는 북디렉터(Book Director)입니다 이연실(문학동네 국내5팀장) |
| 특별강연 | 강연 |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려는 분들께 최인아(최인아책방 대표) |
| 6월 25일 금요일 | | |
| 주제강연 4 | 강연 | 편집자의 눈 미노와 고스케(《미치지 않고서야》 저자, 일본) |
| 포럼 | 패널 | 김보경(지와인 대표) 이진(사계절출판사 인문팀장) 남연정(드림큰에디터 대표) |
| | 사회 | 김진형(아카넷 편집장) |
| 2학기 에디터 플랫폼 | | |
| 9월 29일 수요일 | | |
| 개회식 | | |
| 주제강연 1 | 강연 | 콘텐츠 시대, 출판인은 '플랫폼'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김선욱(다산북스 뉴미디어팀장) |
| 주제강연 2 | 강연 | '읽기'와 '잇기' 사이에서 뉴스레터 보내는 마음 박혜강(에그브릭 발행인) |

| | | |
|------------|----|---|
| 9월 30일 목요일 | | |
| 주제강연 3 | 강연 | 플랫폼 시대의 종이잡지 편집하기 최지인(문학고지성사 편집1부 편집장) 신새벽(민음사 편집부 논픽션팀 과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북클럽, 우리들의 정서적 안전망 정현주(서점리스본&포르투 대표) |
| 10월 1일 금요일 | | |
| 특별강연 | 강연 | 어느 콘텐츠 매니저의 플라야힐 손현(토스 콘텐츠팀 매니저) |
| 포럼 | 패널 | 김영수(문학동네 문학3팀 편집부 과장) 이연대(스리체어스 CEO&Founder) 이화진((주)인플루엔셜윌라 오디오북 콘텐츠팀 부장) |
| | 사회 | 홍순철(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 |

제8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 1학기: 지속가능한 에디터 — 책 안의 모험, 책 밖의 모험 - 2학기: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 편집자의 협업 |
| 기간 | - 1학기: 2022년 6월 28일(화) ~ 30일(목) - 2학기: 2022년 11월 8일(화) ~ 11월 10일(목) |
| 예산 | 총 115,000,000원 (국고 10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기획위원: 김윤우·정지윤(출판공동체 편양 편집자), 김희진(돌고래출판사 대표), 홍순철(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 |
| 인사 | 19명(해외 1명) |
| 참가인원 | 약 370명 |

프로그램

| | | |
|----------------------------------|----|---|
| 1학기 지속가능한 에디터 — 책 안의 모험, 책 밖의 모험 | | |
| 6월 28일 수요일 | | |
| 개회식 | | |
| 기조강연 | 강연 |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외국으로 확장해가는 비결 우에키 노부타카((주)선마크출판 대표이사, 일본) |
| 주제강연 1 | 강연 | 나의 '출판 노동자' 해방일지 윤성훈(클레이하우스(주) 대표) |

| | | |
|-------------------------|----|---|
| 6월 29일 목요일 | | |
| 주제강연 2 | 강연 | 나는 왜 쓸데없는 짓을 했(하)나—회사 안팎에서 작당하기 성기병(다산북스 사업1팀 편집자) |
| 주제강연 3 | 강연 | 리커버—나로 돌아가기 강윤정(문학동네 국내문학1팀 차장) |
| 6월 30일 금요일 | | |
| 주제강연 4 | 강연 | 작품과 IP 사이, 편집자와 PD 사이 에디터의 새로운 길 찾기 임수선(문피아 웹툰사업팀 팀장) |
| 포럼 | 패널 | 김미래(쪽프레스·고트 편집장) 신우승(전기가오리 대표) 이정신(오월의봄 편집자) |
| | 사회 | 정지윤(출판공동체 편양 편집자) |
| | | |
| 2학기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편집자의 협업 | | |
| 11월 8일 수요일 | | |
| 개회식 | | |
| 주제강연 1 | 강연 | 편집자—독자와 함께 일합니다 최준란(㈜길벗 자녀교육서팀 편집부장) |
| 주제강연 2 | 강연 | 편집자—디자이너와 함께 일합니다 김경민(북디자이너·《날마다, 북디자이너》저자) |
| 11월 9일 목요일 | | |
| 주제강연 3 | 강연 |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일합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조아란(민음사 마케팅부 콘텐츠 기획팀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편집자—에이전트와 함께 일합니다 홍순철(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 |
| 11월 10일 금요일 | | |
| 특별강연 | 강연 | 편집자—저자와 함께 일합니다 정여울(작가·문학평론가) 홍보람(사계절출판사 인문팀 편집자) |
| 포럼 | 패널 | 이재현(위고출판사 대표) 장현정(㈜호밀밭 대표·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최진규(포도밭출판사 대표) |
| | 사회 | 김희진(돌고래출판사 대표) |
| | | |

제9회 파주 에디터스쿨

| | |
|-------|---|
| 주제 | 편집이라는 가능성—길을 내는 에디터 |
| 기간 | 2023년 8월 9일(수)·23일(수)/9월 6일(수)·20일(수)·23일(토) |
| 예산 | 총 115,000,000원(국고 10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원) |
| 기획위원회 | - 집행위원장: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기획위원: 사공영(유유출판사 편집장), 성기병(다산북스 사업1팀 편집자), 이옥란(출판커뮤니티 올차캠프 대표) |
| 인사 | 11명(해외 2명) |
| 참가인원 | 약 300명 |



프로그램

| | | |
|------------|----|--|
| 8월 9일 수요일 | | |
| 개회식 | | |
| 주제강연 1 | 강연 | 다니기 싫지 않은 회사, 일하기 나쁘지 않은 회사 함께 만들기 김경태(㈜출판사클 대표) |
| 주제강연 2 | 강연 | ISBN과 NO-ISBN을 넘나들며 있는 힘껏 행복해지기 양선화(지학사 단행본팀 북트리거 과장) |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김경태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후배에게 받는 스트레스 양선화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나의 전문성 |
| 8월 23일 수요일 | | |
| 주제강연 3 | 강연 | 내 주력 분야는 독자가 정합니다 윤세미(다산북스 엔터테인먼트본부 IP제품팀 팀장) |
| 주제강연 4 | 강연 | 나만의 월리를 찾아서—저자와 함께 성장하는 일 김보희(터틀넥프레스 대표) |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윤세미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가능성 김보희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관찰 |
| 9월 6일 수요일 | | |
| 주제강연 5 | 강연 | 플랫폼으로서의 UE: 방향·결집·사건 이로(유어마인드·언리미티드 에디션 운영자) |
| 주제강연 6 | 강연 | 독자가 출판사를 인지하고 기억할 때, 출판사가 독자를 믿고 할 수 있는 일들 사공영(유유출판사 편집장) |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사공영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확장 |

| | | |
|------------|----|--|
| 9월 20일 수요일 | | |
| 주제강연 7 | 강연 | 《책 풍경》 텍스트와 언어 너머 메시지의 세계 유지원(글문화연구소 소장) |
| 주제강연 8 | 강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루페와 망원경 민찬기(그림책공작소 대표) |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유지원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실험과 모색 민찬기 강연자 네트워킹 키워드: 탐색과 모색 |
| 9월 23일 토요일 | | |
| 폐회식 | | |
| 특별강연 1 | 강연 | 기획의 미로에서 함께 길 만들기 장강명(작가) |
| 특별강연 2 | 강연 | 미시마샤 이야기: 지금까지와 앞으로 미시마 쿠니히로(출판사 미시마샤 대표, 일본) |
| 특별강연 3 | 강연 | 미술, 어린이, 책 그리고 공간 피에트로 코라이니(출판인·그래픽 디자이너, 이탈리아) |
| 네트워킹 파티 | | |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는 경기도 시나리오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새롭고 다양한 영화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인 시나리오 집필 공간, 월 100만 원의 창작지원금, 멘토링과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기획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1년에 개소, 2023년까지 50명의 졸업 작가를 배출했으며 현재 파주시와 고양시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 | |
|-------|---------------------------------|
| 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1월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
| 예산 | 총 168,428,000원 ※전액 경기도 보조금 |
| 주최·주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 운영 | 출판도시문화재단 |
| 대상 | 경기도민 시나리오 작가 10명(1기 10명) |

프로그램

- 전문파트너(멘토링) 프로그램

- 활동 기간: 2021년 7월 28일(수) ~ 2022년 1월 27일(목) / 6개월
- 역할: 전문파트너 1인과 시나리오 작가 2인 매칭을 통한 시나리오 파트너십 활동
- 참여 전문파트너: 구정아(프로듀서), 김균희(프로듀서), 안상훈(영화감독), 육상효(영화감독), 정연식(영화감독)

- 시나리오 소재 개발 강연 프로그램

| 일자 | 강연자 및 강연 내용 |
|------------|--|
| 8월 31일(화) | 웹툰, 웹소설의 전성기 - 웹 IP의 거품과 황금 사이 정연식 영화감독, 만화가 한국 드라마의 해외 리메이크 가능성과 사례 분석: 드라마 <굿닥터>의 미국 리메이크의 도전과 성공을 중심으로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
| 9월 29일(수) | 시나리오 구조의 이해 육상효 영화감독 결단 - 의표를 찌른다는 것을 넘어 김신식 작가 |
| 10월 29일(금) | 시나리오의 실전 기획 개발 안상훈 영화감독, 상상필름 대표 저작권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가능성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BC에이전시 대표 |
| 11월 22일(월) | 작가는 왜 무대에 올라야 하는가?: 로그라인과 엘리베이터의 법칙 정명섭 작가 |
| 11월 25일(목) | 상업영화-드라마 인더스트리 內 필드 프로듀서 관점의 실질적 조언 박태준 프로듀서 |
| 12월 6일(월) | 피칭 개요와 원고 작성, 피칭의 완성과 방법, 최신 피칭 트렌드 분석 박은영 프로듀서 |

- 비즈니스 미팅 행사

- 일시: 2022년 1월 11일(화), 10:00 ~ 19:00
- 장소: 줌(Zoom)
- 행사내용: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파주 1기 작가의 작품 홍보와 비즈 매칭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운영
- 행사결과: 당일 온라인 미팅 총 160건, 추후 개별 미팅 총 46건
- 주요 참여사: CJ E&M, 쇼박스, 메가박스, 에이스메이커, 하이브미디어코프, 용필름, 명필름,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369, 고즈닉이엔티, 복오션, 카다리스튜디오, 와이랩 외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 출판사 등 총 48개사 참여



2022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 | |
|-------|----------------------------------|
| 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1월 |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
| 예산 | 총 218,500,000원 ※전액 경기도 보조금 |
| 주최·주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 운영 | 출판도시문화재단 |
| 대상 | 경기도민 시나리오 작가 20명(2기 10명, 3기 10명) |

프로그램

- 전문파트너(멘토링) 프로그램

- 활동 기간: [파주2기] 2022년 3월 1일(화) ~ 7월 31일(일) / 5개월, [파주3기] 2022년 8월 16일(화) ~ 2023년 1월 15일(일) / 5개월
- 역할: 전문파트너 1인과 시나리오 작가 2인 매칭을 통한 시나리오 파트너십 활동
- 참여 전문파트너
[파주2기] 강원숙(프로듀서), 김봉서(제작자), 김지연(프로듀서), 안상훈(제작자), 이수연(영화감독)
[파주3기] 강원숙(프로듀서), 박관수(제작자), 어지연(프로듀서), 이동하(제작자), 이진희(제작자)

- 시나리오 소재 개발 강연 프로그램

| 일자 | 강연자 및 강연 내용 |
|-----------|---|
| 3월 29일(화) | 영화 시나리오 기획에서 영화의 완성까지 신수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
| 3월 31일(목) | 강소(강소) 영화 김봉서 제작자, (주)엠펙처스 대표 |
| 4월 21일(목) | 투자 관점의 프로듀싱: 가장 새로운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것 다루기 김홍익 장르 전문 스토리 프로덕션 '안전가옥' 대표 |
| 4월 28일(목) |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파주' 2기 작품별 강화 포인트 멘토링 강원숙 프로듀서 |
| 5월 20일(금) | 팩트는 어떻게 드라마가 되는가? 고나무 실화 전문 스토리 프로덕션 '팩트스토리' 대표 |
| 5월 30일(월) | 시나리오 피칭이란 무엇인가? 김지연 PD 프로듀서, (주)크랭크업 영화사 대표 |
| 6월 16일(목) | 하나의 키워드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되기까지 김수진 제작자, (주)영화사비단길 대표 |
| 6월 23일(목) | 지원제 활용하여 상업영화 만들기 이수연 영화감독 |
| 7월 5일(화) | 영화 시나리오, OTT 시리즈 대본의 집필 과정 박은교 시나리오 작가 |
| 7월 14일(목) | 상상필름(주)과 함께하는 '모의 비즈니스 미팅' 안상훈 제작자, 상상필름(주) 대표 |
| 9월 13일(화) | 일제강점기 '경성'의 영상화 전략 전봉관 KAIST 교수 |
| 9월 15일(목) |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파주' 3기 작품별 강화 포인트 멘토링 강원숙 프로듀서 |

| | |
|------------|--|
| 10월 12일(수) | 영화 기획에서 배급까지 어지연 (주)쇼박스 기획 프로듀서 |
| 10월 17일(월) | 1부: How to Pitch 박은영 피칭 디렉터, (주)로케트필름 기획이사 |
| | 2부: What to Pitch 박은영 피칭 디렉터, (주)로케트필름 기획이사 |
| 11월 22일(화) | (제작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극장영화와 OTT 산업 진단 이동하 제작자, (주)영화사레드피터 대표 |
| 11월 29일(화) | 장르가 된 역사: 실화 소재 시나리오 창작 노하우 이지민 시나리오 작가 |
| 12월 6일(화) | 급변하는 영상산업, 어떤 이야기를 기획할 것인가? 박관수 제작자, (주)기린제작사 대표 |
| 12월 13일(화) |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폭력 관련법의 이해 김재희 변호사 |
| 12월 15일(목) | 각 멘티별 작품 전체 리뷰 및 방향성 제시: 작품별 투자자메이드 가능성 높이기 이진희 제작자, (주)씨앗필름 대표 |

- 비즈니스 미팅 행사(파주 2기)

-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0:00 ~ 19:00
- 장소: 줌(Zoom)
- 행사내용: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파주 2기 작가의 작품 홍보와 비즈 매칭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운영
- 행사결과: 당일 온라인 미팅 총 143건, 추후 개별 미팅 총 61건
- 주요 참여사: CJ E&M, 쇼박스, 메가박스, 에이스메이커, 하이브미디어코프, 용필름, 명필름,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369, 고즈닉이엔티, 북오션,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외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 출판사 등 총 50개사 참여

- 비즈니스 미팅 행사(파주 3기)

-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12월 22일(목), 10:00 ~ 19:00
- 장소: 줌(Zoom)
- 행사내용: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파주 3기 작가의 작품 홍보와 비즈 매칭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운영
- 행사결과: 당일 온라인 미팅 총 206건(파주3기 129건), 추후 개별 미팅 총 29건(파주3기 18건)
- 주요 참여사: CJ E&M, 쇼박스, 플러스엠, 에이스메이커, 하이브미디어코프, 용필름, 명필름,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369, 고즈닉이엔티, 북오션,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외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 출판사 등 총 48개사 참여



2023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 | |
|-------|----------------------------------|
| 기간 | 2023년 2월 ~ 12월 |
| 예산 | 총 228,200,000원 ※전액 경기도 보조금 |
| 주최·주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 운영 | 출판도시문화재단 |
| 대상 | 경기도민 시나리오 작가 20명(4기 10명, 5기 10명) |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내용: 전문파트너 1인, 시나리오 작가 2인 매칭을 통한 시나리오 파트너십 활동
- 활동 기간: [파주4기] 2023년 2월 15일(수) ~ 7월 14일(금) / 5개월, [파주5기] 2023년 7월 27일(목) ~ 2023년 12월 26일(화) / 5개월
- 참여 전문파트너
[파주4기] 김성환(제작자), 박관수(제작자), 어지연(프로듀서), 이연희(감독, 작가), 이지영(제작자)
[파주5기] 김성환(제작자), 김철용(프로듀서), 오진석(드라마·시리즈 감독), 이지영(제작자), 이진희(제작자)

- 창작개발 교육과 특별강연 프로그램

- 내용: 시나리오 소재 개발 등 도움을 주는 영화·영상 분야 전문가 교육과 인문·비즈니스 등 영화·영상 이외의 전문 분야 특별강연 오프라인 진행
- 장소: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2층, 5층 미팅룸, 3층 운영실
- 운영 결과: 총 16강(월 평균 2회씩 10개월간 진행, 단강 형태)

| 일자 | 구분 | 프로그램명 | 강연자 | 참석현황 |
|--------------------|--------------|------------------------------------|----------------------------|------|
| 2월 27일(월) 오후 2시 | 오픈데이 특별강연 | 장르를 활용한 시나리오 쓰기 | 장윤현 (감독) | 7명 |
| 3월 28일(화) 오후 3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고독死회 - 당신과 나의 외로움을 넘어서 | 김완 (특수청소부, 에세이스트) | 15명 |
| 4월 13일(목) 오후 3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ChatGPT의 시대, 대안적 서사의 기획과 구성 | 윤성호 (감독, 각본가, 크리에이터) | 9명 |
| 4월 24일(월) 오후 2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SF 아이디어, 이렇게 얻고 이렇게 써보자 | 곽재식 (작가, 공학박사) | 13명 |
| 5월 24일(수) 오후 2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그들은 왜 미술품을 거래할까? - 미술시장과 미술품 바로 알기 | 한혜미 (작가, 아트딜러) | 8명 |
| 6월 1일(목) 오후 3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여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황정아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 8명 |
| 6월 21일(수) 오후 2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오리지널 OTT 시리즈 기획, 어떻게 해야 통할까? | 문지영 (드라마·시리즈 작가) | 14명 |
| 6월 29일(목) 오후 2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각 멘티별 작품 전체 리뷰 및 방향성 제시 | 이지영 (제작자, ㈜트릭스터 대표) | 4명 |
| 8월 14일(월) 오후 2시 | 오픈데이 특별강연 | 공유하는 법을 공유하면, 공유를 만날 수 있다 | 위소영 (드라마·시리즈 작가) | 9명 |
| 9월 14일(목) 오후 3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팩트는 어떻게 드라마가 되는가? | 고나무 (팩트스토리 대표, 논픽션 작가) | 8명 |

| | | | | |
|---------------------|--------------|------------------------------------|--------------------------|----|
| 9월 22일(금) 오후 3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콘텐츠 피칭 교육 프로그램 | 김지연 (PD, 크랭크업필름 대표) | 8명 |
| 10월 11일(수) 오후 2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OTT가 Pick한 콘텐츠 | 황혜정 (티빙TVING 경영자문) | 8명 |
| 10월 17일(화) 오후 2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밈은 장르영화와 구분할 수 없다 | 김경수 (밈 비평가, 미디어 연구자) | 6명 |
| 11월 15일(수) 오후 3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무속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옛날과 현재 무당의 차이 | 오서산애기보살 / 수진보살 (무속인) | 8명 |
| 11월 29일(수) 오후 2시 | 기획개발 특별강연 | 각 멘티별 작품 전체 리뷰 및 방향성 제시 | 이지영 (제작자, (주)트릭스터 대표) | 5명 |
| 12월 21일(목) 오후 3시 | 소재개발 특별강연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너머의 정신의료 바라보기 |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5명 |

※ 오픈데이 특별강연, 소재개발 특별강연의 경우 파주/고양 입주·졸업 작가들도 청강할 수 있는 공개 강연으로 진행

- 4기 비즈니스 미팅 행사

- 일시: 2023년 7월 5일(수) ~ 7월 6일(목), 10:00 ~ 19:00
- 장소: 온라인 줌(Zoom) 회의
- 내용: 경기스토리작가 창작소 파주 4기 작가의 작품 홍보와 비즈 매칭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운영
- 행사결과: 당일 온라인 미팅 총 106건(38개사), 추후 개별 미팅 총 32건(12개사)
- 주요 참여사: CJ E&M, 메가박스플러스엠, 명필름, 쇼박스, 스튜디오드래곤, 영화사비단길, 키이스트, 팬엔터테인먼트 외 영화 제작사 및 투자사 등 총 40개사 참여

- 5기 비즈니스 미팅 행사

-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 12월 7일(목), 10:00 ~ 19:00
- 장소: 온라인 줌(Zoom) 회의
- 내용: 경기스토리작가 창작소 파주 5기 작가의 작품 홍보와 비즈 매칭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운영
- 행사결과: 당일 온라인 미팅 총 143건(40개사), 추후 개별 미팅 총 23건(13개사)
- 주요 참여사: 바른손이앤에이, 빅오션이엔엠, 씨제스튜디오, 엠픽처스, 영화사레드피터, 와이랩플렉스, 키이스트 외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 등 총 47개사 참여

국제 북시티 그림책 어워드

‘북시티 국제 그림책 어워드’는 국내외 그림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도서를 선정하고, 유망한 신인 작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국제 교류행사다. 그림책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두 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그림책의 가치를 발견하고,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2023 국제 북시티 그림책 어워드

| | |
|-----------|---|
| 공모 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8월 27일(일) |
| 심사 일시/장소 | - 1차: 2023년 9월 12일(화) / 지지항 5층 회의실 - 2차: 2023년 9월 25일(월) / 지지항 5층 회의실 |
| 시상식 일시/장소 | 2023년 10월 27일 15시 / 대회의실 |
| 전시 일시/장소 | - 특별교류전: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12일(일) / 대회의실 - 후속전시: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21일(목) / 지혜의숲2 |
| 예산 | 총 115,000,000원 (국고 100,000,000원 / 자부담 15,000,000원)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심사위원 | 김지은(아동문학평론가), 유준재(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이경국(그림책 작가), 한미화(출판평론가, 어린이책 평론가) |
| 접수 | - 국제: 6개 대륙 15개국에서 총 33권 작품 - 국내: 출판도시 입주 출판사 11곳에서 총 17권 작품 |

결과

| 구분 | 도서명 | 작가 | 국가 |
|-------------|---|--|------|
| 국제 그림책 신인상 | O Duelo 결투 | Inês Viegas Oliveira 이네스 비에가스 올리베이라 | 포르투갈 |
| | Привет, Москва! 안녕, 모스크바! | Tanya Borisova 타냐 보리소바 | 러시아 |
| | Mariedl, Une histoire Gigantesque 마리들, 거대한 이야기 | Laura Simonati 로라 시모나티 | 이탈리아 |
| 북시티 그림책 신인상 | 나의 빨간 공 | 서은영 | 대한민국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주요 공간 운영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출판도시의 지원공간이자 성장 동력 구실을 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이하 아시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0,960㎡ 규모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2000년 10월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병윤 건축가가 설계한 아시아센터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가 돋보이는 건물로, 2004년 제14회 김수근 건축문화상을 받았다.

심학산 자락에서 갈대셋강으로 이어지는 건물의 위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수중 도시와 지상 도시의 전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붉은색 내후성 강판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목재로 구성된 건물의 외장은 계절마다 다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건물이 떠 있는 갈대셋강은 출판도시의 모태로서 자연친화적인 책마을의 이념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반영한다.

아시아센터는 전시, 공연, 박람회, 심포지엄 같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대규모 대관시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아시아광장, 이벤트광장, 물의정원을 비롯한 야외 공간에서는 연극, 음악회, 조각 전시회 등이 열려 예술가들에게는 창조의 공간으로, 대중에게는 휴식의 자리로 그 기능성과 심미성을 주목받고 있다.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라운지 ‘문발살롱’과 모든 이의 서재 ‘지혜의숲’은 영화, 드라마, CF, 각종 잡지 촬영 장소로 애용되며,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각을 글과 삶을 증만하게 만드는 문화가 함께 있는 곳,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자연과 도시, 책과 문화, 건축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공동체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과정

1994년-1998년 센터 건립 준비

- 1994. 04.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계획(안)' 제출
- 1995. 05. 01.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간 프로그램 수립
- 1996. 05. 문화시설 추진계획 대책안 수립
- 1997. 07. 30. (가칭)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본계획 구상 수립
- 1998. 12. 01.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창립총회

1999년-2004년 센터 건립

- 2000. 03. 26. 전라도 정읍 김명관 고택 이건 후 상량식
- 2001. 06. 1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 2003. 0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단계 교육연구동 완공
- 2004. 06. 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단계 전시정보동 완공

2005년-2013년 편의시설 확충

- 2005. 02. 05.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국 오픈(전시정보동 3층)
- 2006. 02. 출판도시 정보도서관, 어린이책예술센터 개관
- 2007. 04. 18.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오픈

2014년-2018년 복합문화공간 개관

- 2014. 06. 19. 지혜의숲 개관
- 2016. 05. 01. 북소리서점 오픈
- 2017. 07. 29. '김소월 시의 다리' 완공, 기념음악회 개최
- 2017. 09. 30. 출판산업체험센터 개소
- 2018. 11. 활판인쇄박물관 개관

2019년-2024년 출판문화 지원 거점화

- 2019. 07. 15. 출판도시문화재단 15주년 백서 출간기념회
- 2019. 08. 09. 출판창업보육센터 개관
- 2019. 12. 19. 세종지혜의숲 개관
- 2020. 05. 30.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라운지 문발살롱 리뉴얼 오픈
- 2021. 09. 02. 경기관광공사 '경기 유니크베뉴' 선정
- 2021. 10. 23. 갤러리 지지향 오픈
- 2022. 10. 14. 문발식당 입점
- 2023. 07. 06.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
- 2023. 10. 30.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 선정
- 2023. 12. 18. 카페&와인바 리파크(LEEPARK) 입점
- 2024. 01. 출판도시 역사자료관 개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 현황

교육연구동이 먼저 착공되어 2002년 12월 24일에 완공되었다. 전시정보동은 그해 8월 14일에 현장 설명회를 거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3년 2월에는 그동안 서울 강남 신사동 사무국을 왕래하면서 업무를 보던 조합 사무국을 아시아센터 교육연구동으로 이전했다.

그 시기부터 출판도시의 실질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아시아센터 대회의실에서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는 방문객이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자 안내 기능까지 겸하는 공간으로 카페 인포떼끄가 문을 열었다. 2006년에는 출판도시 정보도서관과 어린이책예술센터, 레스토랑 다이닝 노을이 오픈했다.

2007년에는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이 준공됨으로써 아시아센터 전체 건립이 착공 7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동안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공간이자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공간으로서 더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출판산업체협센터를 시작으로 활판인쇄박물관, 출판창업보육센터 등 출판문화 체험 전문 시설이 차례로 개관했다. 2020년에는 지혜의숲 3관으로 사용되던 지지향 라운지를 투숙객 전용 공간 문발살롱으로 리뉴얼하고 갤러리 지지향의 전시 공간을 확충했다. 또한 한식 전문 문발식당, 카페&와인바 리파크가 입점하면서 일반 방문객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으로도 출판과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일반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 보완하여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간 사용 주요 단체 현황

-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실: 전시정보동 3층
-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산업체협센터: 교육연구동 3층
- 한국산업단지관리공간 파주 지사: 교육연구동 2층
-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박물관: 교육연구동 2층
-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 교육연구동 1층, 지하 1층
- 영업장: 나인블럭 출판도시점, 카페 파스쿠찌, 문발식당, 카페&와인바 리파크, 기업은행 파주출장소, 북소리책방, GS25 출판도시점
- 유관 단체: EPH커뮤니케이션(주), (주)에스원, (주)에프엘시스템, SK브로드밴드, (주)파이브모바일, (주)아시아, HWGA어학원, 타임기획, 도서출판 인간과복지, 사회복지책마을(교육연구동 1·2층)

건축 및 이용 현황

- 시설 현황
 - 토지: 준공업지역, 지원시설구역, 문화시설용지 17,926㎡(5,422평)
 - 건물: 21,451.74㎡(6,489.15평, 2018년 8월 교육연구동 지하 1층 활자의숲 증축 포함)
 - 교육연구시설 19,027.37㎡(5,755.78평, 88.7%)
 - 근린생활시설 2,424.37㎡(733.37평, 11.3%)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紙之鄉은 '종이 예술의 고향'을 뜻한다. 지지향은 인류가 종이로 만든 가장 가치 있는 예술품, 즉 책이 태어나는 출판도시의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다.

지지향에서는 TV를 무의식적으로 틀어놓고 휴식이 아닌 휴식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객실마다 출판도시 안내서와 함께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수준 높은 양서, 최근의 우수 도서 등을 비치하여 독서가 주는 참된 휴식을 제공한다.

지지향은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낭비를 줄이고 출판도시의 철학을 담은 생활문화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지향은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의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곳에 묵음으로써 어린이책잔치, 파주북소리, 출판도시 인문학당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깊이 있는 문화적 사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세상을 잇고자 한다.



개요

- 건축 면적: 5,841.66㎡(약 1,767평)
- 건축 규모: 지상 5층
- 객실 수: 총 79객실
- 시공 기간: 2006년 4월~2007년 4월

지지향 층별 안내

| | |
|----|---------------------------------------|
| 5F | 객실 501~522 / 콘퍼런스룸 05 |
| 4F | 객실 401~422 / 미팅룸 04 |
| 3F | 객실 301~322 /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집필실과 운영실 |
| 2F | 객실 201~213 / 콘퍼런스룸 02 / 문발식당 |
| 1F | 프린트, 문발살롱, 카페&와인바 리파크, 기업은행, GS25 편의점 |
| B1 | 지하주차장 |

객실 현황

| 구분 | 크기 | 정원 | 타입 |
|-----------------|-------------|----|---------|
| Twin Regular | 29.75㎡(9평) | 2명 | 싱글베드 2개 |
| Twin Superior | 33.05㎡(10평) | 2명 | 싱글베드 2개 |
| Korean Regular | 29.75㎡(9평) | 3명 | 온돌 |
| Korean Superior | 33.05㎡(10평) | 3명 | 온돌 |
| Triple Regular | 29.75㎡(9평) | 3명 | 싱글베드 3개 |

객실 공통시설

클레이션 서가, 냉난방 시스템, 냉장고, 와이파이, 샴푸, 컨디셔너, 보디샴푸, 핸드워시, 타월, 비데, 헤어드라이어

대관시설 현황

• 대규모 회의실

| 구분 | 크기 | 수용 인원 | 시설 현황 |
|------|--------------|---------|---|
| 다목적홀 | 1,157m(350평) | 최대 500명 | 빔프로젝터(6000ANSI), 스크린, HDMI, 유·무선 MIC, 화이트보드 |
| 대회의실 | 439m(147평) | 최대 250명 | HDMI, 유·무선 MIC, 화이트보드 |

• 소규모 회의실

| 구분 | 크기 | 수용 인원 | 시설 현황 |
|----------|--------------|--------|---|
| 컨퍼런스룸 02 | 77.7m(23.5평) | 최대 30명 | 빔프로젝터(4000ANSI), 스크린, HDMI, 유선 MIC, 화이트보드 |
| 미팅룸 03 | 32.7m(9.9평) | 최대 10명 | LCD TV, HDMI, 화이트보드 |
| 미팅룸 04 | 32.7m(9.9평) | 최대 10명 | LCD TV, HDMI, 화이트보드 |
| 컨퍼런스룸 05 | 61.2m(18.5평) | 최대 20명 | 빔프로젝터(4000ANSI), 스크린, HDMI, 유선 MIC, 화이트보드 |

• 기타 시설

| 구분 | 크기 | 수용 인원 | 시설 현황 |
|-------|--------------|--------|---|
| 문발살롱 | 445.9m(135평) | 최대 80명 | 빔프로젝터(6000ANSI), 스크린, HDMI, 유·무선 MIC, 화이트보드 |
| 역사자료관 | 351m(106평) | 최대 50명 | 빔프로젝터(6000ANSI), 스크린, HDMI, 유·무선 MIC, 화이트보드 |
| 서호정사 | 330.5m(100평) | - | - |



수치로 보는 지지향

지지향 총이용객수 | 2007년~2023년

총 **341,915명**



단체 약 181,133명



개인 약 160,782명

지지향 총이용객실수 | 2007년~2023년

총 **171,742객실**



단체 약 92,881객실



개인 약 78,861객실

지지향 회의실 총 이용 건수 | 2007년~2023년

8,587건

지지향 회의실 총 이용금액 | 2007년~2023년

약 **2,589,086,340원**

지지향 프로모션 운영현황 | 2020년~2023년

약 **30개 상품**



지혜의숲

지혜의숲은 종이책을 보존·보호하고 그 가치를 다시 활용해 국민 독서문화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6월 19일에 개관했다. 연면적 1,176평 규모의 공간에는 출판사를 포함해 학자, 연구자, 기관 및 단체가 기증한 약 15만 권의 책이 배가되어 있다.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종이책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독서환경을 제공한다.

지지향 고객 만족도

(2021년~2023년, 지지향 투숙객 6,000여 명 대상)

1. 지지향의 전반적인 서비스에는 만족하셨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42% | 44% | 8% | 5% | 1% |

2. 지지향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홈페이지 | 지인 소개 | 재방문 | 인터넷 | 인스타그램 / 기타 |
|------|-------|-----|-----|------------|
| 10% | 25% | 25% | 35% | 5% |

3. 지지향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 워크숍(비즈니스) | 출판도시 견학 및 체험 | 지혜의숲 관람 | 기타(여행·휴식·독서) |
|-----------|--------------|---------|--------------|
| 54% | 8% | 6% | 32% |

4. 지지향은 독서와 휴식을 하기에 적합한 분위기였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65% | 32% | 3% | 1% | 0% |

5. 문발살롱에서 운영 중인 메뉴와 전체적인 서비스에 만족하셨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38% | 41% | 20% | 1% | 1% |

6.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
|-----|----|
| 97% | 3% |



공간 개요

- 개관: 2014년 6월 19일 개관
- 바닥 면적: 총 1,176.2평
- 서가 길이와 면적: 3.1km(서가 375평)

| 구분 | 지혜의숲1 | 지혜의숲2 | 문발살롱(前 지혜의숲3) |
|-------|---------------------------------|---------------------------------|------------------------------|
| 바닥 면적 | 1,159.76m ² (350.8평) | 1,360.68m ² (411.6평) | 1,368m ² (413.8평) |
| 장서 규모 | 약 5만 권 | 약 8만 권 | 약 2만 권 |

• 기증한 주요 출판사

거북이북스, 경세원, 경인문화사, 계수나무, 궁리, 기문당, 김영사, 노란돼지, 느낌보, 다락원, 다산북스, 돌베개, 동아시아, 동화기술, 뜨인돌, 마음산책, 문예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 박영사, 범우사, 보리, 북스토리, 북하우스, 비룡소, 사계절, 살림, 서광사, 성안당, 시공주니어, 쌤앤파커스, 여원미디어, 열린책들, 열화당, 웅진씽크빅, 인간사랑, 작가세계, 작가정신, 재승출판, 지경사, 지식산업사, 창비, 천재교육, 청년사, 청아출판사, 토마토하우스, 풀과바람(바우슬), 한경BP, 한길사, 한울 외

• 기증한 주요 유통사

교보문고, 북센, YES24 등

• 학자·연구자등 개인 기증자

구충회(전 멕시코 대사), 김경봉(서초어린이도서관 관장), 김신수(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장), 김신(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김안제(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연호(전북대 영문과 명예교수), 나인균(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박관용(제16대 국회의원), 박우규(전 SK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박원호(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서범석(대진대 국문과 명예교수), 석경징(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 오경희(백석문화대 중국어학부 교수), 우정하(국민대 명예교수), 유진태(재일 역사학자),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윤석금(웅진그룹 회장), 이기용(고려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두영(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이병남(전 LG 인화원 원장), 이병혁(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준일(중앙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이형(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흥기(전 KBS 보도제작국장),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순근(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 정규섭(전 관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명환(전 서울대 불문과 교수), 차균현(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최민홍(전 중앙대 철학과 교수), 한경구(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승욱(숭실대 국문과 명예교수), 홍진경(미술사학자)

• 기증 단체(박물관, 연구소, 기관 등)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학박물관, 서울대 서울대학교병원 외 의학박물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학중앙연구원, 화폐박물관 등



기타 자료

| 연도 | 방문객 | 권독사 / 일반 자원봉사 | 후원금 | 문화관리비(누적) |
|------|--------------|------------------------------|---|-------------------------|
| 2015 | 연방문객 40만명 | 권독사 봉사 31명 | - | - |
| 2016 | 연방문객 60만명 | 권독사 봉사 34명 | 누적기부금 7,203,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126명 가입) | 113팀 방문/ 3,860,000원 |
| 2017 | 연방문객 40만명 | 권독사 봉사 33명 일반 자원봉사 1,274명 | 누적기부금 13,922,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103명 가입) | 323팀 방문/ 10,465,000원 |
| 2018 | 연방문객 40만명 | 권독사 봉사 21명 일반 자원봉사 1,351명 | 누적기부금 18,790,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96명 가입) | 583팀 방문/ 19,982,000원 |
| 2019 | 연방문객 40만명 | 권독사 봉사 7명 일반 자원봉사 857명 | 누적기부금 23,434,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73명 가입) | 762팀 방문/ 28,722,000원 |
| 2020 | 연방문객 25만명 | 권독사 봉사 7명 일반 자원봉사 496명 | 누적기부금 28,406,500원 (지혜의숲 친구들 63명 가입) | 770팀 방문/ 29,023,000원 |
| 2021 | 연방문객 25만명 | 권독사 봉사 7명 일반 자원봉사 451명 | 누적기부금 30,799,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55명 가입) | *코로나19로 단체방문 중단 |
| 2022 | 연방문객 25만명 | 권독사 봉사 7명 일반 자원봉사 745명 | 누적기부금 33,895,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54명 가입) | 799팀 방문/ 30,203,000원 |
| 2023 | 연방문객 25만명 | 권독사 봉사 6명 일반 자원봉사 775명 | 누적기부금 36,748,000원 (지혜의숲 친구들 52명 가입) | 868팀 방문/ 32,486,000원 |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람, 사람들!

출판도시문화재단에는 5개의 부서와 33명의 직원이 있다.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축제, 인문학 강연, 교육 프로그램, 전시 등 문화예술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촬영을 연결하며 전문 연수시설로서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곳곳히 처리해 나간다. 일을 하면서 으레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동시에 몰려오는 고단함과 긴장감 사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출판도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미디어지원팀, 시설지원팀 그리고 지지항팀과 함께 그 일의 기쁨과 애환을 들춰보고 공감하며 진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경영지원팀

박병철 실장, 황범석 차장



Q.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 소개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실장 | 출판도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에서 국고지원사업 정산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병철입니다. 경영지원팀은 회계·경리·총무·인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범석 차장 | 황범석입니다. 저는 재단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요. 박 실장님을 도와 각종 신고 업무, 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출판도시 또는 출판도시문화재단과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박병철 실장 | 원래 저는 출판단지조합으로 입사했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출판단지조합과 재단이 한 조직처럼 운영되었는데, 조합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재단은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단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황범석 차장 | 저는 2013년 8월에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인턴으로 출판도시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파주북소리 축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기간도 길어서 행사만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따로 존재했어요. 축제 준비 기간부터 정리하는 기간까지 3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파주출판도시에 첫발을 들였죠.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출판단지조합 지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출판도시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도시의 일원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1월 지금의 출판도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출판도시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3개 조직을 경험하고 있네요.

Q. 두 분 모두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만큼 입사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출판도시문화재단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더불어 일하는 내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

합니다.

박병철 실장 |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시간을 인간의 일생으로 보면 청소년기인 10대를 지나 이제 막 20대인 청년기에 접어든 거잖아요.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달라진 저의 모습이라..... 저는 나이가 들어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요.(웃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뜰하고 노련하게 살릴 수 있는 여유를 얻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요. 어느 한쪽이 더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저와 재단이 비슷한 속도와 일정한 호흡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황범석 차장 | 제가 느끼는 재단의 변화는요, 근무 환경이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 내 문화가 수직적인 경향이 강해서인지 출판도시도 그런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조금은 경직되고 긴장된 분위기, 위계질서가 철저했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서 간 호흡이 맞춰지고, 시대적인 문화가 변하면서 직원들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지인들과 대화해보면 우리 재단은 수평적인 문화가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출판도시에서만 3개 조직을 경험한 덕분에 출판도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에 빨리 적응하는 법도 터득했구요. 저 역시 재단이 성장하듯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출판도시 그리고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황범석 차장 | 지금은 북카페 콘셉트의 대형 카페가 많지만 지혜의숲을 처음 조성했던 시절에는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의미로 충격적인 공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찾아와야 하는 곳을 언제든지 누빌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또한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에 이 공간이 아름답게 노출되었을 때 뜻깊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2>에 지혜의숲이 출판사의 북카페로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혜의숲이 멋지게 나온 드라마라 추천드립니다.



Q. 경영지원팀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단의 살림살이를 위해 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박병철 실장 |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거요.(웃음) 무슨 일이든 바로바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대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공유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서로 의견을 나누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어떤 역할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안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참 좋은 거죠.

Q. 살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랫동안 맞춰온 두 분의 호흡에는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범석 차장 | 아무래도 박 실장님이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실장님 의견을 여쭙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제 의견과 일하는 방식을 많이 존중해주시고요. 그래서 박 실장님과 갈등이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갈등이라면 입맛이 달라서 점심 메뉴 선정할 때마다 자주 부딪치는 정도?

다만,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벌써 사회생활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나 원칙이 사람들의 다양성까지 반영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조직 간의 갈등, 직원 간의 갈등을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좀 더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왕이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Q. 출판도시문화재단 경영 관리 책임자로서 현재 느끼시는 재단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박병철 실장 | 재정의 안정화요. 음, 무거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재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숲,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과 각종 문화사업을 앞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독립적인 재원 확충과 정부 지원금의 균형·안정화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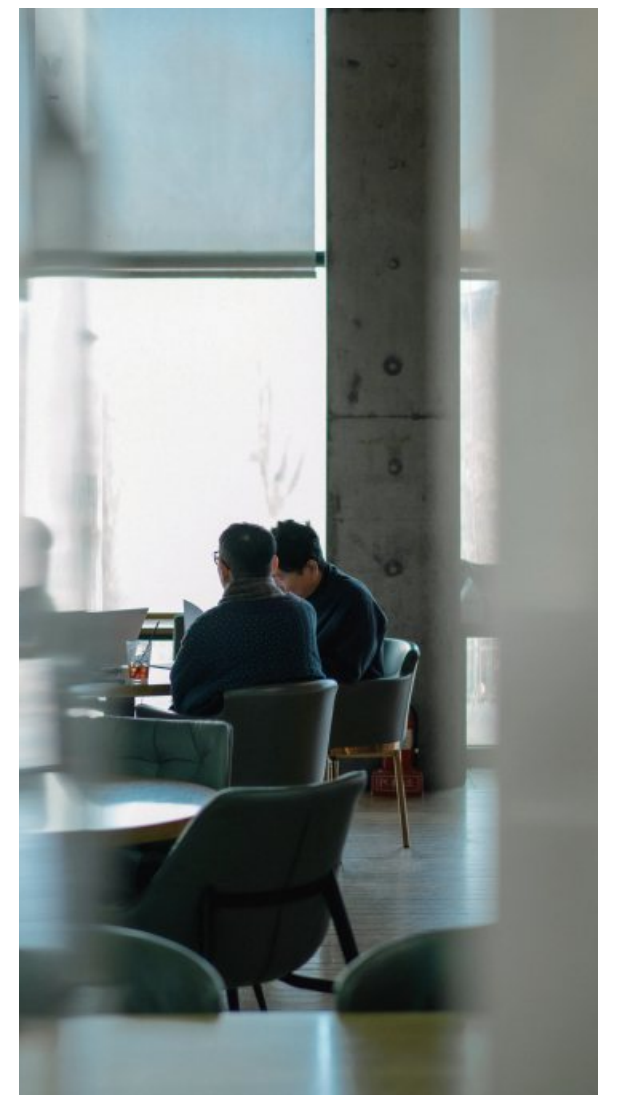
우리 재단처럼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로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단이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부침이 심한 편이고 수익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이라 재정 안정화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Q. ‘내가 만약 다른 부서의 팀원이라면?’을 상상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황범석 차장 | 저는 기획홍보팀에서 일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사실 그때를 떠올려보면 기획·홍보 업무도 재미있게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

요. 성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조직을 구성할 때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로 비유해보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공격수뿐만 한 팀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어야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재단도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부서와 뒤에서 받쳐주는 부서도 있는 것이죠. 제 성장상 재단의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이끌어가는 기획홍보팀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정돈하는 경영지원팀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상상만 해보고 끝낸 적이 있었죠.



Q.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바라시는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박병철 실장 |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사업과 공간을 운영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중심성, 질적 특성화, 활성화입니다. 파주출판도시를 문화 콘텐츠 생산 중심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문화 콘텐츠를 위한 영감과 정보 획득, 동기를 부여하며 방문자가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함으로써 감동을 일으키는 문화자산의 확장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꾸준히 기록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면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아, 물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출판도시'란?

황범석 차장 | 출판도시의 매력은 무심함에서 오는 다정함이 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 도시에 들어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고 나면 이상하게 이 도시를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풍성한 녹음과 서로 어우러지는 건물들,

심학산을 등지고 한강과 나란히 흐르는 듯한 도시의 지형이 이곳만의 특별한 여유로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한껏 산뜻하고 다정하게 감싸주는 기분이 들어요. 동네 밥집이 딱 그렇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항상 그 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만들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네, 출판도시는 저에게 동네 밥집이자 나만 알고 있는 맛집 같은 곳입니다.

박병철 실장 | 저도 비슷해요. 동네 사랑방처럼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곳이죠. 동네 사랑방은 사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잖아요. 출판도시 또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가진 사람도 계속 찾아오는 사랑방 같아요. 출판도시가 자리 잡은 이곳의 주소가 문발동인데요, 글자(文)가 피어나는(發)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출판도시가 이곳 문발동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도시 곳곳에서 이야기가 피어오르며 책과 책을, 책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팀

오은지 팀장, 강새미·류연진·엄현희 대리, 박상현 주임, 천슬기 매니저



Q.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기획홍보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은지 팀장 | 안녕하세요. 기획홍보팀 오은지입니다. 기획홍보팀은 파주출판도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고 출판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지혜의숲 운영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해당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크고 작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책과 출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연결하고 엮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출판도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입사를 희망하셨던 이유는 무엇 인가요?

오은지 팀장 | 개인적으로 지혜의숲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책과 자연에 둘러싸인 풍경에 반해버렸는데요. 출판도

시의 아름다움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전 직장에서도 줄곧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재단 기획홍보팀의 구인 공고를 발견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웃음)

Q. 팀장님은 기획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오은지 팀장 | 기획홍보팀에서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사업을 담당하는 팀원들과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Q. 입사 전 상상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비슷하지 않지도 궁금합니다.

오은지 팀장 |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입사 전에는 단

순히 '책'과 관련된 이벤트와 업무를 맡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입사하고 보니 책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화콘텐츠의 연계성과 밸런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출판도시라는 공동체의 특이성도 늘 고려해야 하고요. 언제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Q. 올해로 재단에 입사하신 지 7년 차인 류연진 대리님, 기획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류연진 대리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라이브러리스테이지향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재단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인 '파주 에디터스쿨(예비·현직 출판인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류연진 대리 | 근무하는 매 순간이 기쁨과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게 아찔했던 순간인데요. 제가 재단에 입사한 지 1년 차 되었을 즈음 담당했던 사업의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당해 연도 행사를 취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담당자로서 맡게 된 첫 사업에 대한 열정과 욕심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잘해내고 싶었던 마음과 아직은 모든 일이 익숙하지 않아 긴장했던 몸이 한순간에 확 풀리더라고요. 허무했어요.

그렇다고 저를 위해 시간이 멈춰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미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야 했어요. 섭외를 완료했던 분들과 계약 맺은 외부 업체들,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처리 업무를 하나씩 하고... 감당하기 버거웠던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과 경험이 있었기에 저도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Q.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 같은 파주출판도시 축제 행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엄현희 대리 | 참신한 기획과 안정적인 운영, 적극적인 홍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모든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당해 연도의 축제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두 축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 20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책 문화 축제가 생겨났잖아요.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만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방문객들의 높아진 기대에도 부응해야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축제에 담아낼 수 있는 주제 메시지가 잘 기획되면 이후 운영 준비 과정이 즐겁고 원활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파주출판도시에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축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엄현희 대리 |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 담당자로서 두 축제 각각 세 번의 기획과 운영 업무를 담당해왔는데요. 아쉬운 점과 어려운 점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파주출판도시 곳곳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되는 축제를 그려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파주출판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온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에 집중해서 두 축제를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

습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동료분들 모두가 출판도시의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지혜의숲 운영을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강새미 대리 | 지혜의숲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인데요. 지혜의숲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서가가 출판사나 개인이 기증한 도서들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여러 단체에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큰 규모의 공간을 채울 수 있었지요. 다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훼손, 분실되는 도서가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 큰 변화를 주며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엮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와 서가, 콘텐츠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차츰 변모하는 지혜의숲을 기대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Q. 지혜의숲 방문객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강새미 대리 | 학생 시절부터 지혜의숲을 좋아해 들려주시다가 성인이 되어 '지혜의숲 권독사(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혜의숲이라는 공간 덕분에 독서 습관을 길렀고, 이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권독사를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혜의숲과 나란히 성장했다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지혜의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Q.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홍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박상현 주임 | SNS 채널 운영도 그렇지만 시도하는 모든 기획에서 저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좋아해온 것 등 경험에서 영감을 얻곤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꽤 있는 편인데요. 그 순간의 좋아하는 감정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두었다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재단 SNS 공식 계정 콘텐츠 중 하나인 <기획홍보팀 막내 일기>도 동료들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마 출판도시문화재단에는 이렇게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혜의숲 신간코너> 콘텐츠는 사실 지혜의숲에 기증해주시는 다양한 신간 도서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했습니다.(웃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담으니 재밌게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재단 SNS 계정을 구독하시며 많은 팔로워분들이 사랑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콘텐츠도 궁금합니다.

박상현 주임 | 앞서 말씀드린 두 콘텐츠는 제 애증의 콘텐츠인데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다른 큰 행사와 겹치면 업로드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행사 홍보 콘텐츠와는 별개로 꾸준히 연재 가능한 이야기를 꾸리고 싶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죠. 앞서 했던 콘텐츠를 라이트한 방식으로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홍보팀 홍보 파트 동료인 슬기 매니저님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어요. 더 나아가 책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 그리고 파주출판도시와 가까워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Q. 출판도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은지 팀장 | 기획홍보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파주출판도시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주고 싶은 매력적인 행사를 끊임없이 선보이고 사람들이 파주출판도시에 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여 방문객분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제공해드리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누구든 파주출판도시에 가면 왠지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Q. 기획홍보팀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오은지 팀장 | 지금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문화행사도 눈여겨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셨으면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획 업무를 하는 데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레퍼런스를 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공부해가며, 우리의 행사도 힘을 모아 즐겁게 준비하길 바라요.

Q. 출판도시문화재단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재단에서 일하며 나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20년 후의 출판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오은지 팀장 | 근무 환경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위치적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출판도시 활성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 출판도시를 위해 일하고, 출판도시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잘 품고 같이 성장시키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출판도시가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앞다투어 찾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류연진 대리 |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위해 늘 노력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며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동료들과 같이 의견 나누어보며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인지, 자꾸 허기가 진다고 해야 할까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욕심이 생기는 마음은 스스로 계속 발전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만족할 저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특히 동료와 함께 협업하는 방법을 아주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혼자 성과를 내야만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했죠. 사실 재단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분위기, 촘촘히 업무 분장을 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팀원 전체가 투입되는 과정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일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고 조율해가는, 그 과정의 재미를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구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실무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니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활력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을 때의 뿌듯함도 훨씬 크고요. 동료들끼리 의지하는 동시에 어떤 때에는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저희 모두가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후의 출판도시 모습이라니... 당장 1년 뒤의 제 모습도 잘 모르겠는데요.(웃음) 그래도 상상해보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시골벽적인 축제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책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이곳 파주출판도시에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도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즐지어 방문하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지요!

강새미 대리 | 출판도시 자체가 여유롭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환경 덕분에 일하면서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일하다 지치거나 힘든 순간이 올 때 잠시 산책하면서 심학산을 보거나 셋강을 바라보면 심적으로 위로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무하는 데 주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꽤 크구나!’ 늘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근무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기획홍보팀이다 보니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강연자 이야기를 들을 때 흥미로워요.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획홍보팀 동료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희 팀 모두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편이거든요. 협력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함께 일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아요. 입사 초기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많이 단단해진 것 같고요. 스스로 꽤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웃음)

그리고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판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출판도시가 오후 6시만 지나면 정말 어둡고 고요하거든요. 20년 후에는 평일 저녁에도 방문객들이 많아져서 상권도 더 활성화하고 복잡복잡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

보자면 파주출판도시가 국제적으로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엄현희 대리 | 파주출판도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도시의 사계절을 모두 좋아하고요. 20년 후에도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간직하며, 찾는 사람이 많고, 열린 가게가 많고, 다니는 차가 많고,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성과가 많은 출판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현 주임 | 근무 만족도라고 하면 여러 지표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기획홍보팀 팀원들이 너무 좋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일도 일상이잖아요. 한 주 중 5일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고, 부모님보다 더 자주 팀원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 공간과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일상과 업무의 전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가 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저의 첫 직장인데요. 사람마다 ‘첫 직장’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제게는 제가 사랑하는 것이 잔뜩 있는 설레는 공간이었어요. 동시에 처음 하는 일투성이인 만큼 미숙한 점이 몹시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동료분들에게 배우며 조금씩 자라왔다고 생각해요. 입사 초기의 저를 생각하면 아찔하게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제가 부끄러워질 만큼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20년 뒤에는..... 그동안 도시를 방문해주신 분들이 독자가 되고 또다시 독자가 되고를 거듭하면서 독자가 무한히 많은 도시, 동시에 독자가 사랑하는 도시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천슬기 매니저 | 파주출판도시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무척이나 사랑하는 도시였던 터라 근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아름다운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문화사업 기획과 홍보 업무 자체도 보람 있고 즐겁다고 느끼며 일하고 있는데요. 기획홍보팀 동료분들과 서로 아끼주고 다독여주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근무 만족도에 아주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마주치는 재단분들이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시면 그 따뜻함에 없던 힘도 생기요!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분들 모두 제게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동료분들 모두 일상 속에서 업무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받고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SNS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출판도시를 알게 되어 들려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게 느껴져요. 2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도시를 사랑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엄청 많겠지요? 많은 분들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판도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일들을 꾸려보겠습니다.

미디어지원팀

정지훈 팀장, 맹주현 대리



Q.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지훈 팀장 | 안녕하세요. 미디어지원팀 정지훈입니다. 2018년 초에 입사해 미디어지원팀에서 일한 지 벌써 6년 차가 되었네요. 맹주현 대리와의 5년째 함께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팀장을 맡아 행정적인 업무와 함께, 맹 대리와 교대하며 현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맹주현 대리 |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지원팀 맹주현입니다. 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근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주로 촬영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미디어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정지훈 팀장 | 미디어지원팀은 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업 촬영을 담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 촬영 장소를 처음 찾는 순간부터,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종료 후 철수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저희 팀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맹주현 대리 | 미디어 업계에는 '로케이션'이라 불리는 하나의 촬영 방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외 촬영지 또는 장소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섭외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촬영팀마다 있죠. 저희는 역으로 로케이션이 필요한 촬영팀에 출판도시 안에 있는 여러 공간을 소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미디어지원'이나 '로케이션'이라는 업무·역할이 일반인에게 익숙한 단어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출판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정지훈 팀장 |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미디어나 방송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로케이션 업무에 관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도 있었죠. 취준생일 때 미디어팀 팀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면접 전에 출판도시를 잠깐 방문했어요. 도시를 한 바퀴 산책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원래도 혼자 산책하기를 좋아하지만, 출판도시는

유독 고즈넉하고 건물들도 예쁘잖아요. 이런 곳에서 평소 관심 있던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맹주현 대리 | 저는 사실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출판도시도 몰랐고요. 다만 면접 볼 때부터 팀원들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사옥도 마음에 들었고요. 정 팀장님과 달리 입사 직후부터 이 공간과 일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된 거죠. 예상한 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았고, 일하면서 새로 만나거나 연결되는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업무 특성상 출판도시 곳곳을 방문하고 알아가다 보니 출판도시도 좋아졌죠.

Q. 미디어지원팀은 낯선 사람을 재단의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많이 만나는 팀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조율하는 데 어려운 적은 없었나요?

정지훈 팀장 | 팀 특성상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저희 고객이 자 동료가기도 하잖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덜 힘든 것 같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인연이 생기기도 하고요.

맹주현 대리 | 정 팀장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아요. 일하는 내내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주신 선배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를 업어 키우셨죠.(웃음) 지금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적절하고 현명하게 응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Q. 지금까지 일하며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정지훈 팀장 | 출판도시문화재단의 미디어지원팀이 일반 미디어 업계의 로케이션과 조금 다른 점은, 방송국이나 촬영팀 외에 출판도시 입주사의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점입

니다. 6년 차 정도가 되니 이제는 출판도시를 떠나서 볼 수 없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는데요. 그중 보진재에서 근무하셨던 부장님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보진재는 역사만 100년이 넘었고, 출판도시에도 초창기인 2002년에 입주한 인쇄소입니다. 인쇄·물류 공장은 촬영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계속 발생해서 촬영이 어렵죠.

그런데 당시 보진재 부장님은 촬영 요청이 들어가면 회사 측에 조금 무리하게 요구해서라도 저희 팀 제안을 많이 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제작사에서 정말 만들고는 싶지만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을 보진재에서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연세와 연륜이 있다 보니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보진재가 사라지면서 부장님도 출판도시를 떠나셨는데, 부장님도 저도 서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맹주현 대리 | 출판도시가 처음 촬영지로 역할을 할 때, 광고·CF 촬영 쪽에 조금 더 집중했거든요. 저는 입사 직후부터 일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죠. 그때 로케이션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조남철 부장님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닌데도 저를 회사 후배 대하듯 데리고 다니며 공간 변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공간은 이렇게 보면 수실실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호텔 로비가 될 수도 있다는 다양한 시각을 그분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사부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Q. 두 분 답변을 들으니 두 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새삼 실감 나네요. 기억에 남는 촬영이나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지훈 팀장 | 기억에 남는 촬영은 사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촬영이 아닐까요? 2020년 여름, 갤럭시 광고 촬영이었습니다.

맹주현 대리 | 아, 왠지 그 촬영을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정지훈 팀장 | 저희 둘이 촬영 후에도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부를 런웨이 무대로 꾸

며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야간 촬영으로, 2박 3일 동안 꼬박 밤을 새워가며 진행한 큰 촬영이었어요. 촬영 내내 커다란 강풍기를 틀어두고, 필름지를 작게 조각내서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딱 촬영 마치고 나서 '이제 진짜 끝이다!' 하며 좋아했는데, 이게 웬걸.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조각난 필름지들이 정말 과장 안 하고 다리 건너에서까지 발견될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두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청소업체를 부르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이 발 벗고 나서주셨는데도 며칠을 필름지 치우느라 몹시 고생했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송출되어 나온 영상을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광고가 방송업계에서도 화제였다는 이야기를 후문으로 들으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촬영이죠.



맹주현 대리 | 그러면 저는 좀 덜 힘든 이야기를 할게요. 출판 도시에 20회 이상 오는 팀들이 있는데요. 드라마 중에서도 연속극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이 자주 사용되고 회차가 많다 보니 정말 꾸준히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보다 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KBS 연속극 <여름아 부탁해>가 기억에 남네요. 자주 만난 만큼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낯설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제가 그 팀의 스태프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재단 직원처럼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막상 작품에는 공간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지만 저희는 다 알죠. 그 공간이 어딘지, 어떻게 찍은 건지. 이렇게 자주 보고 오래 지켜본 촬영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Q. 두 분께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

정지훈 팀장 | 제게 '일의 기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쁨은 동료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작게는 저랑 맹 대리와의 팀워크인 거죠. 이게 어떤 거창한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단순하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물론 비슷하지만, 성격이나 가치관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 다른 부분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즐거운 그 시간들이 곧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슬픔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 업계가 사실 어느 사업보다도 경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아무리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많은 작품이 쏟아진다 해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송 편성도, 광고나 영상 제작 자체를 안 하거든요. 어떤 해 또는 어떤 분기에 저희가 '유독 촬영 문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게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모두 힘든 시기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씩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슬픔이라면 슬픔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맹주현 대리 | 저한테는 기쁨과 슬픔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출판도시에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도시, 함께 일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쁨인데,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슬픔이 되기도 해요.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때가 되어 떠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제가 해온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이나 번아웃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곁에 있는 좋은 동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해요. 일에서 느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면 반성을 많이 합니다.) 번아웃이 온 게 최근이라 아직 정확한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니지만, 올해 저는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냉수마찰을 하는 것처럼요! 추운 날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응대하면서 마

인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슬픔을 슬기롭게 이겨내려고 합니다.

Q. 일할 때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두 분만의 원칙이 있나요?

정지훈 팀장 | '원칙'이라는 단어와 반대편에 있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신 'FM 내에서의 융통성', 기본이 갖춰진 융통성인 거죠. 저희 업무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여러 상황이 유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흐름에 휩쓸려 저희조차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일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도 변동이 너무 많다 보니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때일 수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대신 그 융통성 안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원래 어떻게 하는 일인지 기본을 곱씹으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생각보다 빨리 고민이 해결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거였네!' 하는 거죠.

맹주현 대리 | 저도 정 팀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해요. 입사 초반에 저는 그야말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씀하신 '융통성' 속에서 저를 잘 잡아주고 다독여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죠.

팀장님 말씀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루틴' 그리고 '신뢰'예요. 제게 이 두 가지는 같은 뜻이기도 한데요. 제가 업무를 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루틴이 있어야 동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이렇게나 잘 다독이며 잘 가르쳐주신 분인데, 이런 분의 신뢰가 깨진다면 저한테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루틴 안에서 순서나 시간이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루틴이 잘 잡혀 있어야 저도 제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동료도 그걸 알고 저를 믿어줄 수 있는 거죠.

Q.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일해오셨는지 눈앞에 그려주세요. 미디어지원팀은 현재 재단에서 팀 인원이 가장 적은 부서이기도 한데, 두 분이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힘을 맞추어온 과정도 궁금합니다.

정지훈 팀장 | 저는 맹 대리에게 고마운 게 많아요. 사실 저희는 나이도 연차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저

를 사수라 여기며 배우려고 애쓰면서 이렇게까지 잘 따라와준 덕분에 지금껏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일과 개인 생활의 분리가 비교적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회사에서는 해야 할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짐이 맹 대리하고 일하면서 바뀌었어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업무 이야기를 해도 재밌고, 업무 외의 이야기를 해도 재밌고요. 지금도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제일 재밌는 시간은 점심시간에 맹 대리랑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거든요.

맹주현 대리 | 저는 정 팀장님을 대학교 선배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그런 선배 있잖아요. 시험 졌다 다 알려주고, 술 사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엄청 멋지고 좋은, '좋아하는 선배'요.

무엇보다, 정말 저를 회사 안에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합을 맞춰온 과정이라기보다, 정 팀장님께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시고, 제게 맞춤형 지도를 해가며 트레이닝 시켜주신 거죠. 축구로 치면 히딩크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골을 넣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Q. 두 분 모두 재단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입사했을 때와 지금은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지훈 팀장 | 바뀐 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사원으로 입사해서 팀장이 됐고, 미혼이었다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죠. 시설팀 여사님들이나 대장님들께서 ‘재단이 (너를) 어른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웃음)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맹주현 대리 | 저도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이나 상황보다도 내면의 변화가 많았어요. 덕분에 심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으니 ‘완성’되었다고 여긴 거죠. 돌이켜보면 한창 철부지였는데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 팀장님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만큼 클 수 있었죠. 미성숙했던 인간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Q.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시에 우리를 바꾸는 출판도시는 두 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정지훈 팀장 | 제게 출판도시는 찍힌 적 없는 필름이 담긴 오래된 카메라 같아요. 출판도시는 이미 30여 년 전에 출판인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도시에서 상업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여전히 무궁무진한 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찍히지 않은 장소, 새로운 구도나 시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장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오래되었지만 언제라도 새 필름을 넣어서 새로운 장면을 찍을 수 있는 도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맹주현 대리 | 조금 낮간지러울 수 있지만, 저한테 출판도시는 그냥 사랑이에요. 제가 지구 평화나 이런 걸 외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출판도시가 제게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유로에서 출판도시로 진입할 때, 도로가 한 번 내려갔다 가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그 구간을 지날 때 <해리 포터>가 생각나요. 호그와트에 갈 때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진입해야 하잖아요. 거길 지나면 마법처럼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요. 주인공 해리가 부모님이 남겨둔 사랑이 곳곳에 있는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는 출판도시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으로 가득한 공간이요. 그러니 출판도시가 사랑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꿈,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지훈 팀장 |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출판도시 내의 장소만을 배경으로 한 상업영화를 찍고 싶다.’ 물론 이미 출판도시의 역사가 담긴 다큐멘터리도 있고, 상업영화나 드라마 속에도 출판도시가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출판도시 로케이션’으로만 구성된 상업영화를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출판도시에는 필요한 공간들이 다 있어요. 막혀 있거나 섭외하기 어려워서 촬영이 쉽지 않은 공간들도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출판도시 안에 다 있거든요. 없는 장소를 찾기가 더 힘들 만큼요.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곳과 너처럼 꿈이 있는 감독을 만나면 가능하겠다’라고 대답해주더라고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모두 출판도시 속 공간이고 제가 그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럴 때 느끼는 뿌듯함과 기쁨은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으로는 어려우니 저희와 출판도시의 로케이션이 지닌 역량을 더 키워야겠죠.

맹주현 대리 | 은퇴 후에 제가 상상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글 쓰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제 루틴에 맞는 동선이 그대로 있는 공간이요. 예를 들면 집 안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웃음)

또 하나는, 조금 전 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났는

데요, 출판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써야겠어요. 사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글을 써서 등단하는 것이거든요. 극본을 써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쓰고 정 팀장님과 방향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역시 저희는 정말 멋진 관계예요!

시설관리팀

백선 실장, 조영돈 경비대장



Q.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얼마나 일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선 실장 | 안녕하세요. 2002년 10월부터 출판도시에서 근무해온 시설관리팀의 백선입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경비대장 | 안녕하세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방재실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시설관리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백선 실장 | 사람의 오장육부는 상호 협조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서,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겨도 아파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각각의 시설물도 사람으로 치면 하나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

다. 이를 전문용어로 T&I(Turn Around & Inspection) Shut Down 정비작업이라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정기 개방검사 정비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시설관리팀입니다. 시설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예방적 업무로 자산가치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영돈 경비대장 | 출근하면 먼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 층을 순찰하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방재실로 돌아와 대기하는데, CCTV를 보면서 각 시설을 점검하기도 하고 방재실을 찾는 전화가 오면 그에 맞춰 안내하거나 대응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맞춰 센터 내 난방과 냉방을 조절하고, 일반 보안 업무와 택배 업무도 보면서 중간중간 또 센터를 순찰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이러한 업무를 3명이 로테이션으로 맡고 있습니다.

Q. 실장님께서서는 출근하시면 거의 현장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이 유가 있으신가요?

백선 실장 |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 또한 다른 곳이 아닌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용객의 시설물 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개선할 점을 챙겨보고, 묵묵히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고객의 생생한 요구사항도 전달받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Q. 그래서 평소 방재실과 센터 곳곳에서 직원들과 함께하고 계신 실장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군요?

백선 실장 | 팀의 성장과 발전은 그 안의 구성원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팀원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고, 센터 전체로는 시설물의 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께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일하고 싶은 팀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기반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와 '의리' 그리고 '책임'입니다.

Q. 구성원들 사이의 '배려'와 '의리' 그리고 '책임'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다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시설 관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요?

백선 실장 | 20년이 되다 보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시설 상당수가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설물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기 때문에, 시점에 맞는 처방과 조치는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자산가치를 높임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에서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예방적 유지관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설관리팀이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해져 시스템화 작업을 추진하려 하고요.

최근 기상이변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도 상시 정비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하고 안전과 관련된 장비와 비품은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장비가 이용객과 직원의 안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크게는 파주출판도시 전체의 안전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Q. 대장님께서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방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다 보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실 것 같은데요, '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요?

조영돈 경비대장 |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시.긴.장!'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항시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해온 많은 일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혹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지요.

조영돈 경비대장 | 노후화된 시설과 연관된 사건 사고 등 몇몇 순간이 기억나는데, 특히 센터에서 발생했던 두 번의 화재가 떠오르네요. 각각 이벤트광장과 물의 광장의 방부목재가 타는 사건이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로 발견해서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초동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담배꽂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는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해서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께도 꼭 주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백선 실장 | 2007년도에 지하 수변전실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처리까지 1년 정도가 걸린 아찔했던 사고였죠. 119에 신고하고 들어간 지하 수변전실에 연기가 짙 차 있었는데, 팀원과 함께 그동안의 정비 기억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했습니다. 그 이후 출동한 소방서에서 마무리했고, 저와 팀원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터 1층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아찔했습니다.

Q. 지금 다시 생각해도 뿌듯했던 순간은요?

조영돈 경비대장 | 그날그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휴게실에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백선 실장 | 해마다 준비한 축제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방문객이 찾아주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을 때 뿌듯함을 느껴요.

Q.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요.

조영돈 경비대장 | 아무래도 지혜의숲과 지지향 등 센터 내 시설 대부분이 365일 상시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협조 없이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팀원 모두가 힘쓰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Q.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찾는 많은 분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설에 놀라워하시는데요, 건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용객을 위하여 센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살짝 귀띔해주실 수 있나요?

조영돈 경비대장 |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요?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방문객들이 접근하기에 위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은 원래 혼자서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다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지혜의숲 2관 서가 열람석을 특히 좋아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재단의 미래 20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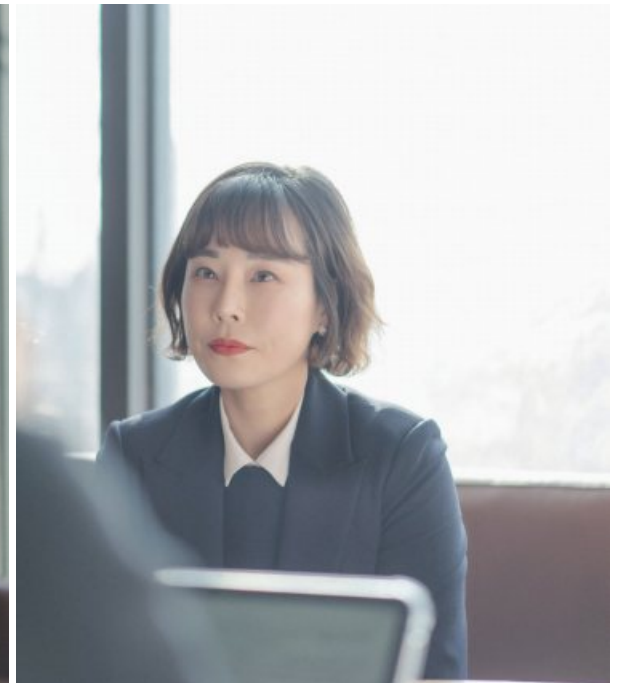
조영돈 경비대장 | 앞으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20년을 계속 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해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센터와 출판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 실장 |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임제 의현의 말씀 중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제 가치관 중의 하나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도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 모두 정해진 위치에서 각자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일한다면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고, 재단과 도시의 발전도 이끌어 멋진 문화예술 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팀

이근영 팀장, 김예진 매니저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근영 팀장, 김예진 매니저 |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영, 김예진입니다. 저희는 복합문화공간인 지지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원활한 행사와 휴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근영 팀장 | ‘중이의 고향’이라는 뜻이 담긴 지지향은 기업의 연수·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인이 체험 숙박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로비는 책장으로 채워져 있고, 객실에는 TV 대신 서가와 고서가 구비되어 있어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출판도시와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근영 팀장 | 처음부터 서비스직을 꿈꾸진 않았어요. 내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원래 전공은 운동이거든요. 진로를 고민

하던 시기에 우연히 호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프런트에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는 친구의 모습이 꽤 인상 깊었어요. 그 뒤로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무관해서 그런지 호텔에 입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고배를 마시다가, 운명처럼 지지향 입사 공고를 발견하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입사하게 되었고요. 연을 맺은 때가 2009년이니, 올해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김예진 매니저 | 아버지께서 책을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책과 인연이 꽤 깊었는데요.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웃음)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출판도시와 지지향이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퇴사 후에 취업 준비를 하다 우연히 지지향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지지향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지향 분위기

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입사 후에 지지향이라는 공간이 더욱 좋아졌어요. 제 인생의 제2막 1장을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지지향에 도착하면 책과 나무 그리고 커피향이 저를 반겨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Q. 팀장님께서 입사하신 지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사 당시와 비교해 현재 지지향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이근영 팀장 |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지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벽면이 책장이 아닌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겨울에는 더 추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차가워서 그런지 그때는 방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2014년에 지혜의숲이 개관하면서 지금과 같은 서가가 조성되고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출판도시 방문객도 많아졌고요. 초창기 출판도시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따뜻해졌어요. 덕분에 지지향의 겨울도 따뜻해졌고요. 이제는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웃음)

Q. 업무에서도 변화한 점이 있나요?

이근영 팀장 | 업무적인 변화도 있었죠. 예전에는 '연수시설'에 초점을 맞춰 단체 고객 중심의 영업과 시설 운영을 담당했는데, 지혜의숲 덕분에 개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개인 고객을 다루는 업무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객마다 다양한 니즈(needs)가 있어서 다른 부분이 꽤 있거든요. 고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맞춤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저희 업무의 폭도 넓어졌는데, 그 점이 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Q.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김예진 매니저 |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있어요. 입사 초기에 야간 근무로 정말 지쳤던 날이었어요. 저의 고단함을 읽으셨는지, 투숙객분께서 편의점 다녀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신 적이 있어요. 고된 하루였는데 큰 위로를 받아서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받은 아이스크림은 아직도 먹지 못하고, 지칠 때마다 들여다보게 되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근영 팀장 | 저는 기억에 남는 손님보다는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지지향 팀원들과 함께했던 첫 1박2일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부서 특성상 팀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요. 팀원들이 한창 힘들어하던 시기에 사기를 북돋워주고자 팀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연중무휴 스케줄 근무로 인해 팀원 전체가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서분 여럿이 삼삼오오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팀원끼리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요. 돈독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Q. 지지향팀 또는 지지향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매력이 지지향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예진 매니저 | 공간이 주는 힘 때문인지, 지지향은 따뜻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느껴요. 저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웃음) 따뜻한 고객분들 덕분에 저도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저희를 많이 챙겨주셔서 더욱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영 팀장 | 지지향의 매력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지지향을 알고 방문해주는 분들이야말로 저희를 꽃피워 주시는 분들이죠. 고객분들이 없었다면 저희 지지향도 없었을 테니까요.

Q. 지지향에 오시는 방문객분들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근영 팀장 | 다들 겸손하고 점잖으신 편인 것 같아요. 손님인데도 오히려 직원인 저희를 더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예진 매니저 |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 그런지 확실히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도서 대출 목록 작성 방법을 도와드리거나 명부를 교체할 때 체감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래 주로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곤 하시는데, 학생 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지지향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Q.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김예진 매니저 | 저는 평소에 리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지지향에 근무하면서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팀워크가 좋아서 그런지, 누가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 일하는 것도 잘 맞더라고요. 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입사 전에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래에는 지인들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따뜻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근영 팀장 | 성격 아닐까요? 예전의 저를 돌이켜보면, 내향적이고 좀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으로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곳을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도 이제는 타인의 처지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전반적으로 성격이 유해진 것 같아요. 고맙다는 표현을 받으면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지지향 팀워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근영 팀장 | 팀워크 비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부서 특성상 직원들에게 팀워크를 강조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팀워

크가 100% 좋은지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웃음) 저희는 현재 '첫 단추를 꿰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제 5개의 단추를 서로 맞춰나가며 방향성을 찾아가는 중이죠. 그럼에도 굳이 비결을 찾아본다면, 직원들이 저마다 성격도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 이런 다양한 특성이 오히려 일할 때는 서로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일하시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근영 팀장 | 입사 초기에는 객실이나 대관 예약을 전화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내용을 전화로 문의하셨는데요. 전화벨이 얼마나 많이 울리던지, 쉬지 않고 울리는 벨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이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몸에 배어서 그런지 따로 직업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예진 매니저 | 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줄 근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뵙는 분들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Q. 처음 오시는 방문객분들께 지지향 이용 꿀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예진 매니저 | 문발식당에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문발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뒤로는 끼니를 잘 챙기게 됐어요. 밥이 정말 맛있어서 한 번 맛보시면 또 방문하게 되실 거예요.

이근영 팀장 | 센터의 모든 공간이 포토 스팟이긴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5층 중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5층 객실을 이용하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숨은 명소 같은 곳이거든요. 중정은 특히 해가 질 때 가면 정말 멋져요. 지는 노을을 바라보거나 사진을 촬영하기에 최고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지향을 방문하신다면, 꼭 5층 중정에서 멋진 사진을 건지시길!

Q. 나에게 출판도시란?

이근영 팀장 | 저에게 출판도시란 제 꿈을 이뤄준 소중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역력이 된다면, 계속 출판도시에서 저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김예진 매니저 | 출판도시에는 저에게 놀이공원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그 마음 그대로 퇴근하거든요. 출판도시 자체가 설렘과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놀이공원 같은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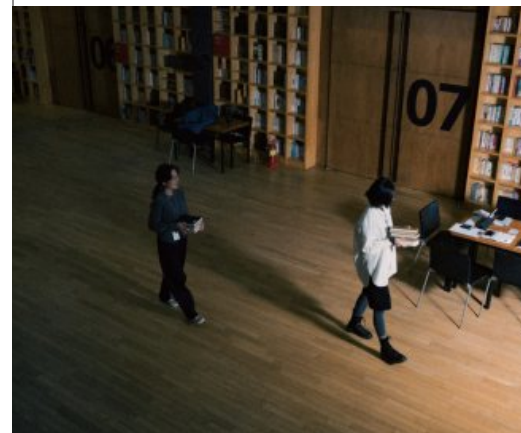
Q. 앞으로 20년 후의 출판도시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요?

이근영 팀장 | 저희 재단에서 기획하는 페어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축제의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문화행사가 꾸준히 개최된다면 그만큼 출판도시 방문객이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2의 지지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예진 매니저 | 국내 유일의 문화 콘서트홀이 되지 않을까요? 책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 있을 것만 같아요. 지지향 역시 다양한 문화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더욱 북적일 테고요.

Q. 지지향 팀원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근영 팀장 | 다들 지금 잘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차, 영차 하면서 재미있게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하다 보면 지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서포트해주고 다독이면서 이겨내는 원 팀(One Team)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뚝뚝한 편이라 말로 자주 전하진 못하지만, 팀원 한 명 한 명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서포터즈 出 1기 이현풍 | 2022.07.09.

오늘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으로 뽑혀 귀한 자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파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출판단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덜컥 붙어버려서, 마치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한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브랜드만 보고 살다가 이런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니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만학도 같은 느낌이랄까요?

출판도시에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아틀리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했는데 그런 기회가 정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머무는 공간에 저희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역시 브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지만, 더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지만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시기적절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어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는데 웬지 모르게 이 서포터즈 활동이 그 시작이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 여름에 아이를 데리고 파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름 카메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출판도시에 있는 보물, 지혜의숲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달이의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는데, 가끔 그걸 보고 정말 좋아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도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는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 봄까지 모두 시리즈로 제작해야 했지만, 아틀리에를 준비하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그새 의사 표현이 명확해질 정도로 자라서 데리고 다니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재밌어졌습니다. 아틀리에에 와서 물감놀이 하는 것도 좋아



아빠가 된 저는 아이의 모습을 파주 여기저기서 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집중된 사진도 많지만 저는 거대한 풍경 속에 작고 소중한 아이가 있는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시간이 머무는 풍경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 혼남성의 시선에서 지금은 아빠가 된 평범한 아저씨가 만들어낸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가 모여서 (SNS나 다른 채널에 기록되는 모든 형태의 사사로운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는 중요한 사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달이의 계절’은 곧 2021년의 여름을 지냈던 우리 모두의 풍경일 것입니다. 미 소플레테는 그런 작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브랜드로서 파주라는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출판도시라는 로컬을 배경으로 삼아 한 가족의 마음의 섬유질이 수련거리는 소리를 기록하는 패밀리 아틀리에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제가 서포터즈가 된 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계획하지 못했던 일인데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여내보겠습니다.

모든 작고 소중한 로컬 브랜드, 미 소플레테!

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이지만 일부러 아이의 자리를 마련해둔 까닭은 아이에게 손이 하는 일의 감수성과 쾌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 소플레테’(‘나의 햇불’이라는 뜻)의 첫 번째 정체성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머무는 공간, 즉 패밀리 아틀리에입니다. 이 공간에서 후손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무엇이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문화. 출판도시에 아틀리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도시가 주는 분위기와 의도가 미 소플레테라는 브랜드와 결이 맞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출판도시, 크게는 파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미 소플레테’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는 이 지역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접점이 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시기에 태어났지만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시대 의식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감 같은 게 제 안에 조금 있나 봅니다.



서포터즈 출 1기 이아영 | 2022.07.12.

2022 출판도시문화재단 서포터즈 발대식

매일 밤샘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던 2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였는데, 내향적 성향이 강한 나는 평소 소극적 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원할 때는 솔직히 경험이 부족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인가? 걱정이 컸다.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파주출판도시와 내가 사랑하는 책과 함께하는 공간 그리고 내가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서포터즈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서포터즈에 합격하여 지난 토요일 발대식에 다녀온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에게 파주는 아주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자주 왔던 공간으로,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인 만큼 기대를 품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파주출판도시에 도착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대식 장소에 도착하니 매니저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친절하고 매우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떨림이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바뀔 수 있었다.

발대식에서 파주출판도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파주출판도시 곳곳을 돌아보며 직접 설명을 들었다. 이를 통해서 파주출판도시가 단순히 아름답고 유익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 있는 좋은 취지 아래 설립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단한 투어 이후에는 출판도시 인문학당 강연 <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는 건축물에는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잘 묻어나 있다는 점이 기억이 남았고, 새삼 나만의 공간인 내 방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기도 했다. 이렇게 건축과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점이 많은 강연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 서포터즈들에게 모두 나눠주신 굿즈 꾸러미를 열어봤다. 키링과 엽서, 문구를 비롯한 다양한 굿즈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렇게 파주출판도시를 직접 방문해보니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낭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멋진 도시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것 같다.

앞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파주출판도시를 좋은 공간으로 기억하게끔 열심히 애써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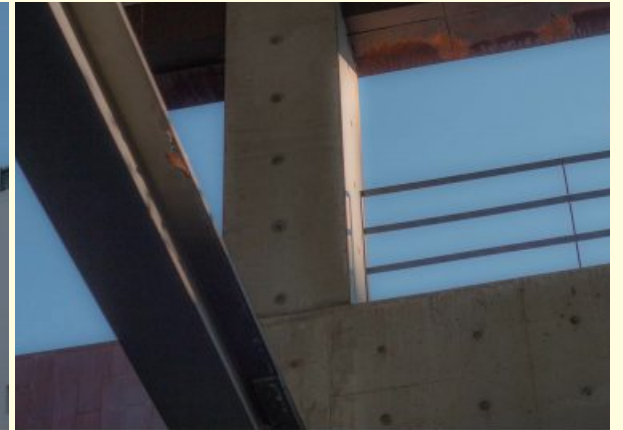
서포터즈 出 2기 오운영 | 2022.12.29.

지난주 목요일에는 혼자 파주에 다녀왔다. 문발동에 있는 출판도시에 가기 위해서였다. 새벽에 내린 눈 때문에 날이 몹시 쌀쌀했지만 파주라는 도시 곳곳에 스민 겨울의 일렁임을 목도한 순간 출다는 감각은 금세 잊혔다. 내부로 이어지는 길의 동넱으로는 희게 변한 산과 얼어붙은 냇강이 보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이로 이어진 다리 위를 내가 따라 걷고 있었다.

파주는 두 번째 방문이었다. 올 초에는 가족과 함께였다. 지혜의숲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홀로 오롯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특정 도시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받으려면 혼자 남겨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내겐 늘 있었고, 다른 어느 곳보다 출판도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나는 또다시 파주로 가야만 했다.

이번에는 서포터즈로서 도심 곳곳을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자연, 미술, 음악, 독서, 휴식 등 파주출판도시는 어떤 키워드를 붙여도 충분한 장소였다. 간추릴 필요 없이 모든 걸 늘어놓아도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을 찾으면서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곳. 2월과 12월, 올해의 처음과 끝에 파주출판도시에 머물면서 내내 기쁠 수 있었다.



서포터즈 出 2기 조민주 | 2023.03.20.

"책을 읽는다는 건 누군가가 살아온 세계를 만난다는 것"

작년부터 올해 겨울 내내 진행한 출판도시 서포터즈 활동이 봄을 맞으며 끝났다. 좋아서 했을 뿐인데 최우수 활동자로 상까지 받아 감사할 따름이다. 100명 이상 지원자 중 뽑혔으니 어쩌면 그들의 기회를 가져간 셈이라, 대충대충 하고 싶진 않았다. 단순히 책이 좋아 "오, 출판도시 좋네!" 하고 시작한 활동에서 출판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파주는 철새와 갈대와 사람과 책이 공존하는 이상한 도시다. 그런 도시에는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에 종이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생업 이상의 사명감을 안고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오래도록 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출판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양산업 아니냐며 만류하셨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요즘 다 힘들어. 어차피 힘들 거라면 난 하고 싶은 일을 할래. 그리고 종이책은 절대 안 없어질걸?"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순수미술을 전공하며 돈보다는 가치가 우선시되는 일을 해왔다. 회화와 책의 공통점은 전성기가 아니라도, 돈이 안 돼도, 오랜 세월을 없어지지 않고 인간과 함께해왔다는 것이다. 그림과 책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은 사유했 줄 알며 자기만의 철학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사람이다. 이는 '인간'이라는 고등 생물의 특권이며, 그러한 세계가 책이라는 매개를 통

해서 만나 서로 연대하며 사회가 구성된다.

책에는 활자 이상의 깊은 울림이 있다.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쓴 사람부터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담고 있는지..... 독자는 또 그 세계와 만나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나도 그중 하나로, 어릴 때 머릿속으로 세계여행을 다니게 해준 뜨인돌출판사의 '노빈손 시리즈'도, 다 자란 내 마음을 채워주는 '문학동네 시인선'도 출판도시와의 긴 인연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또 나는 이 포스트를 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나는 어떤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될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책과 출판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출판도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쌓아왔는지 알 수 있어서 기뻐다. 그런 출판도시의 행보에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나라는 '세계'를 궁금해해주신 매니저님도,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기업도, 이 포스트를 열심히 봐주신 분도, 내일 출근하는 출판도시 사람들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각자의 세계에서 잘 지내며 또 볼 수 있기를! (저도 파주에 취업하고 싶어요.)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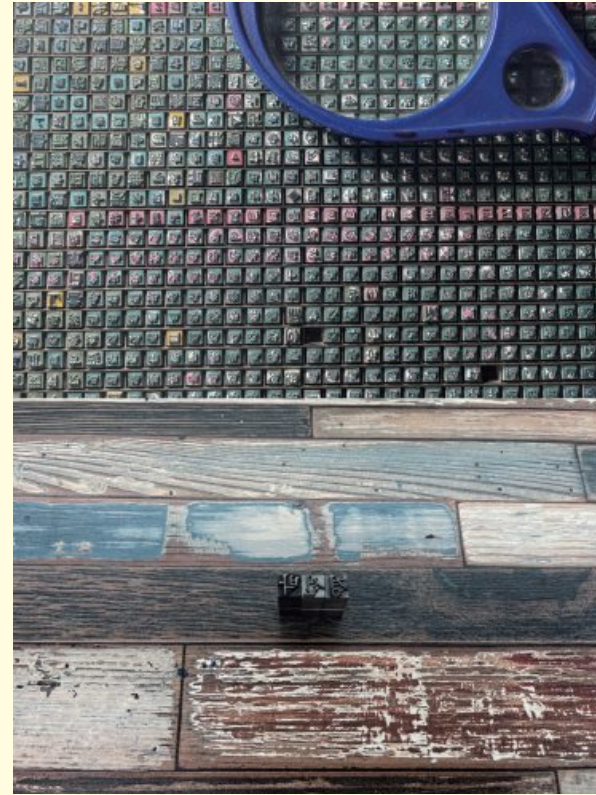
서포터즈 出 3기 김주현 | 2023.06.30.

비 내리는 책의 숲

“출판도시는 저에게 책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숲과 같은 곳입니다.” 서포터즈 지원서에 쓴 문장이다. 그 숲에 비가 내린다. 비 내리는 지지향, 비 내리는 열화당, 비 내리는 미메시스를 지난다. 화창한 날에만 왔었는데, 물에 젖어 짙어진 녹음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걷는다. 줄지은 우산 아래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청주와 부산, 전주와 속초. 모두 다른 곳에서 출발한 우리는 파주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하며 이어진다.

“사람은 낱말을 아는 만큼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낱말은 책에서 파생되지요. 그래서, 책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보리출판사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책의 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출판과 독서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곳을 만들었고 지켰으며, 이어나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쓰겠다고 다짐한다.



서포터즈 出 3기 박선경 | 2023.07.04.

책과 도서관 그리고 기록물과 종이의 향을 좋아한다. 이를 깨닫고 상경하여 1년, 출판도시 서포터즈가 되었다. 출판업 지망생이지만 여태껏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진득하게 엮이려고 한다. 활동하면서 출판도시를 알아가고 점차 애정을 쌓을 예정이었지만, 글썄 첫 만남부터 이곳을 사랑하게 됐다.

파주출판도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건축 설계로 여의도 중권가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4층 이상의 높은 건물은 보이지 않으며, 통일성 있는 간판들은 담백하다. 얼마나 자연친화적인지, 조성된 길의 손잡이에서는 초록색 애벌레들이 꿈틀거린다(중...아). 평지여서 산책하기도 좋더라. 풍경이 초록초록해서 눈이 편안하다.

출에서 팀을 나누었는데, 초록팀이자 ‘입(입)조’가 되었다. 나오는 것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 수많은 출을 하기 위해서 잡다한入을 실천해보겠다.

파주에 처음 와봤지만 벌써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샘 솟는다. 이곳의 취지도, 발단도, 오늘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마음에 든다. 그토록 싫어하는 짹짹한 빗물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서포터즈 出 3기 광도는 | 2023.09.08.

출출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는,
지난 3개월 동안 나를 생애 처음 지구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출판도시문화재단 서포터즈 出.

쉽이라는 게 사람을 참 무딘 상태로 만들기도 해서,
그간 끊임없이 구상하고 탐색하고 실행하던 일상을 잠시 멈
추니
편안함이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더라.

내게는 관찰할 새로운 사람과 공간이 필요했고,
움직이는 법을 잊지 않게 할 기회가 필요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으른 완벽주의'에 좌절하기도 했
지만.....

운이 좋게도 결이 잘 맞는 팀원들을 만나서,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가득 채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
던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일종의 확신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出인데
어째 사랑하는 것은 더 늘어나버렸지만

한여름의 파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출판도시문화재단 서포터즈만큼 꼭 맞는 것이 없다는 게
나의 작지만 또렷한 결론.

파주에서 선물 받은 이름처럼
다가올 날들을
나고, 태어나고, 나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서포터즈 出 2 강담비 | 2023.03.06.

종이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담은 지지향, 정말 멋집니다.

라이브러리스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객실에는 TV 대신 책
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잠시 휴대폰을 객실에 두고 투숙객
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서가인 문발살롱에서 책을 읽은 것
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끔은 필요한 일 같
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무척 사랑하지만 가끔은 지치지요.
그럴 때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나면 반가워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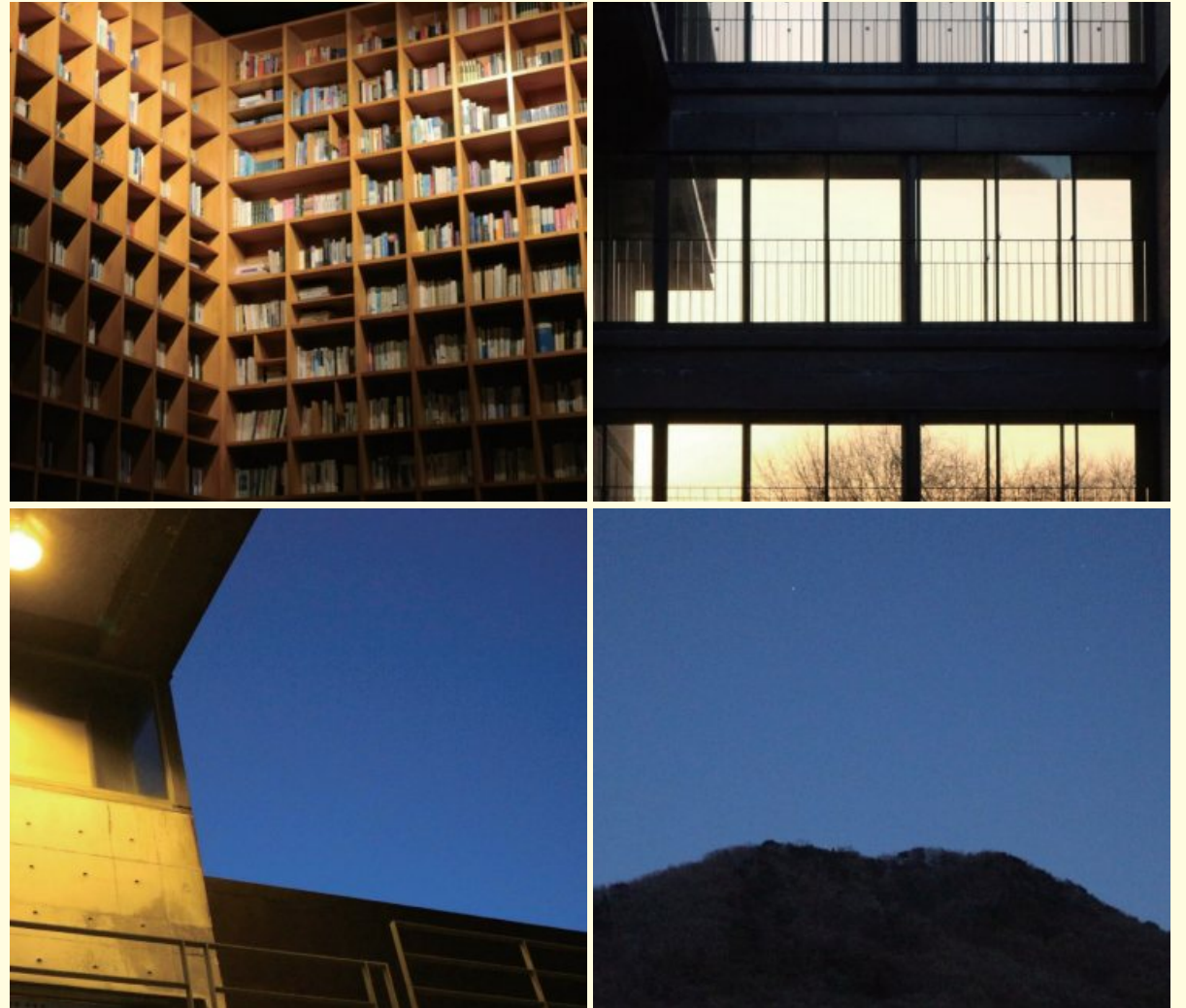
서포터즈 出 2 송세희 | 2023.03.08.

출판도시 서포터즈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사랑하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새삼스럽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찾지 않았던 곳들을 찾게 된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열심히 하고 오자. 그런 다짐을 하며 버스를 탔다.

파주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예닐곱 시면 불을 끄는 가게가 대부분이고, 아홉 시쯤이 되면 거의 모든 건물의 불이 꺼진다. 낮에도 조용한 도시지만 밤에는 정말... 적막하다. 출판도시에 몇 번이나 드나들면서 난처했던 점이라면, 다섯 시쯤에는 반드시 나오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 밤의 출판도시를 내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지지향에 머무르면서 몇 번이나 커튼 너머 밤의 풍경을 들춰 보았다.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다니 신기해. 너희랑 있어서 정말 좋아. 너희랑 와서 행복해. 서포터즈에 지원하길 잘한 것 같아.....

열두 시쯤 문발살롱으로 내려와 소파에서 책을 읽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낮에 들어왔던 햇빛의 자리를 무음이 메우고 있는 듯 적막했다. 문이 열리면 코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냄새를 차츰 찾아나갔다. 해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림자가 겹쳐지는 시간이 있다. 뒤로 향하는 문이 크게 덜컹거리며 열렸다. 소란하게.



서포터즈 出 2 신다혜 | 2023.03.08.

까만 하늘이 되기 직전, 출판도시의 밤 풍경은 이렇다.

엄청 파랗고 차게 느껴지는 밤의 색은 물결처럼 시원하다.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작은 점 같은 철새들과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주황빛으로 켜져 있는 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의 일상이 잠깐씩 비친다. 책과 함께하는 고요한 도시의 밤 풍경은 언제 감상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책과 예술의 도시를 향한 여정:
출판도시문화재단 20년

발행인: 고영은
제작총괄: 장동석
제작진행: (재)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기획홍보팀
교정·교열: 김미경

디자인: PoTI 멋짓공작소
사진: 이현풍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재)출판도시문화재단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www.pajubookcity.org | pajubookcity@pajubookcity.org | 031-955-0050

* 본 책은 비매품입니다.
* 본 책의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968826-2-6
(03060)